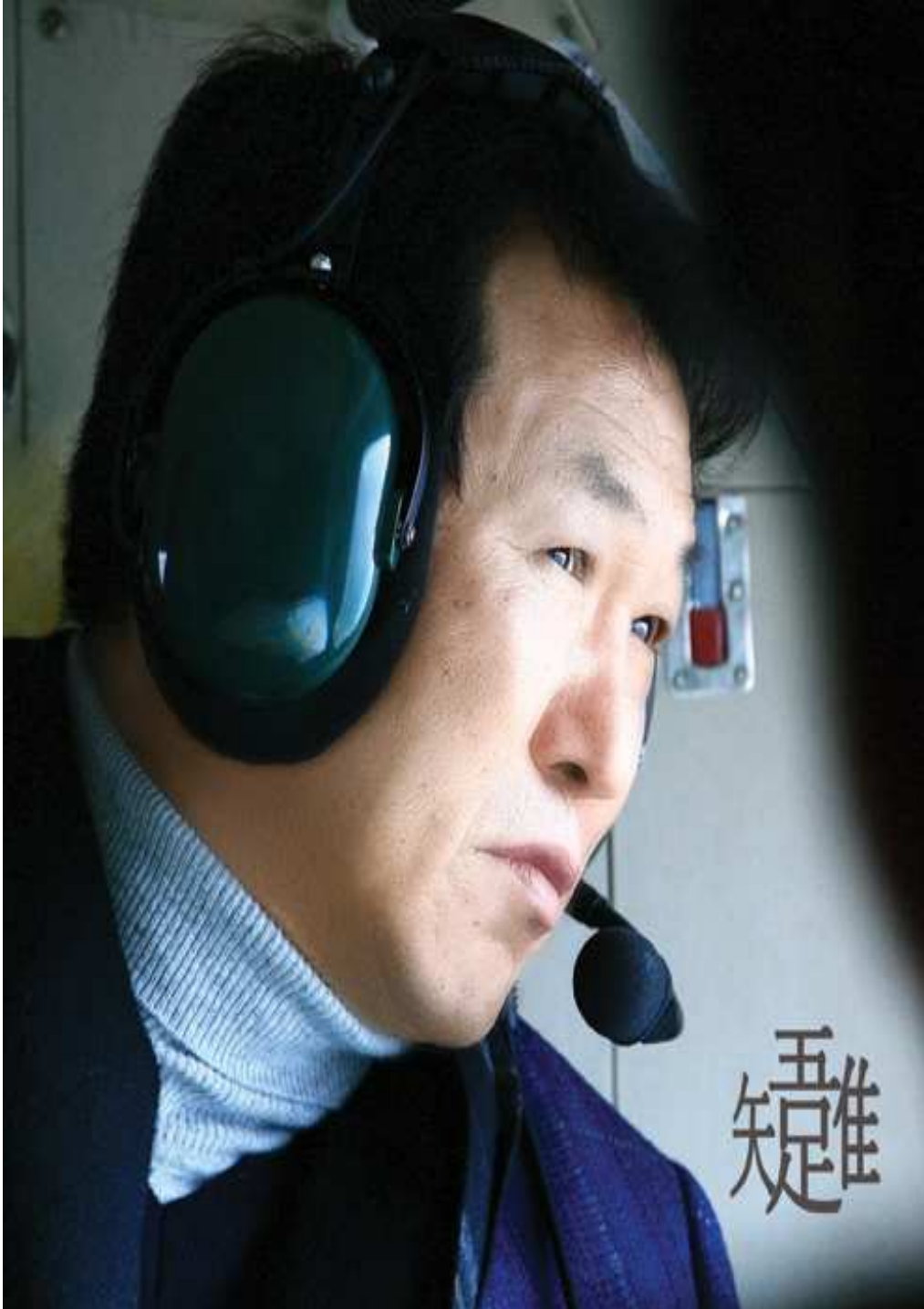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맞서라”

박홍수 농림부장관 연설문집



영산강 사업지구 시찰 (2005.2.2)



박홍수 농림부장관 임명장 수여식 (2005.1.4, 청와대)



박홍수 농림부장관 취임식 (2005.1.5, 농림부 대회의실)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 방문 (2005.1.27, 농림부 대회의실)



농촌사랑100만회원 가입운동 캠페인 (2005.3.3, 서울 명동)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인천국제공항 방문 (2005.3.7, 인천국제공항)



대설피해 현장 방문 (2005.3.11, 경남 김해)



쌀빵 전문매장 개장 참석 (2005.3.22, 농협창동유통센터)



닭고기 시식행사 (2005.11.21, 국회)



우수농축산물대전 참가 (2006.1.19, aT센터)



제7회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위수여식 (2006.2.22, 한국농업전문학교)



농업교육체계 개편 설명회 (2006.2.28, 한국마사회)



세만금 끝막이공사 현장 방문 (2006.4.21, 전북 부안)



몽골 식품농업부 장관과 목장 방문 (2006.6.4, 몽골)



여름휴가, 농산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2006.6.28, 서울 명동)



제10회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2006.8.9, 충북 제천)



수해 농업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2006.8.16, 용인 명지대)



축산물브랜드전시회 및 경진대회 (2006.9.7, 서울 코엑스)



소부루세라 방역활동 (2006.9.14, 강원 평창)



제 6회 전국 한우인의 날 (2006.9.14, 경기 이천)



신활력사업성과보고회 (2006.9.22, 강원 정선)



추석명절 농산물 수급상황 점검 (2006.9.25, 서울 양재 농협종합유통센터)



서울국제농업기계박람회 <2006.11.22, 서울 코엑스>



서울국제농업기계박람회 <2006.11.22, 서울 코엑스>



한명숙 총리, AI방역대책 상황 점검 (2006.11.26, 경기 안양)



예비엄마 농림부 여직원 격려 (2006.12.22, 농림부 대회의실)



AI 가축방역 현장 방문 (2007.1.21, 충남 천안)



설 명절선물은 우리 농산물로 (2007.2.15, 농협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한명숙 총리와 신선편이 농산물생산 현장 방문 (2007.2.21, 경북 칠곡)



한스 하인스브룩 네덜란드대사 방문 (2007.2.27, 농림부)



‘꽃사랑 이웃사랑’아파트 꽃길 가꾸기 (2007.4.25, 서울 영등포)



외교통상부와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07.4.27, 외교통상부 리셉션홀)



제주 감귤농장 방문 (2007.5.18, 제주)



성주참의 자전거 홍보단 격려 (2007.5.28, 정부과천청사)



남해군 농업인간담회 (2007.7.7, 경남 남해)



농산어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가두 홍보 (2007.7.12, 경기 과천)



농림부 전 직원 사인액자 전달후 소감발표 (2007.8.31, 농림부 대회의실)



박홍수장관 이임식 (2007.8.31, 농림부)

차례

I. 취임·신년·이임사

제 55대 농림부장관 취임사 2005. 1. 5	20
2006년 신년사 2006. 1. 1	40
2007년 신년사 2007. 1. 1	90
제 55대 농림부장관 이임사 2007. 8. 31	51

II. 연설문

축산업이 국민의 사랑 받도록	18
축산인 신년교례회 격려사 2005. 1. 7	
우리 농업, 새로운 도약의 계기	21
제1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 격려사 2005. 1. 19	
정부와 농촌현장의 가교	23
신지식농업인장 수여식 2005. 3. 3	
안전한 농산물 시대	28
농관원 경북지원 청사신축 축사 2005. 3. 11	
‘농촌지역희망찾기’ 방향	31
지역재단 심포지엄 축사 2005. 3. 22	
굵은 땀방울이 스며든 값진 작품	35
농어촌 여성문학집 출간 격려사 2005. 3. 29	
365일 나무 사랑	38
식목일 국제심포지엄 2005. 4. 4	
농업교류협력으로 남북 관계 개선	40
통일농수산물사업단 출범행사 치사 2005. 4. 4	
우리쌀에 대한 인식과 선택	42
쌀한마당축제 2005. 4. 12	
질책과 격려가 발전의 밑거름	45
한국농어민신문 25주년 축사 2005. 4. 14	



농축산물 부정유통 근절	50
명예 감사원 발대식 격려사 2005. 5. 12	
김치와 치즈의 만남	53
김치퓨전요리 시연행사 축하 2005. 5. 17	
유통주체의 변화와 혁신	56
산지유통혁신국제심포지엄 격려사 2005. 5. 23	
사랑받는 경마	59
ARC개회식 말씀 자료 2005. 5. 23	
농업 우수인력 양성	61
한국농업교육학회 축하 2005. 6. 10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65
한국식품과학회 축하 2005. 6. 15	
청정 친환경농업의 고장	68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격려사 2005. 7. 22	
인삼중주국을 위하여	71
고려인삼학회 창립 30주년 축하 2005. 9. 30	
지역사회 경제의 활성화 계기	73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식 2005. 9. 30	
농촌사랑의 혼을 담아	76
농촌문학상 수상집 발간 축하 2005. 10. 26	
도농교류 정예인력 육성기관으로	78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개원 격려사 2006. 2. 22	
도농상생이 농촌의 미래를 여는 희망	81
지역재단 창립2주년 기념식 2006. 4. 13	
농산물 식품산업은 블루오션	84
식품외식경제신문 창간 축하 2006. 4. 25	
꽃 산업 발전과 우리꽃은 내일의 희망과 꿈	86
고양 세계 꽃 박람회 개막식 축하 2006. 4. 28	
한국농업의 선구자	89
가톨릭농민운동연맹총회 및 세미나 2006. 4. 28	

쌀 산업의 활로를 위하여	92
쌀산업 정책방향 세미나 축사 2006. 5. 16	
균형 발전은 지구촌의 과제	94
2006 IFAP 서울총회 축사 2006. 5. 17	
농업인과 소비자, 정부의 가교	98
농경과 원예 창간 20주년 축사 2006. 5. 23	
식품산업도 국제 경쟁력 갖춰야	100
한국식품과학회 축사 2006. 6. 15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농협	103
2006 농협창립기념식 2006. 6. 30	
건강한 지구환경과 기술개발	107
국제원예학대회 축사 2006. 8. 13	
우리 쌀을 세계 최고의 고품질 쌀로	109
한국 쌀전업농 전국 회원 대회 격려사 2006. 8. 18	
도약과 축제의 장이 되길	112
한국농업근현대화 100년 기념식 2006. 8. 30	
농업과 함께하는 희망의 내일	116
농촌 희망 장학증서 수여식 2006. 8. 31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	119
2006 축산물 브랜드전시회 및 경진대회 치사 2006. 9. 7	
정보화시대, 우수 인재가 경쟁력	122
농학교육 100주년 축사 2006. 9. 9	
한국 축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125
한우협회 창립 및 한우인의 날 축사 2006. 9. 14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주역	128
한여농 창립 10주년 기념대회 격려사 2006. 9. 25	
농업과학기술의 미래상	131
2006 농림과학기술대전 개막식 치사 2006. 9. 27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펴낸 뜻	134
한국농정신문 창간 축사 2006. 10. 2	



미래의 농업은 생각 속에 있다.....	136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 축하 2006. 10. 12	
도농상생 지역균형.....	139
그린포럼 축하 2006. 10. 12	
양잠산업의 미래	142
세계누에산물전 축하 2006. 10. 14	
농식품 세계일류의 기회	144
식품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축하 2006. 10. 16	
소비자의 변화와 유통환경의 변화.....	147
2006 시중유통 브랜드 쌀 종합평가회 치사 2006. 10. 17	
우리 식품 홍보의 장.....	149
서울국제건강식품박람회 축하 2006. 10. 19	
21세기는 지식농업의 시대.....	151
제35회 한국영농학생진전대회 치사 2006. 10. 25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약.....	154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축하 2006. 10. 26	
새로운 희망과 활기.....	157
Love米 국제마라톤대회 축하 2006. 10. 29	
농촌문학은 '우리정서의 소금'.....	159
한국영농신문사 농촌문학상 수상작품집 게재 메시지 2006. 11. 2	
지금은 소비자 중심시대.....	161
전국 생활개선회 회원 한마음대회 2006. 11. 2	
농업유전자원 첨단기술 개발 활용	164
농업유전자원센터 준공식 축하 2006. 11. 3	
생명과 공동체, 가톨릭농민회.....	166
가톨릭농민회 창립40주년 기념축사 2006. 11. 8	
새로운 기술과 결실.....	168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 축하 2006. 11. 8	
펼쳐요 미래농업! 열어요 희망농촌!	170
제 11회 농업인의 날 축하 2006. 11. 10	



가을빛과 동양란	174
동양란 명품 대회 축사 2006. 11. 11	
HACCP기준원의 역할	176
(사)축산물 HACCP기준원 개원식 2006. 11. 14	
살기좋은 농촌지역 만들기	178
전국지역리더대회 축사 2006. 11. 17	
우리 농업 도약의 계기	181
한미 FTA협상 농업계토론회 축사 2006. 11. 17	
종자산업의 발전을 알리는 신호	184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시상식 축사 2006. 11. 24	
우리 쌀 경쟁력 제고의 초석	187
쌀브랜드 육성정책 심포지움 축사 2006. 12. 6	
농촌을 농촌답게	190
농촌경관보전 세미나 축사 2006. 12. 12	
농촌이 아름다워 지는 법	193
농촌마을개발시상식 축사 2006. 12. 13	
안전한 축산물 시대	196
축산물우수브랜드 인증 축사 2006. 12. 21	
불교계의 우리 농산물 사랑	199
우리농촌살리기 선포식 축사 2007. 1. 13	
한국농업의 미래를 연다	202
농업전망 2007 발표대회 격려사 2007. 1. 24	
한국농업의 희망 전도사	206
제8회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위 수여식 치사 2007. 2. 22	
농업의 중심, 지역의 리더	209
한국농업전문학교 10년사 축사 2007. 3. 6	
세계 속의 우리蘭	211
아태 蘭전사회 개최식 축사 2007. 3. 16	
선도적인 언론의 역할	213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27주년 기념식 2007. 4. 11	



품질 기술로 세계를 넘는다.....	216
한우관련 산업화기술 발표회 축사 2007. 4. 12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면.....	219
지자체장 그린포럼 축사 2007. 5. 3	
긴밀한 협력이 경쟁력.....	222
양돈지도자 연수회 축사 2007. 5. 22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줘.....	225
제4회 농촌문학상 축사 2007. 5. 25	
2천만 불자의 성원이 큰 힘.....	228
108산사 순례법회 말씀 2007. 6. 23	
우리 농업에 격려와 조언을.....	230
농업인신문 창간 37주년 축사 2007. 6. 27	
한미 FTA, 발전의 밑거름.....	232
한미 FTA협상타결에 따른 명예농림부장관 초청 워크숍 격려사 2007. 6. 28	
세계 농정의 귀중한 정보.....	234
세계농정 토론회 축사 2007. 7. 23	
변하고 발전해야 프로 농업인.....	237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축사 2007. 8. 2	

Ⅲ. 기고문

‘6차 산업’ 농촌관광.....	242
경향신문 2005. 2. 1	
‘1사1촌’은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244
문화일보 2005. 3. 7	
신뢰와 경쟁력.....	247
서울경제신문 2005. 5. 9	
우리 농업 다시보기.....	249
서울경제신문 2005. 5. 16	
21세기의 멜서스.....	251
서울경제신문 2005. 5. 23	



많은 농업인이 성공하는 한해로 만들어야..... 253
매일경제신문 | 2006. 2. 14

농업경쟁력, 사람이 핵심이다..... 256
매일경제 | 2007. 4. 25

IV. 친서

녹색휴가 休~ Green 캠페인..... 260
여름휴가, 농산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친서 | 2005. 7. 4

우리농식품 추석 선물,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262
추석선물 우리농산물로 보내기 서신 | 2006. 9. 4

우리 농업의 '열정적 희망'을 봅니다..... 264
우수농업경영체에게 보내는 서신 | 2007. 1. 16

세 알의 콩을 심는 농부의 마음..... 266
이장에게 보내는 편지 | 2007. 3. 20

한미FTA,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 269
이장에게 보내는 편지 | 2007. 4. 9

자연으로 떠나는 맛있는 휴가..... 273
농산어촌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 서신 | 2007. 6. 26

V. 언론인터뷰

'쌀비준동의안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276
서울경제신문 | 2005. 9. 11

쌀 협상비준동의안의 타결과 대책..... 282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 2005. 11. 23

한국농업 국제경쟁력 키운다..... 292
코리아 플러스 | 2005. 12. 2

한미 FTA 협상 추진과 대책..... 301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 2006. 2. 23

'내우외환 한국 농업'의 희망..... 310
매경 이코노미 | 2006. 4. 5



한미FTA, 농업계 입장 최대 반영	317
전업농신문 창간 10주년 특별대담 2006. 6. 20	
한미 FTA, 우리의 접근전략	323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2006. 9. 6	
쌀 이외 품목도 개방 영향 최소화 힘쓰겠다	330
무등일보 2006. 10. 10	
쇠고기 검역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	334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터입니다」 2007. 3. 21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대안은	344
KBS-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2007. 3. 28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책 과연 충분한가?	355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터입니다」 2007. 7. 6	
‘2년8개월’최선 다했지만	333
한국농어민신문 2007. 9. 3	

VI. 농정일지

2005년 농정일지	30
2006년 농정일지	36
2007년 농정일지	32



취임·신년·이임사

제 55대 농림부장관 취임사


2005. 1. 5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림부장관의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존경했던 전임 허상만 장관님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대외적으로 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바로 우리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쌀 문제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DDA 농업협상과 WTO 홍콩 각료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FTA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있어 왔지만 농가의 소득향상은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농가부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다시한번 우리 농촌발전, 우리 농업 희생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우리 농업계가 갖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농민단체·소비자단체 등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농업인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책 실현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현장농정과,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농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와 소중함을 홍보하는 「우리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되, 농업인력 육성, 물류 효율화 등 유통개선,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의 삶의 질 향상 등에도 노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남북간 농업분야의 협력방안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면서 가급적 전임 장관님의 방향을 존중하겠습니다.

농림부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토론은 물론, 외부와의 광범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화두인 「변화와 혁신」 방향에 부응하여 농림부와 소속기관 구성원 모두가 혁신의 주체가 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장관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늘 농민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신년사

2006. 1. 1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농림관련 단체 임직원과 농림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뜻하는 바대로 큰 수확을 거두시기 바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 전 대설로 인해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을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피해가 조기에 복구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을유년은 우리 농업·농촌에 있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 쌀 협상 비준이었습니다. 쌀협상 비준에 대해 농업인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100% 만족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면합의는 없었고, 농업인 여러분들이 원했던 대로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로 연장한 만큼, 정부로서는 비준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비준안을 처리하고 당당하게 개방에 맞서서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국회의 비준동의와 관련한 시위과정에서 불상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농업인 故 전용철·홍덕표 님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50년 만에 양정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인한 과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점도 다소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쌀값 지지를 위한 수매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직불제를 통해 농가 소득을 지지하면서 일정물량을 공공비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했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은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만들어 농산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09년까지 약 20조원을 투융자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을 도시와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과 기업체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은 이미 8천건을 넘어섰고, 농촌을 농촌다움을 지닌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1차로 36개 권역에서 착수된 바 있습니다.

연체로 인해 금융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돕기위한 농지은행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연체농가가 돈을 갚지 못하여 농지 등 담보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처리되면 정상가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팔리게 되지만, 농지은행을 통해 정상가로 팔아서 빚을 갚고 농지은행으로부터 그 농지를 다시 임대받아 영농을 계속하면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세계적인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철저한 국경검역

과 국내방역 조치로 올해 단 한 건의 발생사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방심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방역체계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농업·농촌은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금년 4월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7월말까지 각국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는 일정이 지난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일정대로 쉽게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부는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DDA 협상과정은 물론 이후 우리 농업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사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쌀 협상 국회비준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년 2월에 쌀, 과수대책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금년 한해 DDA 이후에 대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재점검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와의 끊임없는 대화도 진행될 것입니다.

FTA 협상은 현재 진행중인 아세안, 캐나다 외에도 멕시코, 인도 등과의 FTA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상되는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쌀협상 결과에 따라 금년부터 수입쌀이 소비자에게 직접 시판될 예정입니다. 시판 물량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이 쌀을 주식으로 삼은 이후 처음으로 외국쌀과의 시장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 유통으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유통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이미 관련법을 개정하여 부정유통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고, 명예감시원 제도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쌀값 하락 문제를 되돌아보고 양정제도를 손질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농업인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미곡종합 처리장을 중심으로 품종통일과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정성과 품질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결합된다면 굳이 신토불이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 쌀은 수입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 수입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겠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기회를 한우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조기에 확대 시행하고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 07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최근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시민들이 은퇴 후에 편안하게 정주할 수 있도록 농촌을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전원마을 조성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어울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삶의질 향상 대책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작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금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이제 자신감을 가집시다. 용기를 냅시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 농업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 앞으로의 10년, 이제 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택의 방향은 정부도 그 누구도 정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인이라고 세계 최고 농사꾼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이 세계 최강의 농업경쟁력을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감과 용기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시장 개방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농산물



을 수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인들도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 나갑시다.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이 세계 최고 품질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희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이 길이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옆에는 정부가, 그리고 든든한 우리 국민들의 성원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 세계 최고의 농업·농촌으로 가는 그 첫걸음을 올해부터 한발 한발 내딛어 갑시다. 농업인, 정부, 국민 모두를 신뢰라는 하나의 끈으로 묶고 서로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신년사


2007. 1. 1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농림관련 단체 임직원과 농림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

2007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마다 뜻하는 바 대로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해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년작 수준의 생산을 이루어내는 등 우리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로 상심이 크실 우리 농업인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질병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농업인들에 대한 생계안정지원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병술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농업·농촌에 있어서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하였던 한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UR협상 당시 보다 큰 폭의 관세감축을 논의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우리 농업·농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미 FTA 협상 개시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던 해였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민감한 품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원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갖고 한미FTA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2005년 쌀 협상결과가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수입쌀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밥쌀용으로 판매되었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내 광우병 발생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1년여의 협의를 거쳐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3차례 수입이 이루어졌지만 검역과정에서 뼈조각이 발견되어 모두 불합격 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고려와 과학적인 근거 속에서 판단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50년간 지속되어온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새로이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신활력사업 등 타 부처의 주요 농촌개발사업들의 농림부 이관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인수, 농촌지역개발 체계화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해 4월, 사업착수 14년 5개월만에 33km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연결공사를 마무리 하고, 2008년 최종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범정부 차원의 면밀한 수질보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 사업이 친환경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 앞에는 넘어야 할 많은 도전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선 한미 FTA 등 농업분야 협상에 적극 대응해서 우리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쌀은 양허대상



에서 제외하고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다양한 양허안을 제시하여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일시 중단되었던 DDA협상은 금년 1월 개최되는 다보스포럼 이후 본격적인 협상재개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 하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소비자들의 농식품에 대한 선호와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정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농약위주에서 중금속으로 확대하고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무·배추 포장유통 전면 실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확대 등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확보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하고 내년 이후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법적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립된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 육성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쌀, 과수·채소, 축산물 등 농축산물의 특성에 맞게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고 브랜드 평가를 실시하여 차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농산물브랜드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금년중 식품·외식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식품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식품산업 육성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가축질병 조기 예방 및 방역강화대책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11월과 12월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을 통해 이미 구축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토대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실의

에 빠진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부루세라병, 돼지 소모성 질병 등 각종 가축질병들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금년중에 획기적인 농촌 지역개발사업 정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오지개발 사업 등 타부처 소관 사업이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농림부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고 지원조건을 단일화하여 2008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관부처가 달라서 부분적으로 중복 추진되어온 군·면·마을단위 지역개발 사업들을 체계화하고 상호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째, 해방이후 50여년간 지속되어온 우리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농정도 평균 농가를 대상으로 정형화되었던 정책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맞춤형 농정을 도입하여 농가유형별 경영특성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금년중에 맞춤형 농정체계의 근간이 되는 농가등록제를 시범 실시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농가등록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2013년까지 맞춤형 농정체계가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단계적으로 도입·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일선 조합의 유통사업을 규모화·전문화하고 중앙회의 일선 조합에 대한 경제사업 지원도 강화하여 협동조합의 산지 유통비중을 대폭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협동조합 중심의 소비자유통 활성화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의 점검·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기본법, FTA이행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들도 손질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현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 변화□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 무역환경이 변했고 국내 소비자들의 식생활도 변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모습이 바뀌었고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은 늘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 농업계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먹을거리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오늘날과 같이 넘쳐나는 먹을거리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를 따라잡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적자생존의 원칙은 우리 농업분야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변화를 선도해 나갑시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림공직자들 모두 변화에 한발 앞서 나갑시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눈높이를 우리의 관점이 아닌 수요자의 관점에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아가 소비 패턴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어떤 상품이 어떤 계층의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농림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정책이 농업인들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달라지는 농업환경에도 적합한 내용인지 등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손질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맞춤형 농업이고 이것이 맞춤형 농정의 기본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농업, 정책수요자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변화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합시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55대 농림부장관 이임사

2007. 8. 31

수고들 많았습니다.

아침에 나오다보니 은행잎이 벌써 노래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후 가을을 3번이나 맞이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간 많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스스로 평가해보니 많은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협조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제가 장관직을 수행해오면서 생각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균형을 잘 잡았는지 시간을 두고 반성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농정을 많이 강조했듯이, 장관직을 떠나더라도 이제는 농민과 농림부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그만 마을 이장일을 시작해서 면단위, 군단위, 도단위, 중앙단위 그리고 농정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아주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사람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농업계를 평가할 때 늘 어둡고 힘들다는 말을 많이들 씁니다만, 그러한 부정적 단어보다는 밝은 면, 밝은 생각만 하게 되면 농업계도 아주 밝아지게 됩니다. 제가 와서 우리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밝게 하자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분위기 좋은 밝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면 매사가 밝게 되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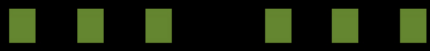
어쨌든 그동안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장관직을 떠나면서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가만히 지켜봐 주신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디에 있던 농업문제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지금의 농업인들은 과거의 농업인들이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면 우리 공직사회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농업인들과 같이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 하나 헤쳐나가기길 바랍니다.

제가 대과없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 오시는 장관님도 여러분들이 잘 보필하고 잘 협조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농림부, 농업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밖에서도 힘을 합쳐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차관님 이하 전 직원들, 농진청, 산림청, 유통공사, 농촌공사, 농협 임직원 등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설문

축산업이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축산인 신년교례회 격려사 | 2005. 1. 7

전국의 축산인과 소비자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광원 위원장님, 조일현 의원님, 이상배 의원님, 홍문표 위원님, 강기갑 의원님, 김낙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산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대표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행사 준비에 애쓰신 축산신문사 윤봉중 회장님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

우리 축산업은 □ 90년대 이후 개방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2003년도 축산업생산액은 □ 95년에 비해 50%이상 성장한 8조 9천 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농림업 생산액 가운데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높아져 2003년에는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다른 어느 농업분야보다도 규모화, 전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대규모 우수 브랜드도 상당수 출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산업발전을 위해 스스로 자금을 거출하는 자조금 제도도 축산인들이 가장 앞서서 이룩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국의 축산농가와 축산 지도자 여러분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축산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축산인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



우리 농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FTA의 확대와 DDA협상으로 수입개방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 농축산물과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것을 지키고 농가소득을 올려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풀기 위해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고 농업현장과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알리는 데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농정사에 있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해 말 타결된 쌀 협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쌀 농가의 소득보전과 함께 관세화가 유예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쌀 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자계획을 우리 농업을 회생시킬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 농가 소득안정, 농산물 유통개선,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등 주요과제가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농가의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경종농업과 축산업간의 자연 순환형 농업체계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조사료 생산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육단계부터 판매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선진화된 안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확대하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과정도 더욱 투명화 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브랜드를 적

극 육성하여 우리 축산물을 차별화 하고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축산가족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더라도 전국의 축산인과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언론계, 정부 등 모든 축산가족이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성장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 새로운 도약의 계기


제1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 격려사 | 2005. 1. 19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의 소중함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 친환경농업대상□ 을 제정하고 오늘 제1회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우리 국토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함께하고 있는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경기도 양평군과 생산자부문, 기술개발부문, 유통부문, 교사부문과 그림·글짓기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광원 위원장님, 홍문표 의원님, 강기갑 의원님 그리고 박결호 환경부장관님, 행사를 준비·후원해주신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이태근 회장님과 한국마사회 박창정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는 농업의 유지발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 4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농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친환경지구 이외에 금년부터 1,000ha 이상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착수하고 농약사용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시설



원에 천적방제사업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직불제 개편, 유통 활성화,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대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사랑하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농업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DDA와 FTA등으로 농산물의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농가소득의 정체와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발전, 농업 희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이러한 총량적인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이야말로 개방화시대에 우리농업의 활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셔서 영광의 수상을 하신 여러분들께서 그 선두에 서주십시오. 그 바탕위에 전국의 농업인,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까지 모두가 친환경농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경우 우리 농업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과 시상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귀빈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농촌현장의 가교

신지식농업인장 수여식 | 2005. 3. 3

이번에 새로 선발되어 영예를 안게된 신지식농업인, 그리고 정운천 회장님을 비롯한 신지식농업인여러분 !

참신한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밝고 희망찬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도 신지식농업인회를 이끌어오신 정운천회장님과 농업·농촌발전에 진력하고 계신 신지식농업인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지식인 농업인장을 수여받은 21분을 포함한 194분의 신지식농업인은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입니다. 우리 농업의 장래와 성패는 신지식과 경영마인드로 무장한 여러분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진정한 농업인으로 우리 농업발전을 주도해 나갈 주인공들입니다.

마음껏 꿈을 펼치고 뻗어나갈 영역은 무한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희망과 열정으로, 용기와 자신감으로 도전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바랍니다.

신지식농업인 여러분 !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도전과 함께 기회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농촌의 활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DDA 협상, FTA 확대 추진 등 개방의 파고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농업인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입니다. 반면에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지고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도전과 기회를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마련한 중장기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문농업경영체 성장기반 구축, 쌀산업의 체질 강화,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촉진,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도농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 WTO/FTA 농업협상 대응에 농정의 중점을 두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개방화 시대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사람이 경쟁력인 만큼,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매년 4천5백명씩 10년 동안 4만5천명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영농정착자금의 지원단가를 종전 1억에서 금년부터 1억 2천만원까지 올리고 앞으로도 연차적인 상향조정을 통해 영농기반을 조기에 확보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농업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창업농 후견인제를 신규로 도입해서 젊고 우수한 인력을 새로운 영농주체로 길러내겠습니다.

이러한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같은 스타농업인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농업·농촌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면서 농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확산시키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에 여러분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농업·농촌의 진정한 CEO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작년에 마무리된 쌀 관세화 협상의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잘 마무리해서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유예기간 10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과 함께 양정제도를 시장 지향적

으로 개편하여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확실한 쌀소득 보전대책도 마련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3년 단위로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그해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로 지급하되, 소득보전 비율을 당초 80%보다 5% 상향조정된 85%로 하고,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국회동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쌀소득 보전대책을 전제로 현행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시가매입·시가방출 방식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농장에서 식탁까지 고품질·안전농산물을 공급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난립되어 있는 브랜드도 최소한 시군 단위별로 소비자의 선호도와 선택기준에 따라 통합하고 정비하여 우수브랜드 중심으로 광역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을 합병하여 규모화·광역화하거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원을 강화하여 협동조합이 산지유통을 혁신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판매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이 국민의 휴식공간이나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 중 15개 부처의 참여 속에 농촌의 교육·복지·지역개발을 총 망라하는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한 전국의 시·도, 시·군별 5개년 시행계획도 수립토록 해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신지식농업인인과 전국에 계신 농업인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책도 농정에 대한 신뢰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

부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현장 농정을 통한 신뢰회복과 참되고 희망있는 농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농민들을 지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농민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해내는 『정책공모제』를 실시하여 정책의 농업인의 피부와 와닿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농민단체를 통한 정책공모를 실시하여 채택될 경우 건당 3,000만원에서 500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전체 농업인으로 공모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1,000여개 농가를 『현장농정 상담역』으로 지정하고, 농림부 전직원이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집행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인도 농업의 주인으로서, 농정의 주체로서 책임있는 역할과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업인이 해야 할 역할과 의무도 요구할 것입니다.


신지식농업인 여러분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영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요소입니다. 이러한 기술과 정보를 잘 활용해서 역대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업인이 이제는 낫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러한 성공한 농업인의 상징이자 표상이며 농업·농촌의 CEO입니다. 여러분처럼 경영마인드와 열정을 가진 전문 농업경영인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한국농업의 희망을 후배들에게 증명하는 산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농업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는 중심 축으로서 신지식농업인회가 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농업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고 정부와 농촌현장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능히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미래를 열어가는 농업·농촌」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농업이 인류의 생명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역량과 노력을 한데 모아 갑시다.

여러분의 앞길에 성공과 발전이 계속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농산물 시대

농관원 경북지원 청사신축 축사 | 2005. 3. 11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이의근 경북지사님, 김달용 경북대학교 총장님, 김범일 대구광역시 부시장님, 최태림 한농연 경북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농림단체 대표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고품질 안전 농산물관리 등 현장농정의 중추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의 새로운 청사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사 건립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경북지역 농업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건물 준공을 위해 애쓰신 공사 관계자와 농관원 경북지원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농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개방으로 상징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우리농업도 이제 전 세계 농업인을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농산물 소비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어, 이제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 아니면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안전성 확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농업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농촌현장에서 농업인과 더불어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울인 각고의 노력 덕분에 우리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 효율화의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속히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유통비용을 줄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농산물 물류 표준화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유통 현대화도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친환경 인증, GAP, 지리적표시제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동선별·공동포장·공동출하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유일한 장치가 바로 원산지 단속업무입니다. 앞으로 원산지 단속을 단속시스템의 근본적 쇄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현재 2천 5백명에서 1만 5천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합동 단속을 수행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낡은 사고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떨쳐내고 맡은 업무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기해야 하며 우리는 고객인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에 서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객인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더 나은 농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의 그 때까지 장관인 저를 비롯하여 농림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한사람의 꿈은 단순한 꿈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바라고 함께 노력하면 우리의 꿈인 농업발전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가고, 국민이 우리 농



업과 농촌에 대해 신뢰와 사랑으로 감싸주게 되면, 우리의 농업·농촌은 발전하는 농업, 희망찬 농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농정의 최일선 집행기관인 농관원 직원 여러분들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장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지역희망찾기□ 방향

지역재단 심포지엄 축사 | 2005. 3. 22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 가치와 역량을 존중하고,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지역재단의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역재단이 지난 한해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제1회 전국지역리더대회개최 등을 통해 지역개발과정에서 지역리더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고민하게 한 것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준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립 1주년을 기념해서 이처럼 귀한자리를 마련하신 정영일 이사장님, 박진도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지역재단 관계자 여러분, 오늘 주제발표를 하시는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님, 정기용 기용건축사무소 대표님, 신정훈 나주시장님 그리고 농촌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DDA농업협상의 진행과 더불어 FTA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농촌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농촌의 문제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풀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작년 2월에 확정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의 복지·교육 여건개선과 지역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책수요의 증가에 부응한 범정부차원의 농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3월에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향상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토대로 농림부를 포함한 15개 부처가 참여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농촌은 단순히 식량생산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면서, 휴양공간과 신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최소한 전인구의 20%가 거주하는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활성화 등 4대 중점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선 농촌의 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을 50%까지 확대하고, 농업인 안전공제 확대,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도시보다 강화된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노후된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공사의료원 등을 전면 보강하고 부족한 응급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유아, 여성복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센터를 시·군당 1개소씩 설치하고 출산에 한정된 농가도우미제도를 사고·질병에 따른 간병 등의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상부상조의 전통을 살린 지역중심의 자율적인 노인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치매노인 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노인복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농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농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농촌에 우수교를 집중육성하고 대학특별 전형을 확대하여 농촌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2~3개의 작은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운영하거나,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또는 독자적인 작은 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고교생 자녀 및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농여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농촌에 우수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감 추천 교대 신입학생 선발을 확대하고 복식수업 및 순회 수업수당을 신설하는 등 농촌학교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촌다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지역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방화·분권화의 큰 흐름속에서 농촌지역이 스스로 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리더를 양성하고 관련 전문가 집단을 구축하고 이들간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등 농촌의 지역개발역량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자본, 경영기법 및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노하우를 적극 도입하여 여가시설, 소득 기반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수요를 충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주요 면소재지와 소도읍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주민 공공이용시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은 인구유지 가능 여부, 지역자원 개발, 커뮤니티 형성 등을 고려해서 권역을 설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생활환경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택정비 지원, 상·하수도, 편익시설 등을 대폭 확대해 나겠습니다. 농촌주택의 신·개축 지원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3%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상·하수도 보급률을 확대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모든 군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교를 활용한 테마과학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산림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체육공간의 조성을 통해 농촌에서 도시 못지않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촌형 복합산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촌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산업화 등을 통해 소득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토자원의 DB화, 발굴된 자원의 상품화 및 권리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향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발굴하여 향토자원·경관특구로 지정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체험, 친환경농업, 전통문화 등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농촌휴양시설을 확충하여 늘어나는 여가수요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우수한 자연환경 및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소득화하기 위해서 메밀, 유채 등 경관작물과 다랭이논, 전통가옥 등을 대상으로 경관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고, 전국농촌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자원도를 제작·보급함으로써 농촌개발과정에서 지역별 특색있는 농촌다움이 고려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농촌형 복합산업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시민이 농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전원마을 조성지원 및 농촌관광의 수요창출을 위한 농산어촌 체험관광박람회 등 다양한 홍보·이벤트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이런 농촌 활성화를 위해 시행초기단계이거나 검토중에 있는 다양한 정부정책들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고견이 제시되고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지역재단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 개최되는 「지역희망찾기」 심포지엄 행사가 앞으로 농촌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굽은 땀방울이 스며든 값진 작품

농어촌 여성문학집 출간 격려사 | 2005. 3. 29

친애하는 농어촌여성문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새봄이 열리는 좋은 계절 □ 농어촌여성문학지 제10집 □ 발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어촌여성문학지 제10집이 나오기까지 농어촌여성문학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농사일에 굽은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밤을 지새웠을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아는 □ 농어촌여성문학회 □ 회원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농촌 생활이 힘들다고 떠나가고, 농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외면할 때 농업과 농촌의 진정한 가치를 그 순수하고 소박한 글로 지키고 알리고자 애썼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과 정성이 쌓인 덕분인지 이제 세상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농상생의 의식도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에게 농촌과 농업 발전의 새로운 환경과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을 둘러싼 도전들이 아직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쌀 수입개방이나 FTA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높은 농산물 개방의 파도가 그렇고 아직도 불안정하기만 한 농업인들의 소득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의 경제 현실이 어느 한때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들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도 있다□ 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금년에는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도농상생 분위기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립된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연도별 로드맵에 근거하여 6개 정책목표와 25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쌀 협상이 10년 관세화 유예로 일단락 되었지만 소비자 시판이 개시되는 등 쌀 농가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RPC(미곡종합처리장)를 중심으로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을 계열화하는 등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쌀 산업의 체질 개선과 양정제도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하여 쌀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또 정부는 전업농의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면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선 및 농지은행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해 농협법 개정으로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금년에는 산지 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실제 농가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식품산업 육성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50억불 농식품 수출 계획아래 금년 수출목표를 23억불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15개 부처가 참여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이 계획은 복지기반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향후 5년간 20조 3천억원을 지원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러한 정책 추진과 함께 농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농업인과 정부간 벽을 허무는 현장농정 추진을 혁신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농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정책들이 궁극적으로는 농촌과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21세기 미래 농업과 농촌 문제해결의 키워드를 여성과 감성에서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문학을 사랑하는 맑은 감성의 여성 농업인이 자연과 교감하면서 일구어낸 농산물은 바로 웰빙과도 좋은 짝을 이룰 것이며 이것은 첨단 친환경농업과도 잘 어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것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 농어촌여성문학회□ 회원여러분,

순수와 열정으로 가득했던 초심을 잃지 마시고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회원 여러분이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문학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이 세상에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제10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농어촌여성문학회 회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께서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65일 나무 사랑

식목일 국제심포지엄 | 2005. 4. 4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입니다.

내일 제60주년 식목일을 기념해서 마련된 뜻 깊은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누구보다 나무와 숲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국정에 바쁘신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조일현 의원님,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생명의숲국민운동과 한국임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목일은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365일 내내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우리의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산과 나무를 가까이 하는 민족으로 일제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울창한 숲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제시대에 많은 숲이 벌채되어 훼손되었고, 6. 25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산이 민둥산이 되어 황폐화되었습니다.

국민과 정부는 산림복구를 위해 70년대 초반부터 치산녹화정책을 수립하고 열과 성을 다해 산림녹화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 성공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진산림부국과 비교해 볼 때 현재 나무의 축적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드물어 녹화성과를 자만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여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올해 2월부

터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당사국은 아닙니다만 장차 우리나라도 감축의무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들은 생물다양성 확보와 사막화 방지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열대국들은 열대 천연림의 생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이나 상황에서 산림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쓸모 있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절대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열심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황폐화된 북한산림의 복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대부분의 산림이 황폐화되어 비가 조금만 와도 산사태와 홍수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남북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북한의 산림 복구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특징이 있어서 매년 봄만 되면 우리국민은 중국과 몽골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축적된 녹화경험을 중국과 몽골에도 전수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어질 심포지엄에서 우리의 조림과 숲가꾸기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여 향후 우리나라 산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교류협력으로 남북 관계 개선

통일농수산사업단 출범 행사 치사 | 2005. 4. 4


존경하는 이우재 상임대표님!, 존경하는 박재규 장관님과 김성훈 장관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지난 2000년 설립된 통일농수산포럼이 그 동안 조용히, 그러나 열성적으로 추진해온 남북농업협력사업에 오늘 큰 걸음을 내 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통일농수산사업단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및 경제협력에 있어 농업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쌀, 비료 등 긴급 구호적인 지원에서부터 점차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북한은 상호 보완적 영농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민간이 추진해 온 좋은 협력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동시에 여건에 따라서는 정부가 직접 북한당국과 협의하여 농업협력 사업도 가능할 것입니다.

금년 연두보고시에 대통령님께도 보고드렸습시다만, 농업분야의 남북협력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간 농업협력의 시대를 이끌어 가야할 때입니다.

북한도 금년초 □ 신년공동사설□ 을 통해 종자혁명, 두벌농사 그리고 선진영농기법 도입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개혁 추진이 이전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손



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민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경협차원으로, 민간은 긴급구호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그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통일농수산포럼이 추진해 온 삼일포 협동농장 지원은 민간차원의 모범적인 협력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벼 생산증대를 위한 농약·비료와 기술지원은 물론 육묘장 운영, 채소류 협력재배를 위한 시범사업 등은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실천함으로써 북한 내 협동농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업단 발족을 계기로 남북간의 농업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통일농업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 목적에 부응되도록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통일농수산사업단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단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쌀에 대한 인식과 선택

쌀한마당축제 | 2005. 4. 1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행자 회장님, 주부교실중앙회 이윤자 회장님,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시·도 관계자 여러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 2005년 브랜드 쌀 한마당 축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시중 유통 브랜드 쌀 평가」는 소비자에게 우리 쌀
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토록 함으
로써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
안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노력으로 고품질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생산
자들도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회원단체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
다.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영농종사자들도 노령화 되어 있으며, 국내산 쌀 가격도
외국산보다 4~5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쌀 협상 이행과 DDA협상 추진으로
앞으로 국내 쌀 시장의 개방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움은 가중되
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연장
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10년은 관세화를 대비하여 우리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쌀을 사랑하는 생산자 및 소비자 여러분 !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생산자께서는 소비자가 신뢰하여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 품질이 고급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정부도 이러한 노력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부는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양정제도 개편과 쌀 농가소득보전방안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80kg 한 가마당 17만원의 목표가격을 정하여 목표가격보다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목표가격과의 차이분의 85%를 정부가 직접 보전해 드리게 됩니다.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체를 도입하고 양곡 포장표시제의 강화와 생산자와 소비자를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제를 도입하여 양곡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들께서도 우리 쌀 산업이 단순한 먹을거리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공간 확대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산업임을 인식하시어 우리 쌀을 더욱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 품종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을 늘이며, 미곡 종합처리장(RPC)의 가공기술 향상과 경영혁신 유도 등 생산단계에서 부터 유통단계까지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 강화대책을 6월까지 보완·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굳건히 연결하고 우리 쌀 산업이 개방하에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때 보다 소비자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80년대 중반에 130kg에 이르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지난해에는 82kg으로 20년동안 40%가 감소 되었습니다. 쌀 소비량 감소는 국내 식량자급기반과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의 상실과 함께 영양섭취 불균형에 의한 국민건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쌀 소비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등과 함께 쌀 소비촉진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반 소비자가 쌀 빵이나 쌀 건빵 등을 식사대용이나 건강·편의식품으로 선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유도하며, 쌀 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선택이 중요하며,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밥 중심 전통식단의 건강·영양학적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출발하는 「브랜드 쌀 평가」는 쌀의 품질경쟁력이 쌀 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평가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브랜드 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우수 지역브랜드를 추천해주신 시도 관계자 여러분과,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발대식에 참석하신 71개 브랜드 생산업체 관계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된 브랜드가 모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비자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책과 격려가 발전의 밑거름

한국농어민신문 25주년 축하 | 2005. 4. 14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서정의 회장님, 엄홍우 사장님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 임직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광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황민영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농어민신문이 창간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날에 여러분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지난 1990년 창간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반세기 동안 늘 농업인들 곁에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한국농어민신문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도전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오는 12월 홍콩 각료회의를 앞두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으로는 우리 농산물이 품질과 안전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 현상에 맞서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하는 과제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농정에 얽힌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자 합니

다. 금년 한해는 농업인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쌀문제, 이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된 쌀 협상은 농업인 여러분들이 희망하신 대로 관세화 유예를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WTO 검증도 끝나 이제는 국회 비준만을 남긴 상황입니다. 우리 쌀 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을 통해 우리 쌀농가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우리 쌀에 관한 정책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품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품질과 안전성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쌀의 품질은 결국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수입될 외국쌀도 일부나마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소비자들과의 약속입니다. 종자가 잘못됐는지, 가공기술이 잘못됐는지, 우리 농업인들의 기술에 부족함이 있는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수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올 하반기에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출하기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쌀이 농업인 여러분의 손을 떠나서 저장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수입쌀 시판문제입니다. 사실 물량 자체만을 놓고 볼때 국내 소비량의 0.5%밖에 되지 않아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농업인, 우리 농업에

미칠 심리적인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수입쌀을 전량 국영무역으로 관리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합동으로 명예감시원을 구성해서 둔갑판매와 같은 부정유통을 철저히 막아내겠습니다. 농지제도는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농촌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소유와 이용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지가격 하락 등 농지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농지은행제도는 농지 유통화를 원활히해서 농지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농가에게 다시 임대해서 농가가 영농을 계속하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좌절하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중 하나가 협동조합문제입니다. 그동안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 무수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개혁방향은 수요자인 농업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개혁에 대한 큰 줄기는 잡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우선 농협 자율에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을 쫓을때 자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고령화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농림어업인들의 삶의질향상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15개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수립·확정하였습니다. 5년간 20조3천억원이라는 재원이 농촌의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등에 투입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대해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 힘들다는 말보다는 희망이 있다, 해답이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반드시 답은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답이 될 수는 없는지 찾아봅시다. 농업정책이 잘못됐는지, 농업 관련법이 잘못됐는지, 농업 기관들이 제역할을 못했는지, 우리 농업인들 스스로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반성해보면 반드시 답은 나올 것입니다. 그 답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농업과 농촌의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농업 희망찾기에 정부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농촌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농촌현실에 맞지 않는 모든 규제나 제도들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불편없이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정부와 농업인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 관계자 여러분!

개방시대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민·소비자들은 도농상생운동에 동참하고 원산지 단속과 같은 시장감시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농촌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농정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 역할들이 조화를 이룰때 농정은 성공할 수 있고 우리 농업과 농촌에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서슴없이 질책해 주십시오.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해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한국농어민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해 오신 것처럼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가교가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리며 농업인의 사랑과 신뢰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 큰 기여를 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물 부정유통 근절

명예 감시원 발대식 격려사 | 2005. 5. 12

명예감시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한농연 서정의 회장님, 가톨릭 농민회 정재돈 회장님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대표 여러분, 그리고 한국부인회의 임명순 회장님, 전국 주부교실중앙회 임경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 대표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농산물 명예감시원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주신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산지 표시제도가 1995년에 도입된 이후, 원산지의 과학적 식별 방법과 단속 기법을 개발하고 수입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 행위를 꾸준히 단속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체도를 도입하여 직접 수사를 하는 등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예감시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농정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


다. 시장개방으로 상징되는 WTO체제하에서 우리농업도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WTO 체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값싼 농산물의 수입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이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증가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원산지 단속 업무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위반 건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그 위반행위가 점차 지능화·다양화·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우기 올해는 수입쌀의 시판이 예정되어 있는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명예감시원을 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은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로 원산지 책임기관인 농관원이 농업인 단체와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로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 하겠으며 앞으로 큰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후 이제 전국 곡곡에서 명예감시원들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감시와 단속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면 원산지 둔갑 행위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명예감시원에 대하여는 교육, 활동비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또한, 상습 위반자에게는 형량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꾸준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업인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외국산과 차별화시킴으로써 우리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 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명예감시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농산물은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로 농업인과 소비자,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발대식에 참석하신 명예감시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와 치즈의 만남

김치퓨전요리 시연행사 축하 | 2005. 5. 17

존경하는 르 꼬르동 블루 앙드레 꾸앵트로 회장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시종 위원님, 주한 남아공대사 시드니 바파나 쿠브헤카님, 주한 수단대사 바비 커 알리 카리파님, 주한 레바논대사 후세인 라말님과 그 밖의 외교관 및 그 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치 제조 및 수출업체 대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세계적인 요리학교인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루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서양인들의 기호에 맞추어 새롭게 개발한 김치요리책자의 출간을 기념하여 김치퓨전요리 시연·시식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김치를 비롯한 된장, 고추장, 전통 민속주 등 발효식품과 함께 떡, 비빔밥, 불고기 등 다양하고 독창적인 전통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연속극 대장금을 계기로 우리의 우수한 음식문화가 일본, 중국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치의 경우, 2001년도에 CODEX 국제식품규격을 획득하고 현재 36개국 이상에 1억불이 넘게 수출되는 국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김치의 기능성 연구, 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해외 홍보 등 다각적인 김치산업 육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치퓨전요리 시연·시식회는 우리 식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김치와 프랑스의 식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치즈

즈가 만나 새로운 식문화의 탄생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번 시연·시식회는 분명히 동서양의 식문화 교류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 90년대 이후 수출환경은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을 포함한 농식품 시장개방은 거스르기 힘든 국제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이어 2001년부터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각국은 개방의 잇점을 최대한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최근들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수입식품의 소비증가 등으로 식품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중금속오염 등의 위해요인 증가와 Well-being 바람 등으로 식생활에서 안전성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식품은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아울러 다양한 맛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김치퓨전요리 시연·시식회는 우리 식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김치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정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발효식품인 김치와 오늘 시연될 예정인 김치 퓨전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국제식품박람회와 시식행사 등을 통하여 김치의 맛과 영양을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김치홍보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현재 우리농업은 새로운 희망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계절의 뛰어난 자연조건 아래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이를 더욱 특화하고 세계 각국에 알려 수출농업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농업과 식품산업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연 시식을 통하여 우리

전통음식을 평가해 주시고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익한 의견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그 동안 김치 홍보에 앞장 서 주신 르 꼬르동 블루의 앙드레 꾸앵트로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주체의 변화와 혁신

산지유통혁신국제심포지엄 격려사 | 2005. 5. 23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농산물 유통을 위해 애쓰시는 지자체 관계자, 학계, 조합장님, 그리고 정대근 회장님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내외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농산물의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해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미국 선키스트의 마이크 우튼씨, 네델란드 그리너리의 애드 클라센 박사, 스페인 안네콕의 이그나시오 후아레스씨, 일본 전농의 마에지마 츠넌오씨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안밖으로 우리 농산물유통 분야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DDA, FTA 등 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 농산물과 경쟁이 본격화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소비자들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구조도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농림부와 농협, 농민단체, 농업인 모두가 동참하여 힘을 모으고 성심을 다 쏟을 때 농산물유통 혁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에 비해 경쟁 우위를 지키려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선별·포장하

여 신선하고 안전한 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략적 유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략적 유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읍·면 단위의 소규모 사업구조로는 불가능하며, 산지유통의 규모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산지유통 관계자 여러분!

산지의 유통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강한 산지 유통주체들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마케팅 인력을 육성하는 등 농업인의 수취가격 향상을 위한 경제 사업체로 탈바꿈해야 하며, 산지유통주체간 연합을 확대하여 경제사업을 보다 규모화하고 전문화하여 시장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규모화·조직화된 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변화와 혁신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일선의 지자체, 농협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농산물 유통개혁에 있어서 농업인의 자조조직인 농협의 역할은 산지유통을 규모화·전문화하고 농가를 조직화하는 것이며, 지자체도 이를 위해 인적·물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산지유통주체들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유통사업에 적극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조합의 산지유통 역량이 갖추어지고 활성화되었을 때 비로소 농업인들이 조합을 신뢰하고, 생산자가 시장에서 가격교섭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농협·농업인들이 일치단결하여 산지유통혁신을 이루어내고, 농업인은 충분한 소득을 올리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해외의 우수한 산지유통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 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대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과 취약점을 발굴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귀한 의견은 앞으로 산지유통대책을 한층 공고히 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외 연사분들께서도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진전을 이해하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경마

ARC개회식 말씀 자료 | 2005. 5. 23

로렌스 웡 아시아 경마연맹 회장님, 이우재 한국마사회장님 그리고 국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마사회가 지난 1980년에 이어 25년 만에 아시아경마회의를 다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신 전 세계 27개국 600여 경마관계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국내 귀빈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22년에 최초로 현대식 경마를 시작한 한국의 경마는 지난 80여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출액, 입장인원 등 양적인 면에서 큰 성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축산발전과 농어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의 경마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마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도록 경마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마를 건전한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경주마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우수한 씨말의 확보를 통해 경주마의 품질을 높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마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말의 국내 수요기반과 말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카지노 등 다른 사행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마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경마는 인간에게 친숙한 말을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경주마의 생산·유통 등 관련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경주대회를 통해 인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레저 활동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사실 경마 등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국가세수와 한국마사회 재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마사회법을 개정하여 여러가지 유형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설 경마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생명이 태동하는 아름다운 봄을 보내며 성장의 계절,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땀흘리듯이 이번 제30회 아시아경마회의가 한국의 경마산업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세계 경마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제30회 아시아경마회의가 한국을 방문하신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교류를 보다 넓혀 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우수인력 양성

한국농업교육학회 축사 | 2005. 6. 10

정성봉 한국농업교육학회장과 교수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

오늘 명실상부하게 농업교육의 가장 정점에 서있는 한국농업교육학회의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하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농업교육학회는 1967년 설립된 이래 농업교육에 관련된 학술활동과 농업교육정책 개발 및 농업교육현장 개선 활동 등을 통해, 그동안 농업부문의 우수인력양성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업교육을 통해 농업·농촌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밖으로는 DDA 협상, FTA 확대 추진 등 개방의 파고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촌의 활력을 높여야 하는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는 안팎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온 자랑스런 전통이 있습니다. 힘을 합쳐 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모읍시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의 희망찾기를 통한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벽을 허무는 현장농정을 통해 농업인과 정부 그리고 소비자가 상호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정부와 함께 결정하고 농업인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만, 농업인도 농업의 주인으로서, 농정의 주체로서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해야 할 역할과 의무도 요구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중장기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을 토대로 우리 농업·농촌의 회생과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쌀 협상 결과 우리 쌀산업에 주어진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확실한 쌀소득 보전대책도 실시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3년단위로 국회 동의를 거쳐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그해 쌀값과의 차이 85%를 직접지불로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경쟁력인 만큼, 우리 농업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할 정예농업인력 육성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매년 4천5백명씩 10년 동안 4만5천명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과 함께, 올해 시범도입한 농업 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창업농 후계인제 등을 통해 새로운 영농주체도 길러내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농과계 대학이 영농정착과정(트랙제)을 운영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을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교육도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품목별 전문교육방식으로 과감히 개편하겠습니다. 품목선택에서 마케팅, 해외연수까지 일괄해서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책임지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정예농업인력 육성과 함께 중소기업의 농업인도 조직화하여 이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친환경 농업을 확산시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 농산물관리제도, 이력추적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등도 적

극 추진하겠습니다. 품질과 서비스로 우리 시장도 지키고 수출도 대폭 늘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문제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정부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의료 등 복지시책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농촌을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금년에 35개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특색있게 시행하여 기본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이 스스로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특색을 고려한 클러스터가 형성·발전되어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20개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앞으로 중장기 클러스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2013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과 다원적 가치를 포함해서 □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 운동□ 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데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1사1촌 운동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범국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

우리 농업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는 중심축으로서 「한국농업교육학회」가 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농업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고 정부와 농촌현장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농업인, 농업교육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능히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 지속가능



한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 잘사는 농업인, 미래형 복합생활 공간으로서의 농촌
□ 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성봉 회장님을 비롯
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한국식품과학회 축사 | 2005. 6. 15

존경하는 한국식품과학회 김성곤 회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정숙 청장님 그리고 국내외 내빈 여러분 !

그동안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한국식품과학회의 제72차 학술대회 겸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축하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식품과학회는 지난 1978년 설립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식품과학 전반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을 질적, 양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식품과학회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미쯔비시 산업동향연구소가 밝힌 바와 같이 21세기 신 성장산업으로 전망되는 미래 유망산업입니다. 또한, 식품산업은 국가의 식량안보에 직결되는 산업으로서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림부는 지속적인 농업의 성장을 위해 식품산업을 농업의 성장동력 과제로 채택하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가 투자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식품 제조,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식품산업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외 식품산업 현황

을 분석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식품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6월말까지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될 식품산업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산업육성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농림부가 중점 추진한 전통식품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규격화, 통계정비, 수출과 외식산업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식품과학회 회원 여러분 !

오늘날과 같은 개방화시대에서는 식품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업계와 학계가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종합적인 육성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품업계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국식품과학회 회원 여러분 !

오늘날과 같은 개방화시대에서는 식품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식품산업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조·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복잡한 유통과정과 거치는 종합 산업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업계, 농업과 식품 제조업, 외식업이 긴밀하게 협력할 때 농업과 식품산업은 동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식품업계, 농업과 식품제조업, 외식업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필요하며, 학계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성곤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식품과학회가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결하는 훌륭한 연결고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식품과학회가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학회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이번 학술대회와 국제심포지움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식품과학회 김성곤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간 이루어지는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정 친환경농업의 고장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격려사 | 2005. 7. 22

존경하는 김광원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 □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러한 훌륭한 개막식이 있기까지 오랜기간 땀 흘려 준비하신 엑스포조직위원회의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울진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울진(蔚珍)이란 이름은 산림이 울창하고 진귀한 보배가 많은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 바다, 온천이 어우러진 천혜의 청정지역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통의 오지로서 사회·문화적 혜택에서 다소 소외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를 개최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청정 친환경농업의 고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1세기 울진군의 미래를 주도하는 첨단 생명산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선택한 김용수 군수님과 울진군민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농업을 사랑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국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농업인들의 용기와 자신감, 우리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소비자가 있는 한 위기가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

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인 119조 투융자계획을 토대로 우리 농업의 신뢰 회복과 벽을 허무는 현장농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이 아닌 지방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색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지역이 중심이 되는 농업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울진군이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 행사는 매우 의미 있고 타 지역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 실천이 시대적 요구임을 인식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농업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2010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10%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및 유통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지역농업 발전계획과 결합하여 농촌지역을 도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실패해서 꿈이 깨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도전 앞에 스스로 꿈을 접는 낙약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합심협력, 믿음과 창의적인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울진 군민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
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삼종주국을 위하여


고려인삼학회 창립 30주년 축하 | 2005. 9. 30

고려인삼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모아 「고려인삼학회 30년사」를 출간하게 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물인 인삼에 관한 전문학술단체인 고려인삼학회는 1975년 발족한 이래 국제심포지엄 개최, 학술연구 등 활발한 활동으로 고려인삼의 세계화와 인삼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인삼은 홍콩에서 다른 외국 삼과 비교해서 4배에서 15배 비싸게 거래될 정도로 질과 품격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시장에서는 미주의 화기삼, 중국삼 등 외국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한국이 인삼종주국이라는 과거의 명성만으로 외국삼과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웰빙 열풍,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증대 등은 고려인삼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삼의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성분 규명과 효능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인들이 즐겨 섭취할 수 있는 가공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삼전문 학술단체인 고려인삼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역할과 큰 기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우리 인삼 및 관련제품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고품질 원료삼 재배, 외국삼 부정유통 근절, 연구개발 강화, 차별화된 수출시장



전략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삼재배농가,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 02년에 55백만불로 위축되었던 고려인삼 수출이 □ 03년도에는 67백만불로 증가세로 반전하였고 □ 04년에는 89백만불로 크게 성장하는 등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출간된 □ 고려인삼학회 30년사□ 가 우리나라 인삼 산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학계에서 인삼연구를 진작시켜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인삼학회 창립 30주년과 「고려인삼학회 30년사」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지역사회 경제의 활성화 계기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식 | 2005. 9. 30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개장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늘의 개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마사회 임직원과 공사시작부터 개장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부산시와 경남도의 관계공무원, 공사를 담당한 시공회사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과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단순한 경마장 건설을 넘어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개장은 부산과 경남, 양 시도간의 협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 시도는 지난 1999년 5월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 건설에 합의한 후 부산시 범방동과 김해시 장유면에 경마장 부지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공사를 원만히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 시도가 세제 감면을 추진하여 공원화사업이 보다 앞당겨 질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마장 주변도로의 확장과 노선버스 확대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양시도의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개장이 지역사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공사기간중 연인원 60여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으며, 50여개의 지역민간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개장 후에는 연간 1,500여억원의 지방 세수 증대와 1,000여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마공원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원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공원화사업이 완공되면 이곳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와 갖가지 동식물과 접할 수 있는 생태공원 역할 등을 통해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이 즐겨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한국 마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개장으로 마필산업이 성장하고 경주마 등 말의 수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져 경주마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마조련장, 승마장, 말 테마파크 등 말 관련산업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한국마사회 임직원과 내빈 여러분!

마필산업은 경마를 통한 우수 혈통마의 발굴과 육성, 승마, 체험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산업입니다. 특히, 승마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그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의 활력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주마 개량과 승마여건개선 등 마필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이제 첫걸음을 내 뒀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지역주민의 격려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경마공간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개장을 축하하며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사랑의 혼을 담아

농촌문학상 수상집 발간 축하 | 2005. 10. 26

먼저 「한국영농신문」이 농촌문학상을 만들어 우리들 삶의 뿌리인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훌륭한 문학작품들이 농촌을 다루면서, 우리 농촌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어 기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동참해 주신 문인 여러분들과 수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연의 모습을 닮은 농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도 나름대로 옛 모습을 지닌 곳이 농촌입니다. 우리는 농업과 농촌을 통하여 과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메마른 현대를 살아가는 외로운 도시민들은 농촌을 통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인간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독과 소외라는 본질적인 질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미래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손잡고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을 통하여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도시민의 외로움, 소외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농촌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고유의 전통문화를 간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의 일상생활 속에 파묻혀 살다보면 농촌의 가치와 소중함을 쉽게 잊어가고 있습니다. 농촌과 농업의 소중함을 지켜 나가고 알려야 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금년에도 시장개방이다, WTO/DDA협상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농촌에 좋지 않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지금 농촌은 어렵지만 우리는 농촌의 희망 찾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부상조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도시에 사는 국민들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가질 때,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학을 통하여 도시민들이 농촌과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영농신문사에서 작년에 개최한 농촌문학상을 통해 농촌과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좋은 문학작품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농촌사랑 정신을 가진 아름다운 분들이 좋은 글들을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이 작품들을 책으로 만들어 더욱 많은 분들에게 읽혀져 농촌의 푸근함과 정겨움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문학을 통하여 만나는 우리 농촌이 많은 국민들에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마음의 안식처로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농교류 정예인력 육성기관으로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개원 격려사 | 2006. 2. 22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계시는 기업체와 단체대표 여러분!,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특별히 참석하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배위원장님!,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병규 문화일보 사장님과 김재옥 소비자시민의 모임 회장님!, 김숙희 한국식품영양재단 이사장님, 서정의 한농연 회장님과 문경식 전농 의장님!, 엄성호 농단협 회장님을 비롯한 농림단체 대표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

지난 19일은 대동강 물도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우수였습니다. 이와 같이 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1사1촌 자매결연과 관련된 마을지도자와 기업,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농촌사랑운동 지도자연수원」의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과 한-칠레 FTA에 이어 DDA 협상이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FTA협상도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속에서도 지난 2003년에 도농교류를 통한 도시와 농촌간 상생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한 1사1촌 운동이 8,600여건의 자매결연을 맺고 도시와 농촌간의 활발한 교류를 해 온 것은 크다란 성과라 생각하며, 이 운

등을 주도해 오신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사1촌운동은 농업인과 도시민들로부터 그 값어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가 서로 상생하면서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는 범국민운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1사1촌 운동은 전국민들에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점화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개원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정말로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사랑 지도자연수원의 교육은 인원수에 연연하지 말고 도농교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사1촌 자매결연도 외형적인 확대보다는 다양한 교류모델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더욱 더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발전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4년에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촌의 복지, 교육, 지역개발을 위해 5년간 20조 3천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농산어촌체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2005년말 현재 전국에 총270여개 농산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지원하여 다양한 농산어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마을 홍보 등 업무를 전담할 마을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농촌에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농촌 복합생활공간 시범마을 4개 지구를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으며, 또 도시민을 농촌에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전원주거단지 조성 및 입주민의 지역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도시민에게 직접 홍보, 판매하는 콘테스트를 금년 10월중에 개최할 것입



니다. 특히, 모든 사업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므로 농림부는 지역리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 중장기인력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이와 같이 도농상생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성과를 하나씩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은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이 개방화·지식정보화시대를 개척해 갈 도농교류의 정예인력을 육성하는 최고의 도농교류 전문교육기관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애써주신 농협중앙회 여러분들과 이상영 연수원장님을 비롯한 농협대학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농상생이 농촌의 미래를 여는 희망

지역재단 창립2주년 기념식 | 2006. 4. 13

존경하는 정영일 지역재단 이사장님 !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특별히 참석하신 유홍준 문화재청장님과 지역재단 고문, 자문위원과 이사,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재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토론회, 전국지역 리더대회 개최, 리더십 육성과 리더교육 운영,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등을 통해 인력육성과 농촌지역개발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재단의 창립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농상생과 문화에 대해 기념강의를 해 주실 유홍준 문화재청장님, 주제발표를 하시는 정원각 한국생협연구소 사무국장님과 유정규 지역재단 사무국장님, 토론회를 주재하실 서종혁 박사님께서도 오늘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의 농업·농촌은 안팎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장개방으로 상징되는 세계 무역기구(WTO) 체제의 정착과 한·칠레 FTA로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시장개방 확대의 파고는 더 거셀 전망입니다. DDA 협상이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FTA협상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협상의 결

과로 금년 4월부터 수입쌀이 공매를 거쳐 소비자에게 일부 시판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4년에 □ 농업·농촌종합대책□ 을 수립하여 새로운 환경에 걸 맞는 농정체제를 구축하였고,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을 제정하여 농촌의 복지, 교육, 지역 개발을 위한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간 20조 3천억원을 마련하여 농어촌에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농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서 건강·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농어업 재해지원을 강화 하는 등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농림어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합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수고교 88개교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 양육비를 매달 최고 17만 5천원수준으로 지원하는 한편, 고교생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대학교 등록금은 무이자로 전액 용자 지원합니다.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해서 읍·면에 주민편의 시설 및 행정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농산어촌마을 651개 권역을 농촌다움과 인구, 소득 유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개발을 추진합니다.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 고유의 향토자원 소득화, 농산어촌체험관광 확대, 농어촌 경관보전과 이를 연계하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서 농의 소득원이 다양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적절한 복지·의료·교육서비스를 받기 힘든 농어촌에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해 도시민 유치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와 정주 지원 강화를 위해 전원마을 등 정주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포털사이트를 구축을 통한 농지·농가주택·귀농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

만으로 부족하여 지역재단과 같은 민간조직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 지난 2003년 농협, 전경련 등 민간주도로 시작한 1사1촌 운동이 8천 6백여건의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과 도시가 서로 상생하면서 농촌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역 활성화와 도농상생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한다면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오늘 창립 2주년 기념행사의 토론회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간, 도시민과 농촌주민간 상생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고견이 제시되고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지역재단 창립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토론회를 준비하신 박진도 상임이사님과 지역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산물 식품산업은 블루오션

식품외식경제신문 창간 축사 | 2006. 4. 25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 식품외식경제신문□ 의 창간 10주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식품산업과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식품산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품제조업은 국가 전체 제조업 GDP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외식산업은 매출액 45조원, 종사자 약 150만 명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식품산업을 국민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분야로 생각합니다.

지난 1994년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의 제정을 통해 전통식품이 산업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농산물 생산에서 식품 제조·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경제체제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식품산업을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거의 전통식품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 농업과 식품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건전한 식품산업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 부처간의 합리적인 정책조정을 통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식품안전 정책 뿐 만 아니라 식품산업 육성 분야의 정책도 강화할 것입니다. 내수 중심의 식품시장을 세계화하는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산업을 농업과 국가의 새로운 부를 만들어 내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식품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10년 동안 한길을 달려온 □ 식품외식경제신문□ 이 더욱 더 도약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꽃 산업 발전과 우리꽃은 내일의 희망과 꿈

고양 세계 꽃 박람회 개막식 축사 | 2006. 4. 28

존경하는 전국의 화훼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꽃들이 새희망으로 만개 하는 오늘, 매력 있는 꽃의 도시 고양시에서 □ 2006 고양 세계 꽃박람회□ 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멀리 해외에서 오늘 이 박람회에 참석해 주신 꽃 관련업체 관계자와 바이어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 2006 고양 세계 꽃박람회□ 의 성대한 개막과 축제의 장을 만들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강현석 고양시장님, 그리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꽃은 인류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움과 멋을 선사 할뿐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지켜주는 값진 신의 선물입니다. 오늘로써 4회째를 맞이한 □ 2006고양세계꽃박람회□ 는 그동안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여유와 추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시민과 꽃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 깊은 곳 기억속에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갖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꽃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 97년부터 성공적으로 개최해온 세 차례의 세계

꽃 박람회를 통해 우리 꽃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꽃산업의 중심국으로 도약시키는 쾌거를 이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신이 주신 선물중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꽃의 축제인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가장 잘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이제 이 매력적인 도시 고양에서 열리는 「2006고양세계꽃박람회」는 경기도나 고양시의 지역축제가 아닌 명실상부한 꽃무역 전문박람회로 성장했습니다.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박람회로 우리나라의 꽃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화훼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식, 정보화와 문화가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시대 속에서 가장 전통적인 산업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제 우리 꽃산업도 첨단지식과 선진화된 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농산물 수출 21억불을 달성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코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꽃산업은 시설현대화와 기술개발 노력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하여 지난해 수출금액은 5,230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꽃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생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안정적인 꽃의 내수 기반을 갖추기 위해 꽃 소비 확대와 수출 확대에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화훼인 여러분께서도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개선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품목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데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꽃은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과 꿈을 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꽃과 하나되는 세상」의 주제로 펼쳐지는 □ 2006고양세계꽃박람회□ 는 우리에게 희망찬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뜻깊은 행사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꽃산업 발전과 우리 꽃의 수출 확대를 이루는 꽃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며 국내·외에서 참가하여 주신 업체에도 큰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 드리며, 이 행사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업의 선구자

가톨릭농민운동연맹총회 및 세미나 | 2006. 4. 28

한국농업의 선구자

가톨릭농민운동연맹총회 및 세미나 | 2006. 4. 28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오늘 가톨릭농민회 국제연맹 제12차 총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시느라 수고하신 가톨릭농민회 국제연맹 Loyara Irene(노야라 이레네)회장님! Herman Daisy(허만 데이시)사무총장님 ! 그리고 한국가톨릭농민회 정재돈회장님과 농민회원 여러분 !

세계 67개국가의 농민단체로 구성된 가톨릭농민회 국제연맹 제12차 총회와 세미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 아프리카와 중남미, 유럽, 아시아에서 오신 여러 나라의 농민대표 여러분 !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위하여 함께 해주신 주한교황대사 Emil Paul Tscherring(에밀 폴 체릭) 대주교님과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최기산주교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많은 농민단체장님과 시민사회단체장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가톨릭농민회 정재돈회장님과 농민회원 여러분 !

한국가톨릭농민회가 1966년 창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농민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의 지평을 열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이제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창립4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활동경험을 토대로 조직적인 국제연대운동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그 선두에 나서게 됨을 또한 기쁘게 생각하며 매우 의미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세계화 물결 속에 국제사회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농민대표 여러분께서 3박4일 간 우리나라의 농촌현장체험을 통하여 보고 들으신 것 처럼 대한민국의 농업, 농촌 또한 개방과 경쟁 속에서 매우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또한 더 큰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톨릭농민회국제연맹 총회와 세미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생명, 환경, 농업의 위기에 대한 다각적인 성찰과 함께 WTO/DDA협상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 인간적인 발전을 위한 민주주의와 주권, 굿거버넌스□ 에 볼 수 있듯이 산업화과정에서나 개발과 발전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권과 민주주의, 인류의 공동선 증진을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지향해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특히 각국의 정부와 NGO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토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오늘의 우리 농업과 농촌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방의 물결은 거세지고, 농촌사회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뿌리째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이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고, 개방에 맞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수준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 맞춤형



농정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책들도 올해 중에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농촌의 활력도 되살리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연계해서 농촌공간을 다양하게 가꾸고, 농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도시민과 은퇴한 분들이 돌아와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농촌의 생활여건과 교육, 의료 등 복지수준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집니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고,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미 많은 농업경영인들이 혁신적인 사고와 남다른 노력으로 하나하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1사 1촌□ 운동과 같은 농촌사랑운동도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

이번 총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있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긴 일정 동안 지구촌 여러 곳에서 오신 농민대표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시고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맛있는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국제가톨릭농민운동연맹 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총회와 세미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쌀 산업의 활로를 위하여

쌀산업 정책방향 세미나 축사 | 2006. 5. 16

존경하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쌀산업 관련 유관단체 및 농업인 여러분!


쌀협상 결과 이행과 DDA협상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쌀산업이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 쌀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홍문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연장 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10년은 관세화를 대비하여 우리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쌀협상 결과 이행과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이후 시장개방폭이 확대 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양정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가격 지지정책을 소득 지지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브랜드 활성화, RPC경영개선,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수입쌀 관리대책 추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홍문표의원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오늘의 이 세미나가 우리 쌀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소중한 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쌀 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세미나가 우리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문표 의원님과 관계
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균형 발전은 지구촌의 과제

2006 IFAP 서울총회 축사 | 2006. 5. 17

존경하는 잭 윌킨슨(Jack Wilkinson) 세계농업인연맹(IFAP) 회장님 !
레나트 바게(Rennart Bage) UN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님 !
세계 각국에서 오신 농업인단체 대표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귀빈 여러분 !

올해로 60돌이 되는 세계농업인연맹의 서울총회(37차)를 맞아, 주최국의 농림부 장관으로서 각국 농업인단체 대표자 여러분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농업인연맹은 83개국 농업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인 단체로서, 지구촌 농업의 균형적 발전과 농업인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데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세계 농업인 대표자 여러분 !

농업은 인류의 풍요로운 발전의 근간으로서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생명 산업입니다. 식량생산이라는 기본적 역할 이외에도, 지역문화와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산업이 바로 농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은 다양한 지역 문화의 뿌리이며, 인류의 영원한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각국 농업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농업과 농촌을 통해 지구환경을 지키고,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유지 발전시키는 핵심 산업인 농업의 주역들입니다. 오늘날 지구촌 농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WTO 체제는 각국의 농업인에게 큰 과제를 주고 있

습니다. 올해 중에 DDA 농업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각국 농업의 국제 시장개방은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의 집약적 생산체제는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해 왔으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자연재해의 증가, 토양 침식, 수자원 고갈, 유전자원의 다양성의 감소 등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각국의 농업인들은 혹독한 시장경쟁 체제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경쟁에서 뒤진 농업인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소규모 가족농 및 개도국 농업인의 역할과 가치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많은 농업전문가들은 WTO/DDA 등 세계 농업협상에서 무역자유화만을 강조하고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농업인단체 대표자 여러분!

각국의 농업은 자국의 식량안보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국내 식량생산기반을 유지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국과 수출국의 이해관계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국의 고유한 농업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농업인들의 가치 있는 생산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전 인류와 함께 공동번영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업계에 불어 닥치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무작정 거스를 수만은 없습니다. 변화는 자기 혁신을 요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마을을 도시민들에게 휴양과 주거의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 및 농촌의 가치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가 도시지역의 각종 사회조직 및 단체와 농촌마을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지원하는 등 농촌사랑 범국민운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농업인단체 대표자 여러분!

정부일방의 노력만으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NGO회원 여러분께서 농업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협력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민단체를 위시한 다양한 NGO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서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경을 초월하여 각국의 NGO간 횡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국제적인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농민단체 대표자 여러분들이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튼튼한 연대를 구축하여 세계 농업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계농업인연맹을 통해 각국 농업인 단체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구조적 격차를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세계 농업인 여러분!

농업은 농업인만이 아닌 인류 공동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전 지구촌의 과제입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담은 □ 세계 농업인 현장□ 을 제정하여 선포할 예정이라고 하니 매우 뜻 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제37차 세계농업인연맹 서울총회가 세계 농업인들 간에 폭넓은 협력 증진과 세계 농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총회개최를 축하하며 세계농업인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농업인 지도자 여러분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유익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정부의 가교

농경과 원예 창간 20주년 축하 | 2006. 5. 23

□ 농경과 원예□ 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농업과 함께, 농민과 발맞추어 걸어온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 농경과 원예□ 는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새로운 영농지식을 농업인에게 전해주어 농업인의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농업은 수입개방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다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보다는 □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 □ 농업에 희망이 있다□ 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부족할 뿐입니다.

농업정책과 법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농업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 하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 반성하고 개선하면 우리 농업과 농촌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 언론, 특히 농업전문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농업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때에는 날카롭게 비판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장을 발굴해 성공모델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양한 정보와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농업전문지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 농경과 원예□ 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 농경과 원예□ 가 보여준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 농경과 원예□ 의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식품산업도 국제 경쟁력 갖춰야

한국식품과학회 축사 | 2006. 6. 15

존경하는 한국식품과학회 김성곤 회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정숙 청장님 그리고 국내외 내빈 여러분 !

그동안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한국식품과학회의 제72차 학술대회 겸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축하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식품과학회는 지난 1978년 설립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식품과학 전반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을 질적, 양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식품과학회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미쯔비시 산업동향연구소가 밝힌 바와 같이 21세기 신 성장산업으로 전망되는 미래 유망산업입니다

또한, 식품산업은 국가의 식량안보에 직결되는 산업으로서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림부는 지속적인 농업의 성장을 위해 식품산업을 농업의 성장동력 과제로 채택하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가 투자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식품제조,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 하는 식품산업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의 식품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식품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6월말까지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될 식품산업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산업육성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농림부가 중점 추진한 전통식품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규격화, 통계정비, 수출과 외식산업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식품과학회 회원 여러분 !

오늘날과 같은 개방화시대에서는 식품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업계와 학계가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종합적인 육성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품업계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국식품과학회 회원 여러분 !

식품산업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조·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복잡한 유통과정과 거치는 종합 산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업계, 농업과 식품 제조업, 외식업이 긴밀하게 협력할 때 농업과 식품산업은 동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식품업계, 농업과 식품제조업, 외식업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필요하며, 학계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성곤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식품과학회가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결하는 훌륭한 연결고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식품과학회가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학회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이번 학술대회와 국제심포지움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식품과학회 김성곤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간 이루어지는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농협

2006 농협창립기념식 | 2006. 6. 30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대의원 조합장 여러분과 농협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
오을 위원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로 농협·축협·인삼협 중앙회가 통합된 지 여섯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
업협동조합이 창립된 지 어느덧 4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뜻 깊은 날 여러분
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과 농
촌의 발전과 농업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국
일선의 농업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과 중앙회 임직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특히, 오늘 훈포장과 표창을 받으신 우수 영농인 및 농협임직원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정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도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DDA 협상,
FTA 추진 등 개방에 대비하여 □ 선대책 후개방□ 이라는 원칙에 따라 종합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 확대에 인한 우
리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질적 농가소득 지원과
경영안정장치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
다. 정부는 여러분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애쓰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농가실정에 맞는 맞춤형 농업정책으로 전업농, 중소농, 영세·고령농가 등 농가유형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경영특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농정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농협이 차지하는 역할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농협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우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역량 강화 및 농촌의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통합 이후, 중앙회는 매년 사상 최대의 흑자경영을 달성하여,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전액을 조합지원자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자본 증대, 불건전 여신 비율 감축 등으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신인도를 획득하는 등 금융부문은 그 위상을 대내외로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 및 소이사제 도입 등으로 신경영기반이 구축된 지도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농협의 임직원들과 전 조합원들의 흔들리지 않는 노력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제37차 세계농업인연맹 서울총회도 여러분들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선의 조합도, 적자조합이 대폭 감소되었고, 합병으로 인하여 경영도 규모화 되어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등 내실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협은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복지 및 실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농협 스스로도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협의 안정적인 성장은 전 조합원과 국민 모두의 애정과 성원, 정부와 농협의 동반자적 협력,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임직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협 임직원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고치고 다듬어야 할 부문이 많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인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으며, 국민들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협이 현재의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힘 또는 고객의 압력에 끌려 다니기 보다는 스스로 혁신하여 여러분이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농협 스스로가 피부에 와 닿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시길 기대하며,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새농촌·새농협 운동□ 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함께 우리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산지·소비지 농산물 유통망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농협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고, 소비자에게는 농협이 유통시키는 우리농산물은 안전하고 신선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농협중심의 광역 브랜드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큰 브랜드에 대항하기 위하여 농협 책임하에 브랜드 유통을 키워야 합니다.

농산물 유통 판매사업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며, 이는 지금 논의중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의 기본방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농협은 농정의 보조자가 아닌 핵심 파트너로서 농협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협동조합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우리 농업·농촌의 현안문제를 가슴으로 고민할 때 반드시 문제는 풀릴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인, 국민, 정부와 힘을 합쳐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 가는데 농협의 주체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국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농협 임직원 여러분!



농업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이해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도 협동조합이 농정의 핵심주체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농협 창립 45주년, 통합농협 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거듭 축하하면서, 농업인은 물론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협동조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지구환경과 기술개발

국제원예학대회 축사 | 2006. 8. 13

존경하는 국·내외 원예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 제27회 국제원예학대회□ 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그리고 그 중심인 COEX에서 세계 각국의 원예학 석학들을 모시고 개최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 대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주신 세계 원예학 석학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멀리 해외에서 이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원예학 분야 연구자 및 관련 종사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에 근대농업이 도입된 지 10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06년에, 당시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께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과학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과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를 설립하셨습니다. 이 두 기관은 현재 대한민국 농업기술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전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근대 농업과학은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예 산업은 다양한 소비계층이 원하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원예 농산물을 사시사철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양적,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한국원예학회 회원분들을 비롯하여 생산에 종사하는 농



업인들이 산업발전의 주역들이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농업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입증가, 생산비 증가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원예인들의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한국근대농업 도입 100주년인 올해, 세계의 석학들을 모시고 앞으로의 원예학 문과 산업에 대하여 토론을 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고, 한편으로는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제27회 국제원예학대회」의 슬로건은 □ 지구촌 원예 : 다양성과 조화□ 입니다.

이 대회가 슬로건과 같이 다양한 원예작물에 대한 활용 기술개발과 함께, 후손에게 물려줄 건강한 지구환경의 보존 기술개발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예산업뿐만 아니라 세계의 원예산업이 진일보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나라 원예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신 『제27회 국제원예학대회』 이정명 조직위원회 위원장, 박권우 한국원예학회 회장, 노만 루니(Dr. Norman E. LOONEY) 국제원예학회 회장 및 임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이 행사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쌀을 세계 최고의 고품질 쌀로

한국 쌀전업농 전국 회원 대회 격려사 | 2006. 8. 1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엄성호 회장님을 비롯한 1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원 및 가족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 신국환 의원님,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님, 황민영 농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님, 강신호 전경련회장님,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님, 김병곤 전라북도의회회장님, 홍낙표 무주군수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 하늘, 땅, 생명쌀, 함께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제1회 한국 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현장의 농업인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는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제1회 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는 쌀전업농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함께 기업과 쌀 전업농들이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상호 약속을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은 반만년 역사동안 우리 민족과 동고동락을 함께한 생명산업입니다. 현재도 전체 농가의 70% 이상이 쌀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품목이며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할 주식입니다.

존경하는 쌀 전업농 회원 및 가족 여러분 !

지금까지 8만여 쌀 전업농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우리 쌀은 최고의 고품질 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쌀은 수입쌀과 비교해 품질은 우수하지만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쌀 산업의 주체인 전업농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어느 수입쌀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고품질 쌀 생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지금까지 우리의 쌀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노력을 돕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쌀 전업농 8만호를 선정 육성하였고, 영농규모화사업으로 3조 5천억 원을 지원해 9만8천ha의 농지를 규모화·집단지화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쌀 전업농의 숙원이었던 농지매매자금 금리도 2%로 1%인하 하였습니다.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2013년까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를 쌀 전업농이 담당하고 호당 경영규모도 6ha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 그리고 전업농 여러분 !

이제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FTA, DDA협상은 비록 늦춰질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식품의 선택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시 하고 있으며 고품질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된 생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시대의 낙오자가 되고 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부터 펼쳐지는 제1회 쌀전업농 전국 회원대회가 21세기 한국 쌀 농업의 주역인 쌀전업농 여러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 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쌀을 세계 최고의 고품질 쌀로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경련을 비롯한 각계 소비자 대표 분들께서도 우리 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주시고 소비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약과 축제의 장이 되길

한국농업근현대화 100년 기념식 | 2006. 8. 30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표, 농업관련 산업계대표, 농과계 대학장님과 교장선생님, 농림공직자를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와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농업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영예로운 훈포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신 농촌진흥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

저는 오늘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을 맞이하여 농업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 곳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100년간 한국농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농업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농업과 농촌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그동안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해방이후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극심한 식량부족문제를 1970년대에 녹색혁명으로 주곡자급을 달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진 1980년대 백색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식탁을 풍성하게 했고, 이러한 농업부문의 성과가 우리나라 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확대 추세속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규모화 된 기계화 영농을 실현하고, 생산기반을
완비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학계, 연구기관, 농림공직자
여러분이 합심하여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적
인 노력에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좁
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인 간에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잦은
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과 농촌사회의 고령화, 피할 수 없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추세는 앞으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
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해답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답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
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창의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인 지원, 농업관련 연구기관, 학계가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충
분히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림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농업과 농촌에는 희
망이 있습니다. 농업으로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도 많이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만 해도 연간 1억원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2003년 25농가에서 2005년
에는 112농가로 2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미개척분야가 많은 블루오션입니다. 미래의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이어야 합니다.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이어야 합니다. 농
업의 체질강화와 경영안정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고,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도전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잡아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정 추진체계를 농가 유형별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달리하는 맞춤형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개방화 시대에도 우리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파워 브랜드를 집중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에 못지않게 브랜드만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브랜드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방시대 농정의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와 고령화 진전으로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촌에 도시민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경관을 가꾸고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불편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 농식품의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세계를 무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한국농업과 농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며,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며, 얼마나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고민하느냐에 따라 이대로 주저 앉느냐 아니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농업인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바로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을 이끌어갈 주인입니다. 우리 모두 앞장서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세계일류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며,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앞으로 5일 동안 계속될 기념행사를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도약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인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농업과 함께하는 희망의 내일

농촌 희망 장학증서 수여식 | 2006. 8. 31

전국 각지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농촌희망장학생 여러분! 대학 관계자 여러분!, 김숙희 농촌희망재단 이사장님과 이사 여러분!, 이우재 한국마사회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300여개 대학에서 선발된 2,892명의 농촌희망장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졸업 후 우리 농어업에 종사할 큰 포부를 가진 892명의 영농희망장학생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농어업인의 자녀로서 전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신 2,000명의 장학생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농어촌의 희망을 가꾸어주실 장학생 여러분! 그리고 대학 관계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장학생 여러분의 의욕에 찬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들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우수한 젊은 인재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우리 농어업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개방화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우리 농업분야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여러분들과 같은 경쟁력 있는 젊은 인재의 활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학생 여러분! 그리고 대학 관계자 여러분!

과거 우리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이미지는,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주름진 얼굴

에 힘들게 일하는 모습의 시골 농부였습니다.

이제 농업인은 농산업분야의 전문 경영인이 아니면 세계 경쟁속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은 농업을 사랑하고 농촌에 뿌리를 둔 장학생 여러분들이 열정을 바쳐 도전해볼 만한 이 시대의 첨단 생명산업이자 자연산업인 것입니다. 생명을 가꾸고 자연을 유지시키는 산업이기에 농업은 가장 오래된 산업이자 가장 오래 지속될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농업은 □ 가장 오래된 미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선진강국 어느 나라도 농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유럽의 여러 나라와 자연환경이 척박한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일본을 보아도 산업으로서의 농업과 지역사회의 구심체로서의 농촌이 국가를 지켜가는 버팀목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에 포부를 갖고 있는 장학생 여러분! 그리고 농촌에서 자라 누구보다 농업인과 농촌을 사랑하는 여러분!

정부는 DDA/FTA협상과 같은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체질 강화와 경영 안정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고,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농업인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앞으로 장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농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우리 농촌의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정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의 한국농업과 농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며,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며, 얼마나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고민하느냐에

따라, 이대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젊은 여러분들의 희망찬 모습을 보면서 우리 농업
과 농촌의 밝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농촌희망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
생여러분과 미래 영농포부를 밝히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오늘의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신 농촌희망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한한 발전과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

2006 축산물 브랜드전람회 및 경진대회 치사 | 2006. 9. 7

존경하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위원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광모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님, 축산
관련단체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지도자 여러분들과 더불어
2006년도 축산물브랜드전람회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
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농협중앙회 송석우 축산경제
대표님,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남호경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치하와 격려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006년 축산물브랜드전람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한우부문
「대관령한우」와 돼지부문 「하이포크」를 비롯한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를 치하드리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농업인과 소비자 여러분!

우리 농업은 최근 커다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식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
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협상 등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도전과 변화속에서 우리농업의 장래는 우리 농산물이 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
의 신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림부의 정책목표는 □ 농식품 세계일류□ 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농



식품을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농축산물을 만든다해도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그 농축산물은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세계일류의 농축산물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일류의 소비자가 계셔야 하고, 세계일류의 농축산물을 만드는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 농식품이 세계일류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농업인과 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축산인들은 개방화의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을 성장산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그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단계부터 선진화된 위생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축산인은 하나로 힘을 모아 가축의 악성질병 발생이나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농가 피해가 많은 소부루세라병, 돼지소모성질병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축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농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기 위해 맛있고 안전한 우수 축산물을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축산물 브랜드가 세계일류 농식품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 농업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의지 있는 농업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부가가치를 찾아 실행에 옮기는 농업인이야말로 미래 농업농촌의 성장동력입니다. 정부는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집중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열리는 이 행사가 우리 축산인들이 땀 흘려 가꾼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농



업인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
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시대, 우수 인재가 경쟁력

농학교육 100주년 축사 | 2006. 9. 9

존경하는 이장무 총장님과 이진제 학장님, 윤근환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동문과 가족 여러분!

뜻 깊은 농학교육 10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농학교육 100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그 역사의 중심을 지켜 온 서울대학의 동문과 가족, 농학분야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하신 서울대 농생대 동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06년 농상공학교로 출발하여 한국 농업 근·현대화의 하나의 큰 축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시장개방의 물결 속에서 숨가쁜 변화를 거듭하였습니다.

70년대 근대적 산업구조가 정착될 때까지는 농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대외적 시장개방이 가속화된 80·90년대에는 농업도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업은 16만명 정예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시설현대화, 기계화, 규모화 등의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농업과 농촌의 현장에서, 그리고 농업인 곁에서 학계와 연구·지도기관 등을 이끌어 오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또 다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해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한국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농업인간 심화되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 문제와 농업·농촌의 기반을 위협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자리가 지난 100년을 되돌아 보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농학교육의 비전을 설계하고 우리의 역량을 모으는 자리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앞으로 농학교육은 변화된 농업 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농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유통·가공전문인력을 양성해 내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더욱 주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대 농생대 동문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DDA/FTA협상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극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농업인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의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의 비전 아래 농업의 체질 강화와 농가경영안정,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정책지원체계를 농가의 경영수준과 경영주 연령 등에 맞게 달리하는 맞춤형 농정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화 시대에도 외국 농산물에 뒤지지 않는 파워브랜드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브랜드경영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파워브랜드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진전으로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의 경관을 가꾸고 도시에 살던 사람들도 불편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의료, 복지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경쟁력인 만큼, 지식과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력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에게는 배워서 돈이 되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농고·농대생 등 우수한 젊은 인력에게는 현장중심의 농업교육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서울대 농생대 동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생산자단체·정책담당자와 연구기관, 학계가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며, 얼마나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고민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한국 농업과 농촌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농학교육 100년을 이끌어오신 동문 여러분과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1세기에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축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한우협회 창립 및 한우인의 날 축하 | 2006. 9. 14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남 호경 회장님을 비롯한 한우협회 회원과 임직원 여러분! 원유철 경기도 정무 부지사님, 조병돈 이천시장님, 송석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쌀과 도자기의 고장 이천에서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우협회 창립 7주년과 여섯 번째 한우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한우협회는 1999년 설립된 이후 한우사육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구심점이 되어 생산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축산인 여러분!

우리나라 축산업은 1990년대 이후 수입개방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해 축산업 생산액은 11조 8천억원, 그 중 한우분야 생산액은 3조 1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은 다른 어느 농업분야 보다도 규모화·전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우수 브랜드가 출현하여 소비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산자 스스로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자조금제도도 축산인 여러분들이 가장 앞서서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국의 축산인과 축산 지도자 여러분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인 여러분 !

우리 한우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 FTA 협상 추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9월 11일부터 수입을 재개하였으나,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품질고급화와 안전성 문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한우고기는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일정부분 갖추었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정부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농업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와 폭으로 시장을 개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과정에서 품목별 민감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브루셀라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평창지역에 들러 브루셀라 방역활동과 살처분 매몰지 실태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농업인 스스로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브루셀라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인 여러분 ! 그리고 내빈 여러분 !

참여정부가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 농가 소득안정, 농산물 유통개선,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등 주요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경종농업과 축산업간에 자연순환형 농업체계가 확산되도록 하고 조사료 생산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육단계부터 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선진화된 안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과정도 더욱 투명화 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여 우리 축산물을 차별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인 여러분 ! 그리고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 !

축산인과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언론, 정부 등 각 분야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성장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전국 한우협회 창립 7주년과 여섯 번째 한우인의 날을 축하드리면서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우리 축산업과 한우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주역

한여농 창립 10주년 기념대회 격려사 | 2006. 9. 25

한여농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한여농전국대회에서 회원여러분께 농림부장관으로서 인사를 드린 기억이 아직 새록데, 오늘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여농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념식 행사를 준비하신 허기옥 한여농 중앙회장님과 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민영 농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한여농이 있기까지 10년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역대회장님과 임원님들께 특별히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여농 가족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시장개방의 확대 추세 속에서 외국의 농산물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비상한 관심속에 한·미FTA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엄청난 폭우로 우리 농업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일주전에 닥친 태풍 산산으로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도,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시장에서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으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 스스로 자신감을 갖

고 농업인단체와 정부가 서로 신뢰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투융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보완·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대책을 금년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체계를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개방에 적응할 수 있는 전업농에 대해서는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하고, 적응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촌형특별소득보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파워브랜드를 품목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외국 농산물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고품질과 안전성으로 승부하는 브랜드경영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농업생산공간에서 우리 모두의 휴양공간이자 정주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통해 농촌을 정주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한·미 FTA협상도 최대한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각계 전문가와 농업인의 참여하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의 여성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한여농 가족 여러분!

저는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우리 여성농업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바로 여성농업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여성도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공·유통, 농촌관광 등으로 농업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섬세함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수, 원예, 축산, 특작 등 작목에서는 경영규모와 질을 결정하는데 여성농업인의 역량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4월 남녀농업인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농업발전을 함께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여농 가족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풍상을 이겨낸 나무에서 더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법입니다. 농업인 스스로 굳은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경영을 혁신해 나갈 때, 우리 농업도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농촌을 우리 여성농업인의 힘으로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바꿔나갑시다.

다시 한번 한여농의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전국에 계신 여성농업인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과학기술의 미래상

2006 농림과학기술대전 개막식 차사 | 2006. 9. 27

존경하는 전국의 농림과학기술인 여러분!, 바쁘신 국회 일정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권오을 위원장님과 조일현 의원님 !


그리고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대표, 농산업계 대표, 농과계 대학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와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 2006농림과학기술대전□ 개막식과 □ 제9회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 □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수한 신기술 개발과 산업화로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에 기여하여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 받으신 수상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록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대학, 연구소, 산업체와 농업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농림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농림과학기술인 여러분 !

오늘 이 자리에 전시된 신기술과 신제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연구실과 현장에서 쏟은 땀과 열정의 산물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는 농업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기술과 창의를 바탕으로 세계 어느나라와도 경쟁할 수 있는 기술농업으로 체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금년 8월에 농림부에 종자, 생명산업, 기술개발



업무를 관장하는 「농생명산업정책과」를 설치했습니다. 「농생명산업정책과」가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은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기관, 학계, 농산업체가 합심해서 도와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개막하는 □ 2006농림과학기술대전□ 이 농림분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농업의 미래를 과학기술로 열어 나가기 위한 다짐의 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

지난 6월 농림부는 □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이라는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식품을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고품질로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을 풍요롭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농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의 농업과 농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생각한 바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농업, 활력있는 농촌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미래 농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은 과학기술농업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가슴마다 미래의 우리농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하나씩 갈무리 합시다. 그리고 5년후, 10년후 그 꿈과 희망이 신기술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해 나갑시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등 기반 조성에 지금보다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일동안 계속되는 □ 2006농림과학기술대전□ 을 통해 농업과학기술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약과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
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펴낸 뜻

한국농정신문 창간 축하 | 2006. 10. 2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의 일입니다. 중국의 농서를 교과서 삼아 농사를 짓는데 실수가 반복됐습니다. 절기를 잘못 적용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신으로 천문학과 역산 등 자연과학에도 능통했던 정초(鄭招 : ?~1434)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시 조선에는 원나라에서 고려시대에 □ 수입한 농서□ 인 □ 농상집요(農桑輯要)□ 가 유일한 농업 교과서였습니다. 조선의 농사는 대부분 여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헛수고는 이어졌습니다. 농사는 □ 중국산 교과서□ 대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혼란은 커져만 갔습니다. 정초는 결국 이유를 찾았습니다. 원나라 정부에서 편찬한 □ 농상집요□ 가 조선의 기후와 토양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화북 지방에 맞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정초는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조선의 땅과 기후에 적합한 농서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농사직설(農事直說) 서문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주상께서 오방의 풍토가 다르고, 고서의 내용과 맞지 않음을 아시고, 각 도 감사에게 명하사 고을 늙은 농부의 경험한 바를 적어 올리라.□

정초는 우선 각 고을의 원님을 통해 농사를 잘 짓는 □ 우수 농업인□ 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에 관한 경험적 지식과 비결을 모았습니다.

함길도부터 전라도 끝까지 조선팔도 전역을 돌며 직접 현장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찾고, 모은 것입니다.

결국 오랜 고민과 노력의 결과로 □ 농사직설□ 을 펴내게 됩니다. 국가경영의 최고 CEO 세종대왕과 그 신하 정초가 농업인의 아픈 심정을 헤아리면서 □ 농업국 조선□ 의 농사 교과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후대로부터 □ 농사직설□ 은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 자주적 농법서□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도 농사직설을 펴낸 당시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어려움이 안팎으로 밀려옵니다. 안에서는 식품 안전성 등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나가야 하고, 밖으로는 거센 개방의 파고를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한 면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과 정초가 백성의 어려움을 헤아리면서 □ 농사직설 펴낸 뜻□ 을 배우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농업계 오피니언 리더의 숙제나 다름없습니다.

□ 농사직설을 펴낸 뜻□ 으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제2창간을 선언한 □ 한국농정신문□ 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미래의 농업은 생각 속에 있다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 축사 | 2006. 10. 12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이중효 재단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15회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을 맞이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산농촌문화재단은 열다섯 성상동안 농업 연구지원사업과 농업인 장학사업 등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년 농업 각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농업인과 단체를 발굴 표창하여 농업인의 사기증진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제15회 대산농촌문화상을 수상하시는 장안농장 류근모님, 서천식물예술원 김재완님,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정연권님,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국내외의 끊임없는 도전들 속에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DDA 협상으로 대표되는 다자간 통상체제와 함께 FTA라고 하는 새로운 양자 무역 체제의 등장으로 세계시장의 개방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먹거리 안전성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 속에서 농산물의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놓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은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우리 농정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농업과 농촌에는 희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영예의 수상자들과 같이 과거 우리가 아무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분야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농업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개척해 나갈 여지가 풍부한 21세기의 블루오션인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의 농업은 미래에도 지속발전이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유형별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달리하는 맞춤형 체계로 농정 추진체계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개방화 시대에도 우리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파워 브랜드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브랜드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방시대 농정의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전으로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촌의 경관을 가꾸고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불편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미래의 한국농업과 농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며,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며, 얼마나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고민하는냐에 따라, 이대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

느냐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농업인과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하신 여러분이 바로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동력입니다. 우리 모두 앞장서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세계일류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며,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기에 대산농촌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주시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분들을 발굴·격려하는데도 전력을 다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산농촌문화상을 수상하시는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끝으로 대산농촌문화재단의 무한한 발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도농상생 지역균형

그린포럼 축사 | 2006. 10. 12

존경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 영언 군수대표님과 포럼에 참여하신 시장, 군수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

오늘 시장, 군수님과 저명한 도농교류 전문가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 그린포럼□ 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고 시장, 군수님이 주도하는 세번째 포럼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도농교류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과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

참여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궁극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도농격차를 줄여 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4~5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6.3%가 은퇴 후에 농촌으로 이주해서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도농교류를 통해서 농촌지역사회의 활력이 되살아난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도농교류와 농촌관광이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촌을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농촌발전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장·군수님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

농촌을 보는 우리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농촌은 소외되



고 불편한 곳으로 인식 되었으나, 지금은 자연이 살아 숨쉬고 문화가 있는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투자는 농촌을 국토의 정주·휴양 공간으로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사람이 모이게 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촌마을의 소득기반확충, 생활환경과 경관 정비,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96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농촌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55개지구의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정비하기 위해 농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신활력지원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이 농림부로 일원화 됩니다. 일원화된 사업들은 내년부터 기존 농업·농촌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90여개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 사무장제도 운영, 보험가입마을 확대, 1인1촌 전문가 컨설팅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농촌마을간 교류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시작한 1사1촌 운동은 이제 1만2천 여건이 결연되어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사1촌 운동의 단계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도농교류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외국인 이민여성 등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책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

오늘 열리는 포럼이 생생한 체험에서 우리나라 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농촌관광과 농촌지역사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린포럼이 도농교류와 농촌관광에 관한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성화 될 때, 우리 농업·농촌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발표를 맡으신 나소열 서천군수님, 이태근 고령군수님, 하영제 남해군수님,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성진근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잠산업의 미래

세계누에산물전 축하 | 2006. 10. 14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부장관입니다.

풍성한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개최되는 □ 세계누에산물전□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농업의 안과 밖에서 밀어 닥치는 개방과 변화에 맞서 우리나라의 양잠산업을 든든하게 지켜나가고 계신 양잠농업인, 잠사산업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기능성 양잠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아시아-태평양 잠사곤충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학술적으로 세계 바이오 양잠산업의 선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양잠산물을 한 곳에 전시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양잠산업의 미래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양잠산업은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영욕의 시기를 겪어 왔습니다. 민족의 전통산업으로 장구한 역사를 이어온 양잠산업은 6-70년대에는 수출역군이자 효자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후 거세게 몰아닥친 수입개방과 농업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양잠산업은 더 이상 존립이 어려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양잠산업은 입는 양잠에서 기능성 양잠으로 변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동안 끊임없는 연구와 각고의 노력으로 양잠산업의 새 영역을 일구어 낸 양잠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잠산업이 입는 잠업에서 먹는 잠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것처럼 앞으로는 첨단과학을 접목한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의 농업은 태생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우리 스스로 자신이 없음을 변명하는 부질없는 하소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구와 하고자 하는 열정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결코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양잠산업 관계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강한 의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우리나라 양잠산업의 부흥을 위해 영부인에게서 친히 누에를 치는 친잠례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열정과 의지와 관심으로 양잠산업은 더욱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 세계일류의 기회

식품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축사 | 2006. 10. 16

오늘 세계 식품의 날을 기념하여 □ 식량안보에서 식품안전으로□ 라는 주제로 식품산업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학교 급식 파동 등 일련의 식품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식품의 안전성 확보방안과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FAO한국협회, 세계농정연구원, 농수축산신문사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부는 □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을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과제로 농식품정책, 농업정책, 농촌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정책을 3대 정책과제 중 첫 번째로 선정한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가 중심 시대입니다. 우리 농업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농식품을 생산하더라도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면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일류를 만든다는 자세로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해 나가야 합


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고객중심의 농식품 정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농약, 중금속 등을 조사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시중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낱, 카드뮴 오염이 우려되는 폐광지역 농경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선진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HACCP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 및 사육농장에 적용하는 HACCP 지침과 모델을 개발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8년 전면실시를 목표로 관련 법령 및 추진체계를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들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식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정하고, 식품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발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통계정비, 그리고 식품규격 개발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등의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수한 전통식품과 음식문화를 산업화하고 세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동안 많은 전통식품이 발굴되어 상품화되었고, 김치와 고추장, 비빔밥 등 한국의 고유한 식품은 세계적인 식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치의 세계화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우수한 요리 전문학원인 □ 르 꼬르동 블루□ 와 공동으로 개발한 김치 퓨전요리가 에어 프랑스(Air France)의 기내식으로 메뉴화되었고, 김치퓨전 요리책은 □ 2005년 국제요



리책 경연대회(Book Fair)□ 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통 □ 한식□ 을 우리 고유한 문화를 상징하는 □ 한(韓) 브랜드□ 로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될 예정 입니다. 우리의 농식품이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의 소비자와 세계 일류의 생산자가 있어야 합니다. 세계 일류 소비자와 세계일류 생산자가 힘을 합하면 우리의 농식품은 개방화 시대의 파고를 넘어,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세미나가 농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식품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의 변화와 유통환경의 변화

2006 시중유통 브랜드 쌀 종합평가회 치사 | 2006. 10. 17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광모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소비자단체장님, 생산자단체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쌀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쌀의 성가(聲價)를 한 단계 더 높이는 □ 2006년도 브랜드쌀 평가회□ 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으신 브랜드 경영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축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국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고, 지역대표 브랜드로 추천된 경영체 관계자 여러분의 창의적인 노력과 성과는 우리나라 쌀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회를 준비하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9개 소비자단체의 대표님과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

우리 농업은 심화되는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변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쌀 산업은 지난번 쌀 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받은 10년동안 가격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부터 공공비축제와 소득보전직불제 등 시장지향적인 양정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민간유통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군을 하나의 생산단위로 묶어 광역브랜드를 육성하는 □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 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1,900여개로 난립해 있는 영세한 쌀 브랜드를 통합, 시·군단위 대표 브랜드 10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브랜드는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도 갖추고 농업인 소득도 올리며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브랜드만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파워 브랜드를 품목별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파워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농협, RPC경영체, 지역농업인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규모가 영세하고 재배농업인이 많은 쌀의 경우에는 파워 브랜드 육성이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와 답은 결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답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

지금은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결국 세계 일류의 농산물, 세계 최고의 명품을 만든다는 자세로 농업을 해야 합니다. 한국농업의 미래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농업인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농업인을 집중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나라 농산물이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 소비자와 세계 일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좋은 제도를 시행해도 일류 소비자와 일류 농업인이 없다면 일류 농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세계 일류 소비자와 생산자가 힘을 합하면 우리의 쌀, 우리의 농산물은 개방화 시대의 파고를 넘어,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 평가회가 우리 농업인들이 땀 흘려 가꾼 우수한 브랜드 쌀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식품 홍보의 장

서울국제건강식품박람회 축하 | 2006. 10. 19

존경하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님!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소비자 단체장님과 생산자 단체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

오늘 서울국제건강식품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정의회장님, 한국농어민신문사 서규용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

서울국제건강식품박람회는 지난 2003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올해로 4회째를 맞습니다. 비록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민간주도의 박람회로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학교급식 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 문제로 인해 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품이 과학적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국음식의 우수성은 이제 해외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 곳 사마리탄 병원□ 에서는 한국음식으로 환자식 메뉴를 짠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수한 언론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음식이 적절한 영양균형을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음식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

지난 6월 농림부는 □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과제로 농식품정책, 농업정책, 농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농식품이 세계일류가 될 수 있도록 농식품정책을 제1과제로 한 것입니다. 식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정하고, 식품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발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통계정비, 그리고 식품규격 개발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등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수한 전통식품과 음식문화를 산업화하고 세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동안 많은 전통식품이 상품화되었고, 김치와 고추장, 비빔밥 등 한국의 고유한 식품은 세계적인 식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통 □ 한식□ 을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상징하는 □ 한(韓) 브랜드□ 로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소비자여러분 !

지금은 소비자 중심 시대입니다. 애써 생산한 농식품도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생산자가 세계일류를 만든다는 자세로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농식품이 세계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업인만 세계일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까다롭고도 엄격한 세계 일류의 소비자가 반드시 있어 주셔야 합니다.

세계 일류 소비자와 생산자가 힘을 합하면 우리의 농식품은 개방화 시대의 파고를 넘어,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박람회도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농식품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뜻 깊은 박람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는 지식농업의 시대

제35회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치사 | 2006. 10. 25

사랑하는 영농학생 여러분!, 존경하는 농업고등학교 선생님 여러분!, 제35회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대회에 참석한 영농학생 여러분과 농업고등학교 선생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많은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님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농업의 희망, 청년농업인의 양성에 헌신하고 계신 전국의 농업고등학교 교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국의 농업고등학교 교사를 대표해서 표창을 받으신 다섯 분의 선생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위해 애쓰신 조병인 경북교육감님, 황길상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영농학생회 여러분 ! 멋지고 알찬 대회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

저는 오늘 희망과 책임을 함께 느끼며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담당하게 될 영농학생들의 지혜와 열정, 그리고 미래 농업에 대한 꿈과 비전이 한데 어우러지는 행사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농학생전진대회 35년 역사속에서 86년, 94년, 그리고 2006년, 이처럼 한국농업의 변혁기마다 안동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는 그동안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면서 농업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과 함께 교육과정의 혁신을 추구해 온 선두적인 학교입니다. 따라서 이곳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농업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업교육의 비전을 설계하며 공유하는 소중한 만남과 나눔의 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영농학생 여러분!, 그리고 농업고등학교 선생님 여러분!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입니다.

소규모 가족농 위주의 우리 전통농업은 개방화 시대를 맞아 대규모 영농을 하는 농업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경영규모가 더 이상 경쟁력을 가늠하는 유일한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네덜란드의 농업이 결코 미국의 농업에 뒤지지 않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신지식, 기술, 정보 등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첨단 생명·환경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농업의 변화가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영기법으로 역대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신지식 농업인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힘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농업교육도 이러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농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농업고등학교 선생님과 영농학생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

지금 우리농업과 농촌은 개방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위험요소도 내포하고 있지만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우리 농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농업의 희망과 기회를 영농학생 여러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유능하고 패기있는 영농학생이 있는 한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더 나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영능력의 배양을 위해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식정보사회에 농업의 경쟁력은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과계 대학에서 영농정착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을 원하는 농고생이 영농정착교육과정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에 필요한 첨단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방향으로 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젊은 인재를 적극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영농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 우리 농업의 주역입니다. 21세기 지식농업을 선도하고, 농업·농촌발전을 책임질 지도자가 될 인재들입니다. 우리농업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목표를 향해 고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현장에서 주역으로 활동하거나, 농과계 대학에 진학하거나, 여러분들은 우리농업의 미래이며 희망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정진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국의 농업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약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축사 | 2006. 10. 26

윤요근회장님을 비롯한 농촌지도자 여러분! . 그리고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성한 수확과 결실의 계절 가을이 한참인 이때, 전국의 농촌지도자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제38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를 맞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농업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영예로운 훈포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전국조직으로 출범한 이후 농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농업인의 구심점이 되어 과학영농의 실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농촌지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10만 농촌지도자 여러분 !

우리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농업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 전국농촌지도자대회를 맞아 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해방이후 극심한 식량 부족문제를 1970년대의 녹색혁명으로 해결했습니다. 1980년대 백색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식탁을 풍성하게 했고, 이러한 농업부문의 성과가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추세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규모화된 기계화 영농을 실현하고, 생산기반을 완비하는 등 많은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과 농촌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인 간에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잦은 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과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피할 수 없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추세는 앞으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와 해답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답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농업인 여러분의 창의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농업계가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농업과 농촌에는 분명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끊임없이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의 신호입니다. 우리 농업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도 미개척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의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이어야 하며,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이어야 합니다. 농업의 체질강화와 경영안정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고,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도전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정 추진체계를 농가 유형별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달리하는 맞춤형 체계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개방화 시대에도 우리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파워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브랜드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방화시대 농정의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촌의 경관을 가꾸고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불편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촌지도자 여러분 !

저는 오늘 전국농촌지도자대회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세계를 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한국농업과 농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대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농업인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농촌지도자 여러분이 바로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을 이끌어 나가실 핵심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앞장서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세계일류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며,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사회를 우리 다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거센 파도가 밀어 닥칠 때 이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좋지만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갖는다면 결국은 파도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망과 꿈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제까지 해 오신 것처럼 전국의 농촌지도자 여러분이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38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활기


Love米 국제마라톤대회 축사 | 2006. 10. 29

제11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 Love 米 농촌사랑 국제 마라톤대회 □ 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가 되는 □ Love 米 농촌사랑 국제 마라톤대회□ 는 해를 거듭하면서 알찬 대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농민신문사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벅찬 가슴으로 출발선에 선 마라톤 애호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과 격려를 보냅니다.

마라톤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달리는 길에 만나게 되는 오르막길은 우리에게 성취를 향해 달리게 합니다. 마라톤은 또한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건강을 유지시키고 삶의 활기를 더해 줍니다. 저는 이번 대회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기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여름에는 무더운 날씨와 폭우로 인해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각계의 온정이 이어져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금년 농사도 순조로워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 특히 땀 흘려 수고하신 농업인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안과 밖으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넘어야 할 오르막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희망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밝은 미래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라톤 코스에 오르막길이 없다면 내리막길 또한 없습니다. 삶의 길을 달리다 보면 어려움과 난관의 오르막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모두 새로운 성취를 위해 오르막길을 넘어 앞으로 달려 나갑시다.

출발선에 선 모든 분들에게 완주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문학은 □ 우리정서의 소금□


한국영농신문사 농촌문학상 수상작품집 게재 메시지 | 2006. 11. 2

먼저 농촌문학상을 제정하여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인 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준 □ 한국영농신문□ 에 감사드립니다. 동참해 주신 문인 여러분과 농촌문학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작을 보면서 우리 농촌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함께 해주신 문인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작품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실상과 희망과 미래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대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주는 농업과 농촌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농업과 농촌을 배우고 있습니다.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고, 농업과 농촌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문학은 □ 우리 정서의 소금□ 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의 물결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촌사회는 점차 고령화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에 풀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함께 모아 노력한다면 농업과 농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고, 개방에 맞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확실히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의 경영수준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 맞춤형 농정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종합대책들도 금년 중에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활력도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농촌 공간은 국토 균형 발전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가꾸고, 농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복원하여 도시민과 은퇴한 분들이 돌아와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농촌의 생활여건과 교육, 의료 등 복지 수준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집시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고,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미 많은 농업인들이 혁신적인 사고와 남다른 노력으로 하나하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사랑운동도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농촌문학 작품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과 농업인들이 흘리는 땀방울의 귀중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문학을 통하여 만나는 우리 농촌이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마음의 안식처로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이 책이 나오기 까지 애쓰신 한국영농신문사와 문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더 농촌문학상 수상작품집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지금은 소비자 중심시대

전국 생활개선회 회원 한마음대회 | 2006. 11. 2

존경하는 생활개선회원 여러분 !, 그리고 소비자단체 회원여러분 !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한마음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생활개선회원과 소비자 여러분이 함께한 큰 잔치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권오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민영 농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마음대회를 준비하신 조희숙 생활개선중앙회장님과 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오늘의 생활개선회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역대회장님과 임원님들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달리 더운 날씨와 잦은 폭우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모두 합심해서 잘 이겨내고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농사일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10만 생활개선회원 여러분!

생활개선회는 1958년 창립 이래 오늘날까지 50년 가까이 농촌생활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농촌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의 확대 추세 속에서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해야만 합니다.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더욱 높아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장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농업과 농촌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바꿔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업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지만 희망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농업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도 미개척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첨단기술과 과학적인 농업경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성공을 거두는 전문농업인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도농교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섬세한 손길로 빛어진 가공식품은 무공해 웰빙 상품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농업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농업분야에서도 반도체와 같은 세계일류상품을 만들어 냅시다.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작은 나라도 농업수출국입니다. 우리 스스로 농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소비자 여러분 !

지금은 소비자 중심 시대입니다. 애써 생산한 농식품도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결코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산자가 세계일류를 만든다는 자세로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농식품이 세계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업인만 세계일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까다롭고도 엄격한 세계 일류의 소비자가 반드시 있어 주셔야 합니다. 세계 일류 소비자와 생산자가 힘을 합하면 우리의 농식품은 개방화 시대의 파고를 넘어,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해 □ 농가경영협약□ 을 맺고 실천하는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 농가경영협약□ 은 협약내용을 존중하고 실천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남녀농업인이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갈 때 성공영농을 향한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농업인과 소비자 여러분이 함께 한 뜻 깊은 자리입니다.

소비자는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좀 더 이해하시고, 농업인은 소비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교류의 한마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활개선회원과 소비자 여러분의 한마음대회를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유전자원 첨단기술 개발 활용

농업유전자원센터 준공식 축사 | 2006. 11.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 농업유전자원센터□ 를 준공하는 역사적인 행사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의 준공은 그 의미에 있어 우리 농업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업의 초석인 농업유전자원의 연구에 정진해 오신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준공식이 있기까지 차질없이 준비해온 관계자여러분께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농업유전자원은 생명산업을 통한 첨단기술개발 등에 활용되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국가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학자들은 21세기 국부척도를 유전자원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범 국가적인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립되는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우리나라 농업유전자원 보존정책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준공식은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다는 단순한 행사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과 생명공학의 모태인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여, 후손에



영구히 물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오늘의 준공식이야말로 미래의 농업을 여는 출발점에 해당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연구는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유전자원 선진국들에 비해 그 출발이 매우 늦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선진국들의 생물자원 주권주장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농업유전자원센터』 준공이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센터의 준공을 계기로, 다양한 농업유전자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선진국의 생물자원 주권주장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센터는 로봇시스템이 장착된 최첨단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에는 종자뿐만이 아니라 영양체, DNA, 유전자, 미생물 그리고 가축의 수정란 자원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농업유전자원 종합뱅크로서 역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센터의 기능이 단순히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특성평가와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센터에 보존되어 있는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육종가들이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유 유전자원을 잘 활용하여 신품종 개발에 노력한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로얄티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식량문제해결과 농업인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유전자원의 확보로 소중한 우리 토종자원에 대한 자원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 귀중한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여 우리의 후대에 물려준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농업유전자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센터의 건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과 공동체,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농민회 창립40주년 기념축사 | 2006. 11. 8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한국가톨릭농민회 정재돈 회장님과 농민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 한국가톨릭농민회 창립 40주년기념행사□ 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가톨릭농민회는 1966년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이 땅의 농민운동, 생명운동, 생활공동체운동의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지금은 생명공동체운동을 근간으로 생명중심의 가치관 확립, 생명농업의 실천, 도·농공동체 연대활동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여건속에서 새롭고 더 나은 농업과 농촌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농민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국내외의 끊임없는 도전들 속에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DDA 협상으로 대표되는 다자간 통상체제와 함께 FTA라고 하는 새로운 양자 무역 체제의 등장으로 세계시장의 개방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먹거리 안전성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 속에서 농산물의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은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우리 농정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농림부는 □ 농식품 세계일류□ , □ 농촌 GLOBAL Top 10□ 이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식품을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고품질로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을 풍요롭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농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의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이어야 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업이어야 합니다. 안전한 식품생산은 친환경농업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은 소비자와 농업인을 생각하는 생명산업이고 환경산업이며 우리농업의 미래입니다. 미래 농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은 생명농업인 친환경농업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을 통해 친환경생명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미래의 한국농업과 농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며,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며, 얼마나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고민하느냐에 따라, 이대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농업인과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하신 여러분이 바로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을 이끌어갈 핵심동력입니다. 우리 모두 앞장서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세계일류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며,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기에 생명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창립40주년을 축하드리며,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결실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 축하 | 2006. 11. 8

존경하는 이동한 사장님, 김병수 편집인님을 비롯한 세계일보 관계자 여러분 !
바쁜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 김학원의원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제 12회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 개발과 수출증진에 앞장서 온 선도 농업인을 발굴해 그 도전정신을
격려하고 시상하는 □ 세계농업기술상□ 이 열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 세계농업
기술상□ 은 농업기술개발과 수출농업의 성공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처럼 뜻 깊은 상을 제정하고, 운영
해온 세계일보사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농
업기술을 개발하고, 수출농업의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
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성공사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쏟은 땀과 불태운 열정의 산물
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는 농업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시장개방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기술과 창의를 바탕으로 세계 어느 나라, 어떤 농업인
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기술농업으로 체질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지난 8월에는 농림부에 종자, 생명산업, 기술개발 업무를 관장하는

요구에 따라 지난 8월에는 농림부에 종자, 생명산업, 기술개발 업무를 관장하는 □ 농생명산업정책과□ 를 신설했습니다. 이제 □ 농생명산업정책과□ 가 미래농업의 준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은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연구기관, 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상식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기술로 열어 나가기 위한 다짐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

지난 6월 □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을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상이자 농림부의 비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을 생산하고, 우리 농촌을 풍요롭고 활력있는 농촌으로 만들자는 농정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의 농업과 농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생각한 바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쟁력을 갖춘 농업, 활력있는 농촌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미래 농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기술농업의 실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농업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이 새로운 기술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정부도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세계농업기술상□ 이 앞으로도 우수한 농업기술 개발과 수출증대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수 농업기술 개발과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큰 힘이 되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계농업기술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펼쳐요 미래농업! 열어요 희망농촌!

제 11회 농업인의 날 축하 | 2006. 11. 10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오늘 열한번째 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님과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님, 그리고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또한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애써주신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엄성호 회장님, 농민연합 정재돈 상임대표님, 그리고 농협 중앙회 김동해 전무님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대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 등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 99년이후 처음으로 농업계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올해는 긴 장마와 극심한 가을 가뭄 속에서도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평년 이상의 수확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농림공직자들도 농업인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안팎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농업계에 가장 큰 현안은 다름 아닌 한-미 FTA 협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4차례 협

상이 진행된 가운데 12월 5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 농업분야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농업협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와 WTO/DDA 협상 등이 우리 농업을 굳건한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농촌은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농업경영은 규모를 훨씬 더 키워 그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인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의 농업인들은 큰 규모의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획기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에 만들어진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개방화시대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농업·농촌 종합대책은 소비자중심의 농식품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농정체계 속에서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농에 대한 특별소득보조,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 농촌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대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 FTA이행지원특별법 등 주요 법령과 제도들도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 하나 손질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농업인들을 크게 걱정시켰던 수확기 쌀값불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확기 시장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비축제도와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새로운 양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금년도 공공비축쌀 매입방안을 지난 8월 1일 조기에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연말 영농철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고정직불금을 10월중


7,200억원을 지급하였고, 변동 직불금도 수확기 쌀값이 확정되는 내년 3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결과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쌀 수급여건과 수확기 쌀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산지 쌀값을 예의 주시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금속 오염 농산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소 부루세라병 등 당면한 안전성 관련 현안들에 대해 정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농약 등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폐기하는 등 시장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한·미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내년부터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2008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령화·공동화되는 농촌의 활력증대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시행중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도시민의 자본과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원마을·체험마을·관광마을 조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농촌지역개발과 복지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내년부터 농림부에서 담당하도록 업무이관을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부는 명실상부한 농촌정책의 주관부처로서 보다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DDA, FTA 등 개방확대로 농업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산물도 새로운 시장,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농업과 IT·BT와의 결합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1세기 미래농업의 경쟁력은 규모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기술과 경영능력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래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지식산업이고, 에너지산업이고, 건강산업이며, 서비스산업입니다. 개방의 확대는 우리 농산물시장을 열어야 하는 반면, 중국, 일본 등 새로운 큰 수출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도 세계를 향하는 진취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고와 정부의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뒷받침된다면 한미 FTA 등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과거에도 UR협상, 한·칠레 FTA 등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규모화, 고품질생산, 경영혁신 등으로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농업은 우리민족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농촌은 우리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전통문화를 지켜 왔습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도·농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 농업인의 날 주제는 「펼쳐요 미래농업! 열어요 희망농촌!」입니다. 오늘의 주체처럼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농촌을 희망농촌으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읍시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준비해 주신 행사추진위원회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빛과 동양란

동양란 명품 대회 축하 | 2006. 11. 11

제1회 G4 동양란 명품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 춘란의 메카로 불리는 이곳 부산에서 (사)부산 난 연합회를 비롯한 영남 지역의 난 단체가 합심하여 개최하는 제1회 G4 동양란 명품대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G4동양란 명품대회는 우리 도 시민들이 일상 생활속 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깊어가는 가을빛과 동양란에 푹 빠져볼 수 있게 하는 멋진 대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로부터 난(蘭)은 우리민족의 생활문화와 정서 속에 깊숙히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순수함은 물론 고고한 자태에 매료되어 늘 곁에 두고 즐겨 왔습니다. 단순한 풀에 불과한 평범한 한 축의 난에서 지향하는 이상의 세계와 일치하는 비범함을 발견하고 이를 높은 가치로 자리 매김해 왔습니다.

난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야 말로 시멘트 문화에 박제가 되어버린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자연 그대로의 순박함과 순결함을 되찾게 해 주는 생활입니다. 난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으로 완성 되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불과 30년 전 까지만 해도 불모지였던 한국 춘란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난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합니다.

난을 사랑하는 우리 애란인(愛蘭人)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예술가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난을 찾아 배양하여 수많은 명품을 개발하고, 이를 원예품종으로 개발하여 우수한 문화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 춘란은 이미 동호인들의 취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경을 넘어 세계의 애란인의 곁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 의미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중국,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 참가하신 애란인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의 청자 빛 하늘과 난향에 흠뻑 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만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음식과 역사 깊은 전통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G4 동양란 명품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부와 농촌현장의 가교

신지식농업인장 수여식 | 2005. 3. 3

HACCP기준원의 역할

(사)축산물 HACCP기준원 개원식 | 2006. 11. 14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소비자 단체장님과 생산자 단체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기준원의 개원을 위해 그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형석 회장님, 곽형근 원장님 그리고 여러 관련 기관장, 단체장님과 학계 전문가 여러분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축산물에서 항생제의 검출과 집단급식사고 등 일련의 식품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축산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그 요구 수준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축산물은 외국의 축산물과 경쟁해야하는 국제화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진 위생관리 기법인 해썬의 운영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탄생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비자 중심 시대입니다. 우리 축산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축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면 제값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야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입 협상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축산물의 안전 수준이 높아야만 외국에도 동등 이상 수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원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축산관련 단체가 모든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사전

에 안전성 향상을 주도해 나가고자 함을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정부주도로 시행되던 해썹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자인 축산인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해썹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곽형근 원장을 비롯한 HACCP기준원의 직원여러분!

기준원은 작은 조직으로 출발하였지만 빠른 시간내에 전 직원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업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기준원이 지금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원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축산물 위생향상과 농장 및 축산물에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창립되는 기준원의 직원 여러분의 어깨에는 높은 기대와 함께 결코 쉽지 않은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원하는 기준원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기좋은 농촌지역 만들기

전국지역리더대회 축사 | 2006. 11. 17

존경하는 정영일 지역재단 이사장님과 박진도 상임이사님 !, 그리고 전국의 지역리더 여러분 !

오늘 지역재단의 □ 제3회 전국 지역리더대회□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원유철 경기도 정무부지사님 !, 농촌지역 개발정책 방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해 주실 황 민영 농특위 위원장님 !

그리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분과 이 동희 안성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재단은 지난 2004년 3월 창립된 이후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발굴과 육성, 농촌지역의 진흥을 위한 연구, 컨설팅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재단이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지역리더 여러분 !

최근 우리 농촌을 보는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농촌은 소외되고 불편한 곳이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통과 자연이 함께 하는 휴식처이자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할 생활공간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많은 도시민들이 주말 등을 이용해 농촌을 찾고 있습니다. 농촌에 돌아와 지역리더가 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민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3세에서 51세사이인 소위 □ 베이비붐 세대□ 도시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10명중 6명(56.3%)이 은퇴 후 농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41%만이 실제 농촌으로 이주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애로만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의 농촌지역 리더 여러분 !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


이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업경영은 규모를 훨씬 더 키워 그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인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의 농업인들은 비록 농사 규모는 적더라도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촌지역 개발은 농업인과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활력회복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시행중인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계획□ 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자본과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고, 농촌을 전통과 자연이 함께하는 정주·휴양 공간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도 돈과 인재가 모이도록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원마을·체험마을 조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신활력 지원사업 등 4개사업을 내년부터 농림부에서 담당하도록 업무소관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부는 명실상부한 농촌정책의 주관부처로서 보다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농촌은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재단과 같은 민간조직의 역량강화와 함께 지자체, 농촌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1사1촌 운동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농협중앙회, 전경련 등 민간주도로 시작하여 이미 1만 3천여쌍의 기업·단체와 농촌마을간에 결연이 맺어졌고, 이 운동으로 도농이 상생하면서 농촌의 활력이 점차 회복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리더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전국의 지역리더가 앞장서서 농촌지역 활성화와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면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정부는 지역리더의 육성과 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개발, 도시민 유치 등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전국 지역리더 대회가 다양한 주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농촌지역 사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국 지역리더대회 개최를 위해 애쓰신 지역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 도약의 계기

한·미 FTA협상 농업계토론회 축사 | 2006. 11. 17

우리 농업 도약의 계기

한·미 FTA협상 농업계토론회 축사 | 2006. 11. 17

안녕하십니까! 농림부 장관 박홍수입니다.

오늘 농수축산신문사와 지에스 엔 제이(GSnJ)가 공동으로 □ 한·미FTA 협상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농업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농수축산신문 전정희 발행인님, 지에스 엔 제이(GSnJ) 이정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님, 농업인단체 대표 여러분, 그리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처럼 우리 농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다름 아닌 한·미 FTA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5차 협상이 오는 12월초에 미국 몬타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협상 준비를 잘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 농업분야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농업협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부는 한·미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쌀은 협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민감 품목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개방되는 품목은 국내 보완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4년에 수립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전면 조정하여 개방화시대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조정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으로 소비자중심의 농식품 정책기능을 강화하면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여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령농에 대한 특별소득보조,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 농촌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칠레 FTA 비준과정에서 도입된 FTA이행지원기금을 한·미 FTA추진에 따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 FTA이행지원특별법 등 주요 법령과 제도도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하나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농업계에 몰아닥친 큰 파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계가 언젠가 한번은 넘어서야 하는 파도입니다. 우리 농업인, 소비자, 정부가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에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한·칠레FTA 등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규모화, 고품질생산, 경영혁신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한·미 FTA도 우리 모두 합심해서 잘 이겨 낸다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가 앞으로 한·미FTA협상에 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협상을 위한 좋은 전략을 수립하고, 치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농수축산신문과 지에스 엔 제이(GSnJ) 관

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자산업의 발전을 알리는 신호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 축하 | 2006. 11. 24

존경하는 육종가 여러분 !, 박효근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종자연구회 회원 여러분 !,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 제2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각고의 노력으로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여, 오늘 영예의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을 수상한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일년동안 전국 각지를 방문해가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품종을 선발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우수품종 육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육종가 여러분과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국종자연구회 회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육종가 여러분!, 그리고 한국종자연구회원 여러분 !

오늘날, 농업유전자원은 생명산업을 통한 첨단기술개발 등에 활용되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국가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학자들은 21세기 국부척도가 유전자원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한 알의 씨앗이 세상을 바꾼다□ 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유전자원과 종자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세계화와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종자 산업은 한 나라의 농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1998년부터 품종보호제도

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종가의 품종개발에 관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게 함으로써 육종가 여러분이 안심하고 품종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관리소에 □ 육종가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품종관련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물론, 품종개발과 해외출원 비용 지원 등 민간육종활성화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농림부에 농생명산업정책과를 설치해서 종자와 생명산업, 기술개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생명산업정책과가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전국의 육종가 여러분 !,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농업과 농촌이 맞고 있는 도전을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급격히 진전되는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우수한 품종 개발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느냐 못하느냐는 곧 농업의 근본이자 뿌리인 종자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과 생명공학기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농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상식이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이 육종가 여러분의 우수품종 육성의지를 높이고, 육종에 뜻을 둔 인적자원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육종가 여러분이 육종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적과 개선의견을 종자산업 육성과 생명공학기술 개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식 준비를 위해 수고한 심 재천 종자관리소장과 직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종자연구회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전국의 육종가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쌀 경쟁력 제고의 초석

쌀브랜드 육성정책 심포지움 축사 | 2006. 12. 6

존경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쌀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쌀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 고품질브랜드쌀 육성정책 심포지움□ 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심포지움의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RPC연구회 금동혁회장님과 한국농어민신문사 서규용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농업인단체 대표여러분,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 요즘은 소비자 시대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신뢰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농산물만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며, 나머지는 시장에서 배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화 시대에는 국내 제일을 넘어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세계인의 선택을 받는 다는 자세로 농업을 경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쌀 브랜드는 1,800개가 넘습니다. 이처럼 많은 브랜드는 소비자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우리 쌀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쌀브랜드 육성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시·군 규모의 대표브랜드 육성 취지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외국산 쌀을 이겨내는 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연중공급이 가능하도록 적정면적을 확보하고, 품종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또한 농가와 경영체는 상호규약을 맺어 농가는 약속한 대로 원료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경영체는 최적의 기술로 건조, 저장, 가공과 마케팅을 통해 부가가치를 배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쌀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연중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를 2010년까지 10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정부가 가격지지와 수급조절을 통해서 쌀 소득을 보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군수 주도로 지역 대표브랜드를 개발해서 높은 쌀값을 받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육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평가를 거쳐 8개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경영체에 대해 시설현대화 자금과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비용으로 22억원씩을 지원하는 예산을 새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예산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된 경영체에 대해서는 건조·저장시설과 벼 매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원조건도 우대하여 정부보급 종자와 농기계 공동이용사업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브랜드 육성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도 갖추고 농업인 소득도 올리며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농협, RPC경영체, 지역농업인이 합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농업관련기관들이 좋은 제도를 시행해도 현장에 있는 농업인이 변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합심하여 세계일류의 농산물을 만든다는 각오로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농산물도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마련한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 정책방향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 애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을 농촌답게

신지식농업인장 수여식 | 2005. 3. 3

안녕하십니까 ! 농림부장관 박홍수입니다.

오늘 농촌경관이라는 미래지향적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여러분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미나 개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농촌계획학회 김성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경관협의회 임승빈회장님, 한국농촌공사 안중운사장님, 그리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는 극심한 식량부족 문제의 해결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세계무역기구 출범 등 급격한 개방화의 대응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농촌을 농촌답게 보전·관리하는 데 소홀했던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연구기관에서 농촌경관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농촌경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매우 희망적인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농촌은 농산물의 생산공간이자 농업인들의 정주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전통적인 농촌관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자 하는 도시민이 56.1%이고, 그 중 65.2%가 □ 경관이 좋은 곳□ 을 가장 선호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는 농촌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3만불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확대되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은 여전히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의 터전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토산업공간,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학습의 장소, 도시민의 휴양과 여가공간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지역 주민과 전원생활의 매력과 가치에 이끌린 도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온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농촌경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2004년에 농촌경관에 관하여 규정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밀, 유채 등 농작물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 돌담 등 전통과 문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농촌경관 요소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등이 지난 2년간 연구해온 농촌경관지표, 경관맵, 농촌경관협약 매뉴얼 등은 실천적 수단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보급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경관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농림부, 문화관광부가 협의하여 추진중인 경관법 제정 등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정비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결정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의 효과적인 공동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경관 관련 정책과 다양한 경관관리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폭넓은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 산림, 환경, 조경, 건축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공동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 시안(試案)□ 은 지난 6월부터 농림부가 총괄하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공사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여러분의 폭넓은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

우리 농촌은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FTA, DDA 등 개방화 추세의 진전으로 농업과 농촌이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할 때 농촌의 경관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한가한 여유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농촌경관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잘 보전되고 가꾸어진 농촌의 경관은 그 자체로 훌륭한 농촌관광 상품이 되어, 농업인과 농촌주민에게 다양한 사업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이익과 혜택이 될 것입니다. 아직 농촌경관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역량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농촌경관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이 아름다워 지는 법

농촌마을개발시상식 축사 | 2006. 12. 13

영예의 수상자와 가족, 친지, 그리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국일보사 이종승 사장님, 한국농촌공사 안중운 사장님과 농민단체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의 주제는 □ 농촌지역 가꾸기□ 입니다. 농촌지역을 잘 가꾸고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각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농촌지역 가꾸기□ 에는 농촌지역 주민과 농촌을 사랑하는 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여러분야의 □ 농촌지역 가꾸기□ 사업에 대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알리는 시상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먼저,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 마을 가꾸기□ 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가 올해로 5회째가 됩니다.

마을 가꾸기에 애써주신 마을의 지도자와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몸소 농업·농촌의 가치와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그 감동을 기록한 농촌문화 체험수기 공모는 3회째가 됩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읽어 보면서 농촌을 보는 우리 젊은이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올 해 처음 시작한 □ 내고향 잠재자원 콘테스트□ 는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고향마을의 보물을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고향의 산천에 잠재되어 있는 뛰어난 자

원을 찾아내고 발전 방안을 설계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여러분 !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안팎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농업계에 가장 큰 현안은 다름 아닌 한·미 FTA 협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정부는 농업분야의 민감함과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농업협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농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문제 등 농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에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농간 소득격차 증대, 농촌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 경제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의료, 주택, 문화등 각부문에서 도시와 격차가 커지고, 농촌공동화로 공동체가 해체되고 전통문화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취약한 상황에서 개방의 파고는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며, 우리 국가 경제의 위치상 피해갈 방법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4년에 만들어진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수정과정에서 농촌의 복지, 교육, 지역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농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모이게 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농촌사회를 활성화 하고 도농간 지역균

형 발전을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농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체험과 농촌관광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마을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농촌마을간 교류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시작한 1사1촌 운동으로 1만4천여 건의 결연이 이루어져 농촌마을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농 등으로 계속 침체되어 왔던 농촌 마을에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예의 수상자와 가족, 친지,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안고 있는 농촌지역 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우리 농촌을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도약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촌마을 주민과 도시민, 그리고 출향인사들이 서로 합심하여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면 우리 농촌은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분야별로 심사를 맡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축산물 시대

축산물 우수 브랜드 인증 축사 | 2006. 12. 21

오늘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주관으로 □ 2006년도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 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발표회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수 브랜드 육성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축산관련단체, 학계와 유통업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수 브랜드 인증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브랜드 경영체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해주신 현장실사단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수한 브랜드로 발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브랜드 경영체 관계자 및 회원농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축산인 여러분!

다사다난하였던 병술년도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2006년도 우리 축산업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축산농가와 관련기관의 협조 속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했으며,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전단계 HACCP도입을 위해 『축산물 HACCP기준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축산인이 하나로 힘을 모아 조류 인플루엔자, 소부루세라병, 돼지 소모성질병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분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벌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소비자여러분이 믿고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맛있고 안전한 우수 축산물을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축산물 브랜드가 세계일류 수준의 농식품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축산인 여러분!

새해에도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DDA농업협상, 한·미FTA협상에서 우리농업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와 폭으로 시장을 개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과정에서 품목별 민감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환경이나 안전성 문제에도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부응하여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형 축산을 적극 도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중심의 선진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육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일관된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도축·가공·유통·판매 등 각 단계에서 축산물을 안전하게 취급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우리 축산물을 브랜드화하여 그 품질을 높이고 나아가서



는 소비자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소비자 단체에서 우수 브랜드 인증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우수 축산물 선택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우리 축산물에도 브랜드 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며 우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축산인 여러분들의 노력을, 정성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 경영체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계의 우리 농산물 사랑

우리농촌살리기 선포식 축사 | 2007. 1. 13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맞아, 서울 도선사와 불교 TV가 개최하는 □ 우리 농촌 살리기 선포식□ 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선사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 108산사 순례 기도회□ 가 성황리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불교 TV와 도선사가 우리 농촌 사랑의 일환으로 직거래장터를 열어 지역농산물 구매운동을 실천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불교계의 큰 어른이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또한 불교 TV 회장 성우 스님, 도선사 혜자스님을 비롯한 4000여 불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 김인식 농촌진흥청장님 등 많은 분들이 우리 농촌을 좀더 잘 살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같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내빈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세계적인 개방화 물결 속에서, 넘어야 할 많은 도전과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미 FTA도 본격 논의되고 있고, 지난해 일시 중단되었던 DDA 농업협상이 1월 이후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과 농촌에 많은 과제도 던져질 것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성장을 위한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농업쪽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정의 기본 틀을 새롭게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식생활 안전확보를 위해 농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고품질 브랜드육성, 이력추적 관리제도 도입등 소비자중심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내빈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잘 견뎌왔고, 그 속에서 우리 농업은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농업인들이 더 좋은 품질의 농산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농촌현실에 맞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시대를 맞아 지금 우리 농산촌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산촌이라는 공간이 기본적으로는 생산공간입니다만, 도시민들을 위한 휴양공간이자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농업인들과 정부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복합생활공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농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된 여름휴가 농산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1사1촌 운동, 농촌체험관광, 전원마을 페스티벌 등에 각계각층 국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개방의 파도가 밀려와도 소비자와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고 농촌을 아껴주신다면 우리 농

업인들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보니,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우리 농촌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됩니다. 조계종 집행부 스님, 해인사, 송광사 등 국내 대표적인 3보 사찰 주지스님 그리고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님 등 불교계의 많은 분들이 농촌 발전과 희망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이 오늘 □ 우리 농촌 살리기 선포식□ 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교는 우리 민족이 국난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언제나 그 선봉에서 민족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 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불교계가 큰 힘이 되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성장과 발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 불교계의 □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을 계기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그리고 살기좋은 농촌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업의 미래를 연다

농업전망 2007 발표대회 격려사 | 2007. 1. 24

존경하는 농업인, 농림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사랑해 주시는 내빈 여러분!

오늘 국내외 농업 여건과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조망해 보는 □ 농업전망 2007 □ 발표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원장님과 연구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전망 발표대회는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이 영농의사를 결정하고 정부가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경기나 농산물 수급 상황 뿐 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흐름과 국제 무역환경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불확정적이고 변화하기 쉬운 여건 속에서 국내외 경제와 세계 농업의 흐름을 살피고 우리 농업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하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농림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지난 2006년을 되돌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쌀 공공비축제와 소득보전 직불제를 차질없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도·농 상생의 기틀이 되는 1사1촌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농업계에 산적해 있는 과제를 정부, 농업관련기관, 현장의 농업인이 각각 맡은 바 역할을 다하여 함께 풀어나가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은 극복해야 할 많은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지난 해 일시 중단되었던 DDA 농업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자꾸 높아져가고 있고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현실은 한마디로 □ 변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라는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우리 농업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문제는 우리 농업계가 고민하는 깊이 만큼 해결됩니다. 우리 농업은 우리가 흘리는 땀 만큼 반드시 성과를 냅니다.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비 패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상품이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농업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변화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농정의 주요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FTA 등 농업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양허안을 제시해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식품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단계에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조사를 확대하고, 유통단계에서는 무·배추 포장유통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우수 경영체를 집중 지원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는 한편, 식품·외식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식품산업 육성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가축질병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천안에서 추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토대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 부루세라병, 돼지 소모성 질병 등 각종 질병들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로, 그동안 소외되어 온 농촌을 개발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농림부가 신활력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개발 사업들이 서로 밀접히 연계되도록 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우리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평균 농가를 대상으로 정형화된 정책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농가유형별 경영특성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맞춤형 농정을 도입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맞춤형 농정체계의 근간이 되는 농가등록제를 시범 실시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3년까지 맞춤형 농정체계에 맞는 다양한 시책들을 단계적으로 도입·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협동조합의 본분인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조합의 유통사업을 규모화·전문화하고 중앙회의 일선 조합에 대한 경제사업 지원도 강화하여 협동조합의 산지 유통비중을 대폭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협동조합이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도록 하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점

검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FTA이행특별법 등 관련법령과 제도들도 손질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림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우리 농업의 미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만큼 밝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부 따로 농업인 따로 고민해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정부와 농업인간에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금년이 농업계 대화합의 원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 조성된 분위기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농업계 전체가 농정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마침 오늘 발표대회에서 □ 한국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연다□ 라는 주제 하에 □ 소비자지향형 농업과 농촌복지□ 라는 과제가 논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농업계의 문제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 준비에 애쓰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업의 희망 전도사

제8회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위 수여식 치사 | 2007. 2. 22

사랑하는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님, 김종혁, 강대기, 목찬균, 엄성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 윤요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님, 김준기 한국4-H본부 회장님, 그리고 학부모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여덟 번째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년간 학교와 농업현장에서 배움의 길을 정진해온 졸업생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정명채 학장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올바른 뜻과 생각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이제 곧 농업인으로서 앞날을 개척해나갈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길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농업경영을 일생을 걸고 도전해 볼 만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 남들도 다 떠나는 농업, 과연 될까? □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조금만 어려움에 부딪혀도 정부 탓, 이웃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길을 찾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21세기는 지식과 기술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또한, 세

계로 시야를 넓혀야 하는 □ 열린 시대□ 입니다. 이제 농업도 1차 산업을 넘어 지식과 기술이 접목된 2·3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급변하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주도해 나갈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희망과 열정으로, 용기와 자신감으로 도전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은 바로 그 안에 몸담은 농업인의 역량만큼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농업과 농촌은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소비자 및 시장의 변화를 읽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변화에 앞서 노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공부하고 경영을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산물 브랜드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이 서로 협력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곧 농업·농촌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리더는 나 하나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지역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부도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품질 농축산물브랜드의 육성,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농촌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중 한·미 FTA와 DDA농업협상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조정할 것입니다. 농가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농업정책,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맞춤형농정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400여명의 선배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훌륭한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역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본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면서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농업인입니다. 여러분도 선배들의 뒤를

이어 한국 농업의 희망을 보여주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CEO로서 우뚝 설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 설계와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올 3월이면 한국농업전문학교는 □ 한국농업대학□ 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정명채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졸업생이 힘을 모아, 한국농업대학이 새 시대에 걸맞는 정예 농업인력 양성의 터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생 여러분의 새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길에 성공과 보람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의 중심, 지역의 리더

한국농업전문학교 10년사 축사 | 2007. 3. 6

한국농업전문학교 개교 열 돌을 전국의 농업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10년은 우리 농업의 희망의 역사입니다.

지난 □ 97년, UR(우루과이라운드)이라는 거친 한파 속에서 우리들은 한국농업전문학교가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후계인력 양성이라는 중대한 소명을 부여받고 출발하는 것을 큰 기대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농촌 곳곳에 한국농업전문학교가 배출한 1,700여명의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지식과 젊은 패기로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새내기들이지만 머지않아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지역의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던 젊은이들도 주저없이 입학할 정도로 젊은 농업인 양성 학교로서의 위상도 굳건해졌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 오신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직원과 졸업생, 재학생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3월 한국농업전문학교는 한국농업대학으로 제2의 창교를 맞이합니다. 단지 학교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농업·농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창학이라는 각오로 도약과 변화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1등의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과정과 교육방식의 실현하기 위해 학장이하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식과 기술이 능한 농업기술자가 아니라 농업경영에 자기의 꿈과 혼을 담을 줄 알고 의지와 자기계발 노력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참된 농업인을 키

워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 우리는 최고의 농업경영인이다. 현장에서 탐구하고, 실행으로 배운다.□ □
우리는 농촌을 지키는 지도자다. 사랑·믿음·정열로 새 농촌을 건설한다.□ □ 우리
는 흙의 주인이다.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지킨다.□

이렇듯 젊고 패기있는 우리 학생들의 굳은 다짐 속에서 한국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10년사 발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정명채학장님 이하 교직원들께 감사드리며 한국농업대학과 학생들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세계 속의 우리蘭

아·태 蘭 전시회 개최식 축사 | 2007. 3. 16

존경하는 전국의 화훼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꽃의 도시 고양에서 개최되는 제9회 아시아·태평양 蘭 전시회 및 학술회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외국의 참석자 여러분, 특히 제8회 대회 조직위원장이신 Shen. Shun. Chen님께도 감사와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 준비에 애쓰신 강현석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회 기간동안 모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 여러분!

蘭은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된 식물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사막지역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서식하고, 심지어 극지방에서도 끈질긴 생명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 종류도 다양하여 3만 여 가지에 이르며, 예로부터 군자에 비유되면서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양蘭은 화려하고 풍만하며 동양蘭은 의연한 깊이의 선(線)과 자태, 그윽한 꽃향기를 자랑합니다.

아시아·태평양 蘭 전시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蘭을 감상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꽃과 문화와 예술이 깃든 고양 시에서 치러져 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더욱 감격스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蘭의 진가를 확인하고, 蘭과 보다 친근해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우리 농가가 생산한 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꽃을 사랑하는 전국의 화훼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와 더불어 사는 상생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번 전시회와 함께 열리는 학술회의가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蘭 산업 발전에 힘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꽃은 주로 관상용에 쓰여졌으나, 요즘은 식용이나 원예치료용으로 활용되는 등 그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훼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생산액이 1조 원을 넘었고, 蘭 생산액 또한 3천5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의 원예산업에서 蘭 배양 역사는 짧지만 한국의 蘭은 품종과 자질이 매우 뛰어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우리 화훼인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더 좋은 품종의 蘭을 개발하고 재배기술도 향상시켜 蘭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화훼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화훼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생산에서 유통, 소비, 수출까지 분야별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함께 노력하여 화훼산업이 우리 농업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국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전시회와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빌며, 국내·외에서 참가하여 주신 업체에도 큰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거듭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도적인 언론의 역할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27주년 기념식 | 2007. 4. 11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한농연 박의규 회장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농어업농촌특별대
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님, 그리고 전국의 농어민신문 독자 여러분과 내빈 여려
분!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27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지난
1990년 창간된 이후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서규용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난 4월 2일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농업분야 협상에서 정부는 최
선을 다했습니다. 당초 약속드린 대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쇠고기,
오렌지, 사과 등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거나 계절관세를 도
입하고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
다. 그렇지만, 농업인 여러분들의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많
이 아쉽습니다. 협상이란 것이 상대방이 있다보니 우리 협상단의 혼신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이번 협상으로 인한 농업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밀하게 예측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
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실

제 피해는 더 클 수도,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과 정부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제 대책을 논의할 때입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우선, 협상결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갑자기 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농사를 그만두고자 하는 농가가 있다면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지급 대상, 요건, 지급 수준 등에 대해서는 농업인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FTA 이행 지원기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업농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소농이 생산시설 현대화나 품종개량, 선진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우수 농산물브랜드를 적극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사를 그만 두고 연세가 많아 전업이 불가능한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강화하여 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분들에 대한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협상에서 얻은 보호장치를 충분히 활용해 우리 농업·농촌이 피해를 덜 입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한·칠레 FTA 등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품질고급화, 규모화, 경영혁신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품질과 안전성에서 믿을만 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들은 수입산보다 훨씬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서 수입 농산물 가격이 좀 싸지더라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미 FTA도 우리 모두 합심해서 잘 이겨낸다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 관계자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운 만큼 언론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호가 거대한 파도를 넘어 순항할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주시고, 때로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면서 때로는 서슴없이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이 해 오신 것처럼 이러한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주시길 바랍니다.

창간 27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농업인들의 사랑 속에서 한국농어민신문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품질 기술로 세계를 넘는다

한우관련 산업화기술 발표회 축사 | 2007. 4. 1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의 고향, 농촌을 지키는 한우 농업인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연구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신지식·신기술의 창출 없이는 국가발전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장벽이 무너지는 무한 경쟁 시대의 진입으로 어떤 산업 분야라도 경쟁력 확보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농업도 이제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하며, 그 바탕이 될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산업도 품질이나 안전성, 친환경성, 생산성 등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나가야만 개방화 시대에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쇠고기는 현재 40%인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입이 급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만, 미처 겪지 못했던 개방수준이라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되면 국내 한우산업의 생존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국내 한우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고, 하

나는 품질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협정이 비준되어 발효되면 15년 동안 매년 약 2.7%씩 관세를 낮추어가야 합니다. 이 정도는 생산성 증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02년 18개월령 소의 증체량과 2006년 18개월령 소의 증체량을 비교할 때, 매년 약 9kg씩 늘어났습니다. 또한, 품질면에서도 한우산업은 몇 가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품종이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한우 관련 연구진의 수준이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국제 수준에 비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셋째, 고품질 고급육 생산에 대한 한우 농가들의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이처럼 UR 당시의 한우산업과 지금의 한우산업은 생산성이나 품질경쟁력 측면에서 비교가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들을 가지고, 축산업의 공통적인 문제인 가축질병과 노후화된 사육 시설, 분뇨처리 문제 등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쇠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쇠고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농가와 함께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수한 브랜드경영체 육성,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을 통해 농가에서 잘 기른 한우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한우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연구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착실하게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한·미 FTA라는 파도가 무척 험하고 높지만 농가와 정부가 지혜와 힘을 모으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우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시급



한 이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 한우관련 산업화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를 계기로 각 지역별, 연구기관별로 개발한 기술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현장에 적합한 기술정보가 신속하게 확산·이전 되어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행사가 개최되기까지 한우산업의 발전에 대해 고민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자와 농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한우 산업의 발전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면

지자체장 그린포럼 축사 | 2007. 5. 3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박영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군수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시장, 군수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내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 2007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그린포럼□ 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월 2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어 많은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장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을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도농교류, 농촌관광은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그 어떤 수단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많은 성공사례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돌이켜 보면, 도·농균형 발전은 우리가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 □ 60년대부터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 그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사회적, 문화적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농균형 발전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러한 해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농촌을 보는 우리 국민의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촌이라 하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 소외되어 살기에 불편한 곳으로만 여겼습니다만, 이제는 자연이 살아 숨쉬고 전통문화가 보전되어 있어 편히 쉴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쾌적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국민들이 앞으로 더욱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변화에 맞춰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모이게 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각종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교육·복지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을 살기 좋고 도시민이 기꺼이 찾아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농교류와 농촌관광은 농촌에 사람이 모이게 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농촌관광은 연 평균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습니다.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농촌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향토 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여 나가고, 주민의 역량을 배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 그리고 내빈 여러분 !

도농교류와 농촌지역 개발을 촉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농촌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유도해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소득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필요한 자금지원과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다양한 유·무형의 농촌 어메니티 특색을 살려 농촌관광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지역이 전국 여기저기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을 통해 농촌관광과 농촌지역사회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간다면, 성공모델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합니다. 오늘의 모임이 지방자치단체 서로간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설계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최명희 강릉시장님, 유명호 증평군수님, 김인규 장흥군수님, 이정백 상주시장님, 토론회 좌장이신 정영일 이사장님과 토론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밀한 협력이 경쟁력

양돈지도자 연수회 축사 | 2007. 5. 22

전국의 양돈인과 지도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님과 김낙성 의원님, 그리고 여러 농업인단체 대표 여러분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대한양돈협회가 주관하는 □ 2007 전국 양돈지도자 연수회□ 가 열리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데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님, 김건태 양돈자조금 관리위원장님과 많은 관계자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돈산업은 □ 05년 생산액이 3조8천억에 달해 축산업 중 1위, 전체 농림 생산액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핵심분야입니다. 양돈산업은 한우산업과 함께 농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품목보다 일찍이 규모화·전업화되고, 전 양돈인이 단합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돈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세계 일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최근 양돈산업은 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도재 폐사율 증가, 분뇨 처리비용 과다 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4월 한미 FTA가 타결되었고, 최근에는 EU와 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돼지고기와 어느 정도 대체관계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



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이며, 걱정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예단하여 지나치게 걱정부터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양돈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세계경제가 급속히 통합되어 경제에 국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25% 관세가 언제까지나 우리 양돈산업에 보호막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입니다. 양돈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양기술을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관리, 사료관리, 브랜드관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컨설팅 등을 통해서 선진 양돈기술을 습득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고 실감한 것은 잘하는 농가는 역시 농장 청소상태나 농기계 정리상태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양돈산업이 발전하려면, 농가들이 더욱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 스스로가 사양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폐사를 줄이고,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양돈이 악취나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떨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양돈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현장 농가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가에서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사양기술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양돈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 밀집사육지역 등에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퇴·액비 이용을 높이는 등 자연순환농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품질 좋고 안전한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브랜드 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속적인 종돈 개량과 함께 농장에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양돈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양돈농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농가, 생산자 단체, 그리고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한다면, 우리 양돈업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양돈 지도자 여러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농가들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먼저 두려워하여 물러서려 한다면 양돈산업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리는 연수회는 예년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 전국 양돈지도자 연수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우리 양돈산업이 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줘

제4회 농촌문학상 축사 | 2007. 5. 25

한국영농신문과 한국농촌문학회가 주최하는 □ 농촌문학상□ 이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문학상을 수상하신 문인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높이고자 농촌문학상을 제정하여 주관하고 계시는 한국영농신문 이희석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한국농촌문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문인 여러분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빈 여러분!

우리 농촌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최근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떠나 활력이 줄어들었는데, 한·미 FTA가 체결되는 등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갈수록 확대되어 우리 농업, 농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농촌의 발전 없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도,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에게 농촌은 어렵더라도 언제까지나 지키고 보전해야 할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연세드신 분들에게 농촌은 가난한 시절, 어렵게 자랐던 곳이지만 언제나 가슴속에 그리움으로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에서 자란 이들에게도 농촌은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여유와 넉넉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생명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 애환이 깃들어 있으면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정겨움과 멋스러움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니다. 그래서 농촌은 자연스럽게 문학의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이러한 농촌의 가치가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농촌은 살기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만 하는 곳이라고 여겨져 왔다면, 최근에는 편안한 휴식공간이자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체험관광이나 1사1촌 운동에 참여하여 농촌생활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면서 활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려운 우리 농촌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의 분위기가 우리 농촌이 활력을 되찾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도시민들도 편안히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농촌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특산물 가공 등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농촌의 소득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전 정부부처가 나서서 농촌의 교육과 생활여건,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은 국민이 우리 농촌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농촌은 활기를 되찾아 우리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촌문학상은 문인들이나 독자에게 우리 농촌의 현실과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문학상이 제정된 지 불과 4년이 되었지만, 매년 전국과 미국, 중국 등지에서 1백 여 명이 넘는 문인들이 문예작품을 응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문학상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확고하게 기반을 잡아나갈 기

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천만 불자의 성원이 큰 힘

108산사 순례법회 말씀 | 2007. 6. 23

오늘 108산사 순례기도 회원들의 신심을 다지고,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 개최를 기원하는 뜻 깊은 행사가 이 곳 관음성지 낙산사에서 봉행되는 것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곳에 와보니 2년 전 화마를 겪은 낙산사가 본래의 모습으로 원만히 복원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복원불사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주지 정념 스님 등 많은 대덕 스님들과 신심 장하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원 불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향후 1천년을 중생들의 애환을 함께 하는 도량이 되길 기원합니다.

올해 초 장충체육관에서 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주이신 선묵해자 스님과 회원 여러분들을 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음성지에서 여러 대덕스님들과 108산사 회원들을 다시 뵈니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한국불교 산행 문화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 순천 송광사에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 이후 오늘 낙산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촌 살리기, 우리 농촌 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얼마 전 한미 FTA가 타결되었듯이 시장개방이 강도 높게 진행되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 우리 농촌을 사랑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

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정말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정부 등 전 농업계는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당면한 위기를 이겨내고 우리 농업·농촌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인들은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로 소비자에게 다가서려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소비자인 국민 여러분이 우리 농산물을 외면하시면 무용지물입니다. 다행히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앞장서고 2000만 불자들이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비롯한 다양한 농촌살리기 운동에 나서 주신다니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불교는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언제나 선봉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불교계가 온 힘을 모아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불자들이 모여 기원한 대로 동계올림픽이 반드시 평창에 유치되어 강원도 전역의 농산어촌에 활기가 넘쳐나기를 관세음보살님께 기원합니다.

끝으로 먼 길 마다 앓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불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두루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에 격려와 조언을

농업인신문 창간 37주년 축하 | 2007. 6. 27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전국의 농업인신문 독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농업인신문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농업인신문은 지난 1970년 창간된 이래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윤요근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내빈 여러분!

얼마 전 한·미 FTA가 타결되고 또한, EU와 FTA 협상이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우리 농업·농촌의 장래에 대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실제 영향은 더 클 수도,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대처하면 우리 농업의 근본 체질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농업이 어떠한 수준의 시장 개방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한·미 FTA로 인해 농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 가공, 유통단계별 취약점을 중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젊고 역량있는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유도하면서,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안정 장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방 확대에 의한 농촌의 활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을 온 국민의 휴양공간, 쾌적한 생활공간, 다양한 산업활동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보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6월2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도 농업인단체, 국회 등의 의견을 들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신문 임직원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문제는 우리 농업계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확신합니다. 강한 자신감을 갖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언론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업인신문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맞춰 미래지향적 농업경영과 첨단 기술 보급에 힘쓰면서, 도농교류 협력사업 확대,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 캠페인, 농촌문화 지키기 운동 등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주시고, 애쓰시는 농업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서슴없는 비판과 함께 많은 정책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간 37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농업인들의 사랑 속에서 농업인신문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FTA, 발전의 밑거름


한미 FTA협상타결에 따른 명예농림부장관 초청 워크숍 격려사 | 2007. 6. 28

존경하는 명예농림부장관님 여러분!, 그리고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농업인들과 관계 전문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김석중 회장님을 비롯한 명예농림부장관님들께서는 평소에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이 번에는 또 한미 FTA 타결로 더욱 어려워질 우리 농업·농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신다고 하니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해주신 명예농림부장관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농업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현장 농업인들의 걱정은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시장 개방의 영향은 예상보다 더 클 수도,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대처하면 우리 농업의 근본 체질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농업이 어떠한 수준의 시장 개방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를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한·미FTA로 수입이 급증하여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피해 보전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



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원에 분야는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여 생산단계의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강화를 위해서 전업농 중심으로 규모화를 촉진하고, 경영안정장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우수 브랜드 육성, 안전성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을 온 국민의 휴양공간, 쾌적한 생활공간, 다양한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존경하는 명예농림부장관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인들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만큼 밝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부 따로 농업인 따로 고민해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금년을 농업계 대화합의 원년으로 삼자고 강조해왔습니다. 농업계 전체가 농정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농림부장관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농업계의 대화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워크숍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 준비에 애쓰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명예농림부장관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농정의 귀중한 정보

세계농정 토론회 축사 | 2007. 7. 23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 그리고 학계 전문가, 농업인 단체, 농림공직자 등 우리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모이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또 오늘 귀중한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해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원장님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님, 그리고 이처럼 좋은 토론 장소를 제공해주신 이우재 한국마사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오늘 세계 농정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의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안팎으로 끊임없는 도전들 속에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이제 마무리되었습시다만, 도하개발 아젠다협상,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협상이 설세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로 더 폭넓은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우리 농업계는 지금의 개방 속도에도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외시장개방 문제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농가 인구의 고령화 문제, 소득정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미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이 전체 농가인구의 30%를 넘어섰고 78% 수준의 도농간 소득격차는 그리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

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장관인 저 뿐만 아니라 농업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분 한분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미리 가정해보면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관세장벽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농가인구의 2명중 1명이 60세가 넘는 노인이 될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기성세대들이 가졌던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점점 퇴색되고 경제성의 논리가 농업과 농촌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쉽지않은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만 닥쳐온 것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경험하였거나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농정을 돌아보는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지금 당장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농업과 농촌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처해있는 위치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봅시다.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상해 봅시다. 개방화에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개방화라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활용해 나갑시다.

농림부는 이미 □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글로벌 Top10□ 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개방화를 대비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농정을 바탕으로 국내 농업의 내실을 다져나가면서 한류를 바탕으로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 농식품 수출확대 등 국내 소비자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의 음



식을 알리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산업, 바이오에너지, 생명공학 기술 등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은 정부 혼자 정책을 잘 만든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달성되지 않습니다.

여기 모이신 농업계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림부가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놓고 백지위에서 새롭게 조직과 정책을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정책 리모델링이 그 출발점일 것입니다.

농업인 단체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권익을 지키면서 농업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련 기관,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농업과 농촌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의 미도 없는 것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각각의 조직마다 농업·농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농업인 단체와 연구기관, 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세계농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농업인단체, 학계, 정부가 서로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구상하는 열린 마음으로 진지한 토론회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하고 발전해야 프로 농업인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축사 | 2007. 8. 2

자리를 함께 해주신 많은 경기도 한농연 회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의규 중앙회장님!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강우현 경기도회장과 임원여러분! 또한 많은 회원들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각 시·군 회장단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한국 농업·농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오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신 많은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땀인지 눈물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땀을 흘리며 여러분과 현장에서 함께 했던 지난 20여년을 되돌아보며 농정의 책임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제 밤 지난날 여러분 앞에서 제가 했던 말들을 정리해 둔 수첩을 한 번 뒤져 보았습니다. "지난날 이 땅의 농업은 많은 농민지도자들의 땀과 눈물을 먹고 성장해왔다." "우리 한농연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미 우리 어깨위엔 이 땅의 농업과 농촌을 책임지라는 역사적 짐이 지어져있다." "대한민국의 농업의 수준은 우리 한농연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다." "개방화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농업 미래는 우리 한농연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얼마나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얼마나 밤새워 고민하는가에 달려있다." "지도자는 자기가 속해있는 단체나 조직원들에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지만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아

니다." 등등 많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회원동지 여러분!

농정의 책임자와 여러분과 호흡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박의규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경기도연합회 회원동지 여러분이 뜻을 함께 모아 개방화로 인한 우리 농업인의 고민과 가슴 아픈 사연을 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선택했던 많은 수단들을 버리고 한손엔 여러분이 애써 키운 장미를 들고 한손엔 우리의 땀과 정성이 담긴 오이와 토마토 등 우리 농산물을 서울 시민들께 나누어 주면서 우리 농업인의 심정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중앙청사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한농연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나이들어 힘들어하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선배회장으로서 박의규 회장님과 중앙집행부, 강우현경기도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단위조직의 회장님들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의 가슴 아린 사연은 가슴에 묻어두고 미래를 향한 긍정적사고와 진취적행동으로 이 땅의 농업과 농촌사회의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한농연의 의지에 의해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회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우린 변해야 합니다. 세상만사가 그러하듯이 변하기 위해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변하는 것도 누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농업인 스스로의 뜻과 의지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도 이 땅의 다른 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농업을 보는 시각이 변해야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도 우리 농업을 보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농업은 국가의 다른 산업분야가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농업과 농촌에 투자하는 돈은 그냥 밀빠진 독에 물 채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농업의 발전은 다른 산업발전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농촌의 발전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농촌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자치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농림부로 이관하여 농림부가 총체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정책과제에 대해서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책을 입안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안은 다름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해야한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경운기 5미리짜리 나사를 풀기위해선 5미리짜리 스페너가 필요하지 3미리 7미리짜리 스페너를 아무리 많이 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200여 가지의 모든 정책과제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현장에 맞도록 고치는 농정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농업정책이 바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동지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농업인여러분!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또다시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여러분과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정부와 농업현장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방침을 절대로 왜곡시켜가면서 문제를 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 50여년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농업정책의 기본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땅 중심의 농업정책을 농민중심으로 농업정책을 과감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전환 없이는 앞으로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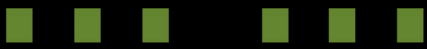
민국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다 라고 까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한농연 회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을 만드는 데는 여러분의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이 절대로 필요하며 정책입안의 중심에 서 있도록 다같이 연구하고 고민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과 밤세워 정담을 나누고 싶고 함께 토론하고 싶지만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기회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일까합니다.

다시 한 번 □ 경기농업의 명품화 한농연의 힘으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2회 한농연경기도연합회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고문

□ 6차 산업 □ 농촌관광

경향신문 | 2005. 2. 1

□ 한해 관광객 10배 증가, 특산물 판매 수입 37배 증가□

이것은 외국 유수 관광지의 얘기가 아니다. 16가구로 구성된 어느 조그만 우리 농촌의 한마을에서 농촌관광을 통해 일구어낸 성과이다. 지금도 농촌 현장 곳곳에서는 저마다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고 있는 곳이 많다. 그동안 농업·농촌에 대한 대규모 투융자에 힘입어 놀라운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 결과 이제는 사시사철 원하는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우리 농촌의 변화와 함께 국민들의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수요도 바뀌고 있다.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으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주 5일 근무제 확대에 따라 가족과 함께 건전하고 유익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농촌관광이다.

농촌관광을 통해 이제 농촌은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아울러 특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재화를 생산하고(2차 산업),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3차 산업)하는 이른바 6차 산업이라는 복합산업공간으로 변화한 것이다.

벼 수확행사, 옥수수 따기, 초가집 짓기 등과 같이 농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을 온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그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푸짐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촌관광의 묘미이다.

정부도 2002년부터 □ 녹색농촌체험마을□ 을 선정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 불과 4년차에 불과한 사업이지만 벌써 몇몇 마을은 마을 홈페이지와 방송, 입소문 등을 통해 유명한 명소로 자리를 잡았고 이들이 거둔 놀라운 성과는 우리 농업인들 사이에 성공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농촌마을들이 농촌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농촌마을이 관광을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 있다.

바로 농촌다움을 살리면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편의성만을 쫓아서 농촌만의 특성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고 도시민들도 이러한 농촌에서 매력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농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무엇, 우리 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이다. 조그만 곤충 한 마리, 평범한 들꽃이라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기발한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을 주민의 눈으로가 아닌 고객인 도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농촌관광은 성공할 수 있다.

머지않아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농촌관광상품으로 우리 도시민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도 우리 농촌을 보기위해 찾아오게 되리라는 희망을 을유년 새해에 가져 본다.

□ 1사1촌□ 은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문화일보 | 2005. 3. 7

한국 경제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03년 국내총생산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혹자는 이 통계수치만을 보고 농업이 우리 경제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경쟁력 없는 농업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많은 선진국의 경우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농업부문에 그리도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일까? 농업에 대한 투자는 경제원칙에 어긋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 外部효과□ 에 있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외부 경제)이나 손해(외부 불경제)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느 한 농업인이 3000평의 논에 벼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한해 이 농업인이 쌀 60가마를 생산했다면 돈으로 환산한 경제적 가치는 약 960만원 정도가 된다. 이것이 국내총생산액 통계에 포함되는 농업의 가치이다. 그러나 이 농업인이 생산한 것은 쌀 60가마 뿐만이 아니다. 벼농사로 인해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등 대기정화에 기여하고 빗물을 저장해 홍수를 예방하기도 한다. 또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이 주는 외부 경제 효과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한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촌경관

유지,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연간 28조 3천억원으로 농업 총생산액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농업이 갖는 가치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고 도시와 함께 농촌도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정한 것도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것이다.


농촌의 발전이 균형발전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전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5.5조원 중 농림부 예산이 1.1조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이 최근 열기를 더하고 있다. 1사1촌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농림부 장관으로서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이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앞장서온 전국경제인연합회, 농협중앙회, 문화일보사 등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많은 기업에서 동참해 주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기는 강원도 토고미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번기 일손돕기에 참여하고 농가 숙박을 통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회사 구내 식당에 한달에 한번 자매결연 마을의 농산물을 구입해 유기농 식단을 제공하여 이 마을이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 연간 1억원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성공사례가 점차 확산되어 1사1촌 운동이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이 운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생(win-win) 운동이라는 1사1촌 운동의 근본 취지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기업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템으로 농촌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구



상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농촌마을 주민들도 우리 마을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체 직원들을 위한 주말농장을 제공해 준다거나 빈집 등을 고쳐 사원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기업과 농촌마을간의 관계도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소원해지기 마련이다. 정부도 1사1촌 운동이 새마을 운동과 같은 범국민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1사 1촌 운동을 통해 기업과 농촌마을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개방화 시대 우리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건강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사례가 아니겠는가?

신뢰와 경쟁력

서울경제신문 | 2005. 5. 9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Trust」라는 책에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신뢰가 갖가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 10여년전 후쿠야마 교수가 한국을 저신뢰 국가 중 하나로 분류했는데 지금도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상황을 볼 때 그 평가가 후하게 쳐 줄 만해 보이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우리 농업계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정부가 시키는대로 했다가 한해 농사를 실패했다는 얘기, 아직도 주요한 농정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답을 찾는 토론보다는 시위를 하는 농업인들의 모습속에서 농정 불신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을 쌓아두고서는 우리 농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

필자는 우리 농업을 둘러싼 경제주체인 정부, 농업인, 소비자의 역할분담을 제안한다. 이들 세 경제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서로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이것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한다고 믿고 있다.

먼저 정부의 역할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이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여부는 현장의 농업인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농정이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지 못



하는 것은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농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같은 하우스에서 시금치와 취나물이 재배되더라도 시금치에는 지원되는 공동선별비가 취나물에는 임산물이라는 이유로 지원되지 않는 것은 한 예라고 하겠다. 정부는 농촌현실에 맞지 않는 모든 규제·기준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농림부 전직원이 농촌 현장체험과 농가와의 자매결연으로 농촌현장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역할이다.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농업인의 역할인데 이는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평가되는 것이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속에서 검증된 품질과 안전성으로 당당하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국민들의 역할이다. 활발한 소비자운동으로 우리 농산물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감시·계도해 나가고 우리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농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농업 다시보기

서울경제신문 | 2005. 5. 16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로서는 매우 안타깝지만 오늘날 상당수 국민들이 우리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은 사실일까. 과연 우리 농업과 농촌은 경쟁력이 없고 희망도 없는 것일까.

30년 전인 지난 75년. 전국민의 38%인 1,324만명이 농업인구였고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담당하는 산업이 농업이었다. 그러나 현재 농업인구는 340만명으로 전국민의 7%, 농업 총생산액은 GDP 대비 2%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 통계치를 보면 우리 농업은 우리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30년 동안 농업인구는 4배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총생산액은 8배 이상 증가했다. 타 부문의 눈부신 성장 속에 우리 농업의 발전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농업 부문의 생산성 증대는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생산성 증대로 인해 부족의 문제가 과잉의 문제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가격은 낮아지고 농업인들의 소득은 정체됐다.

한편 과잉의 문제는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시켰다. 과거에는 □ 얼마나 먹을 수 있는가□ 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을 찾는 주부들의 손길이 바로 그렇다.



이러한 농업환경 변화와 더불어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그간 농촌은 농업인들의 생활공간이자 농업생산이 이뤄지는 산업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민들의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스스로 적응해나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농업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4천만 국민들의 열렬한 응원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국민이다. 세계는 물론 우리 자신까지도 놀라게 한 한국축구 성공의 요인에는 11명의 월드컵 전사들의 플레이, 지도자의 탁월한 능력 등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붉은 색으로 전국을 물들였던 4천만 국민의 열렬한 응원이었다.

우리 농업문제를 풀어가는 해법도 마찬가지다. 먼저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다.

반도체를 만드는 손만큼이나 우리 농업인들의 거친 손도 너무나 소중한 우리 경제의 자산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농업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기운찬 응원을 보내준다면 월드컵 4강 신화처럼 우리 농업발전에 대한 꿈(★)도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

21세기의 맬서스

서울경제신문 | 2005. 5. 23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는 □ 인구론(人口論)□ 이라는 책을 통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농업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실증자료를 통해 세계는 식량 부족에 직면하게 돼 전쟁·빈곤·질병이 만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두 세기가 지난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농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맬서스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주장이다.

필자도 그의 논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그가 고민했던 문제, 즉 인구와 식량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 안정과 발전의 중요한 요소라는 원칙에 대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한 국가에서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생산 능력의 유지는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농업국가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보자. 지난 97년 동아시아 전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루피아화가 폭락하자 대량실업·경기위축·사회불안이 나타났다. 더 심각했던 문제는 식량 문제였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폭동, 식량 사재기 등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폭등했다. 급기야 식량 배분에 군대가 투입되는 등 통제 불능에 이르렀었다.

반면 한국은 어떠했는가.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쌀값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연이은 대풍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정부 재고량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식량 문제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는 예라고 하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식량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쌀이 모자라면 외국에서 아무 때나 사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세계 곡물시장이 경제학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상정하는 완전경쟁시장이라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 곡물시장은 소수의 곡물 메이저들이 주도하는 독과점 체제로 비상시 곡물을 수입하게 될 경우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멜서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식량의 수요과 공급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멜서스가 초점을 맞춘 것은 수요의 관리, 즉 인구를 줄여나가는 문제였다면 오늘날 중요한 문제는 공급의 관리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식량 공급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일정한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과 비상시에도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다.

이에 참여정부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서 실현 가능한 생산목표를 제시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해 비상시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식량 상황만을 보고 지나치게 낙관해서 농업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토이다. 21세기 한국 사회를 멜서스는 어떻게 평가할까.

많은 농업인이 성공하는 한해로 만들어야

매일경제신문 | 2006. 2. 14

양 손 합해 모두 네 손가락으로 감동의 선율을 전하는 피아니스트 이희아 양부터 차별과 냉대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 하인스 워드□ , 한국이 다시금 세계 최강이라는 점을 일깨워준 우리 동계올림픽 빙상 쇼트트랙팀까지. 우리는 □ 나는 할 수 있다□ 는 긍정의 힘으로 꿈을 이룬 많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개방과 세계화의 파고를 맞고 있는 지금, 농업인 사이에선 교육과 선진 경영을 도입해 □ 희망 농업□ 을 일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방퇴비를 이용해 수익을 늘리는 경북의 한 사과 농장, 일본 시장을 석권한 경남의 파프리카 농장, 흙이 묻은 고구마를 세척 포장해 1.5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전남의 한 농업법인 등 꿈을 현실로 만든 농업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다.

농업에서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과 열정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정부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합쳐질 때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올 한해 정부의 정책은 더 많은 농업인들의 성공과 희망이 움트는 농촌을 만드는 데 모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우리 농업 내부로 눈을 돌렸다. 2004년 농가소득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9.3배에 이른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상위와 하위 사이의 소득격차 5.4배보다 훨씬 더 크다. 농업 내부의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양극화란 소득 측면뿐만 아니라 농업 경쟁력측면에서도 경영능력이 뛰어난 농가와 생계 위주의 농가로 농가 유형의 극단화가 나타나며, 그 중간에 다양한 형태의 농가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제까지는 다양한 농가들에


대해서 규모화 지원, 소득정책, 복지정책 등에서 정책 목표와 수단이 차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최우선 전략으로 선택했다.

맞춤형 농정이란 비교적 대규모인 전업농에게는 컨설팅과 마케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준전업농에는 교육을 통하여 규모화를 유도하고, 고령 중소농에는 복지 소득 정책, 영세농에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좀더 세밀하고 친절한 농정의 기틀이 되는 농가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 농가등록제□ 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전업농, 벤처농업인 등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돈이 되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과 컨설팅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파워브랜드도 집중 육성한다. 농축산업 분야에서 브랜드만 보아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가 탄생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부 농산물과 축산물에서 광역브랜드들이 엄격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키워나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축산분야는 소비자 단체를 직접 참여시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인증할 계획이다. 올해는 모두 80개의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발굴·지원한다. 축산 분야의 우수 브랜드 경영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쌀·과수·채소 등 전체 농산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을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농촌사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된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도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농촌 복합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4개 지구에서 착수하며, 10월 중에는 은퇴자 마을 콘테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DDA협상과 FTA추진도 사전대책과 함께 보다 다각적인 협상전략을 통해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 쌀과라치□ 도 등장한다. 수입쌀 시판으로 인한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별 특별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원산지 단속은 물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동시에 운용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자조금을 활용한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우수브랜드 경영체 규모화도 촉진한다.

위기는 기회이자 희망이다. 시장개방은 우리 농산물과 외국 농산물이 경쟁하게 만들었다. 우리 농업인들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품질, 안전성, 맛에 부응하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농업인,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 한해는 분명 한국농업이 세계 수준의 선진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한해인 것이다.

농업경쟁력, 사람이 핵심이다

매일경제 | 2007. 4. 2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끝났지만 여러 논쟁이 가득하다.

우리 협상단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협상 결과가 어땠든 농업 분야 피해는 불가피하다.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크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협상을 잘해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극복해가는 데 우리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우리 농업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우선 생산기반이 크게 바뀌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논 경지정리율 82.2%, 벼농사 기계화율 89.9%, 수리답률 78%로 이제 소를 몰고 땅을 일군다든지, 농부가 직접 모내기를 하는 광경은 농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보편화하고 있다. 채소나 과일은 제철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됐고 친환경인증제, GAP(우수농산물관리제) 등 안전성 기준 틀 속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 기회를 갖게 되었다. 농업의 규모화도 확대됐다. 쌀 농가 중 5% 수준인 `3ha 이상 전업농`이 쌀 재배면적 중 22%를 담당하고 있고, 양돈 농가 중 24%인 `1000마리 이상 전업농가`가 전체 돼지사육 가운데 78%를 차지한다. 흔히 농정실패 근거로 높은 농산물 가격을 든다. 우리 농산물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가구당 경지면적이 1.4ha인데 아무리 규모화를 하더라도 가구당 경지면적이 176ha인 미국과 가격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농업이 갈 길은 무엇인가. 품질 경쟁력이다.

소득 증가와 웰빙(참살이) 영향으로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가격으로는 힘들지만 품질로 승부할 수 있다. 최근 한우산업이 그 예다. 고품질 브랜드화로 시장 공략에 성공하고 있다. 결국 반도체와 같이 높은 품질을 갖춘 농산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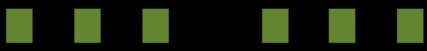
핵심은 사람이다. 농업 개방시대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기술·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농업인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농업대학이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농업대학 졸업생 평균소득이 5990만원에 달했다. 이는 농가평균 가구당 소득(3230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되고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4132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농업대학 졸업생 소득이 높은 것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젊은 농업인들이 고품질·고가 농산물로 승부한 결과다. 정부는 앞으로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을 농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젊고 유능한 창업인력을 발굴하고 연간 5만여 명에게 맞춤형 경영·기술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농가가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경영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30~40% 관세가 국내 농업에 보호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기댈 것은 높지 않은 관세장벽이 아니라 품질이다. 우리 농업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 수 있다. 개방 파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할 때 비로소 우리 농업에 희망이 보일 것이다. 과거 UR, 한·칠레 FTA 때도 우리 농업이 다 망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농업인들은 슬기롭게 극복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극복해 가는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IV



친서

녹색휴가 休~ Green 캠페인

여름휴가, 농산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친서 | 2005. 7. 4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곧 다가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을 전개합니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농산어촌에서 휴가를 보내는 범국민 캠페인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휴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육체적·정신적인 휴식과 생활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휴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휴가를 잘 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수많은 인파에 치인 불편한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여름휴가는 우리 농산어촌으로 가십시오. 지금 우리 농산어촌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이라는 공간이 농림어업인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전 국민의 휴양공간입니다. 도시와 농산어촌은 도·농 교류를 통해 같이 발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입니다. 농산어촌으로 향하는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발걸음은 농림어업인과 농산어촌지역의 희망입니다. 또한 농산어촌 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농산어촌□ 그러면 왠지 불편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 녹색농촌 체험마을□ 그리고 □ 자연 휴양림□ 과 같은 농촌 휴양시설에 다녀오셨습니다. 그 분들은 달라진 우리 농산어촌의 모습과 매력에 크게 놀라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는 선진국에서는, 그 나라의 농산어촌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도 건전하고 알찬 녹색휴가로 새로운 여가문화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 옛 고향의 향수를 만끽하는 곳. 자라나는 세대들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곳. 세대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

바로 우리의 농산어촌입니다.

우리를 맞이하는 농림어업인들의 손은 비록 거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손은 우리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소중한 손입니다. 40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고마운 손입니다. 그분들의 넘쳐나는 인정과 환한 웃음 속에서 농산어촌에서 보내는 휴가. 그것은 분명 휴가 그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휴가. 농산어촌에서 만납시다. 촌 내음이 물씬 풍기는 곳에서 우리 맛있는 먹거리를 함께 나누시다.

우리 모두의 고향 □ 농산어촌□ . 그곳으로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농식품 추석 선물,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추석선물 우리농산물로 보내기 서신 | 2006. 9. 4

안녕하십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번성하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엄청난 폭우로 인해 많은 농업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각계의 온정이 이어져 이제는 안정을 되찾아가고, 농작물 작황도 순조로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추석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다른 선물보다는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농식품을 추석선물로 골라주십시오. 올여름 수해를 이겨낸 우리 농업인에게는 큰 희망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안과 밖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눈앞에는 해결해야 할 수 많은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희망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꿈이 있는 사람이 결국 개방의 거센 파고를 넘습니다. 이제는 우리농업도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엄격한 품질관리와 안전성에 철저를 기하며 친환경적으로 과감히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뿌리인 고향 농촌을 지켜 나가는 일에는 정부와 농업인만으로는 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애정과 손길이 무엇보다도 간절합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



이 밝은 미래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추석에는 우리 농식품을 선물해 주
십시오.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의 □ 열정적 희망□ 을 봅니다

우수농업경영체에게 보내는 서신 | 2007. 1. 16

많은 사람들이 한국 농업의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 농업은 세계적인 개방화 물결 속에서 넘어야 할 많은 도전과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7년 새해 들어 한·미 FTA가 본격 논의되고 있고, 지난 해 일시 중단되었던 DDA농업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어서 농업 쪽에 어려움이 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흔히들 농업은 블루오션(Blue Ocean)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농업에도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의 미래는 우리 농업인들이, 그리고 농업계가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느냐, 얼마나 진취적이고 합리적인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지 한 발 앞서 고민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농업경영혁신시리즈」에서 그 좋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개척자들을 만나 보십시오.

이 책은 우리 농업의 개척자들이 파프리카, 참다래, 새송이버섯 등 세 가지 작목을 발굴하여 고수익·고성장을 이룩한 과정과 그 성공 요인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기까지 주인공들이 겪었던 우여곡절도 생생하게 실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일곱 가지 작목에 남보다 먼저 눈을 돌리고 그 속에서 성공을 꿈꾸는 분들의 남다른 포부와 열정,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생각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발상의 전환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앞서 간파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블루오션을 창출해 내고자 하는 의지와 도전정신이 돈이 되는 농업을 구현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평범을 거부하며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이 분들의 사례가 험로(險路)에 처한 우리 농업에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공사례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변화와 열정적 희망 찾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세 알의 콩을 심는 농부의 마음

이장에게 보내는 편지 | 2007. 3. 20


엿그제 새해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작년 연말과 올 초에 설계하셨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뤄나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농림부에서는 3월 20일 현장의 농업인들과 농산물 소비자 등 농정 고객들을 모시고 참여정부 4년간에 한 일과 올해 할 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농업·농촌 정책도 많은 노력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이 어렵다고 합니다. 농업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인의 처한 현실이 힘겹고 어깨가 무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농업인이 일군 땅이 거짓말을 하지 않듯, 묵묵하게 노력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농부들은 □ 콩을 심을 때 꼭 세 알씩 심는다□ 고 했습니다. 새 한 입, 벌레 한 입, 사람 한 입.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의 하찮은 생명과도 함께 나누며 살자는 것입니다. 콩을 세 알씩 심고 한 알의 수확에 만족하는 농부의 마음을 닮아, 시나브로 그 혜택이 주어지는 희망의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전국의 이장님 여러분!

올해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등 강도 높은 수입개방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농업 분야에도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집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지속되는 반면 도시민의



농촌 휴양 수요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부는 모두 9개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FTA, DDA 등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원 투·융자 계획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맞춤형농정의 기본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농가를 전업농과 중소농, 고령농, 취미·부업농으로 분류해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농가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식품산업과 농업의 동반 성장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공동 발전을 위해 식품산업의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브랜드 시대를 열겠습니다. 농축산물의 브랜드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서 고품질 브랜드로 외국 농산물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더욱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의 적용을 확대하고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경로를 차단하겠습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제도를 내실화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밭 농업, 과

수, 축산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마을—권역—면소재지 등 정주체계에 따라 농촌지역개발 사업체계를 정비해 농촌의 생활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홉째, 활기찬 농촌을 건설하는 것은 도농사이의 교류와 도시민의 농촌유입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도농교류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 활력을 증진하겠습니다.

농림부가 모두 아홉 개의 중점 실천 과제를 세웠지만 이 모든 것이 이장님들의 적극적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 농업인의 절반에 가까운 45.5%의 응답자가 이장님을 통해서 농업정책을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정책을 생산하는 것은 농림부 공직자지만, 그 정책을 꽃 피우는 주인공은 바로 이장님 여러분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전국의 이장님 여러분!

농림부와 농촌정보문화센터는 2007년을 맞아 주요 농업정책이 상세하게 담긴 「농업인 현장수첩」을 제작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 2007 현장수첩 - 현장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업 정책 해설집 □ 을 보내드립니다. 이장님과 이웃 주민들의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미FTA,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

이장에게 보내는 편지 | 2007. 4. 9

□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 쓴다□ 는 농번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마음이 착잡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이렇게 서신으로 대신하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이장님 여러분!

지난 4월 2일, 길었던 한-미FTA 협상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미국측은 그 반대였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측 협상대표단은 계속해서 설득하고 때로는 격론을 벌이면서 우리의 농산물은 가능한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업분야 협상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 농산물은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쇠고기는 관세를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면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측은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조기에 재개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왔으나, 우리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건강에 직결된 사항으로서 이번 협상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우리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켰습니다. 오는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

(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면 8단계의 수입위험 평가절차를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렌지와 포도는 국내산이 주로 출하되는 시기에는 현행 관세를 유지시켜 국내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습니다. 그 외에도 천연꿀, 식용감자, 식용 콩 등은 현 관세를 유지했습니다.

전국의 이장님 여러분!

협상결과를 두고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의견이 분분합니다. 농업인들의 기대에도 많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협상의 상대방이 있다보니 우리측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만 될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품목단체 참여 하에 이번 협상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밀하게 예측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농업분야에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피해는 더 클 수도,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정부와 우리 농업인들이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힘쓰겠습니다. 협상결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갑자기 늘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대상 품목이 키위, 시설 포도에 한정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와 돼지, 감귤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농사를 짓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농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소득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지급 대상, 지급 요건 그리고 지급 수준 등은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해외에



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소농 위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시설 현대화, 우수 브랜드 육성, 새로운 품종 개발,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쇠고기는 수입산과 차별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시작한 한우브랜드의 규모를 키우고 지속적인 가축개량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쇠고기 이력 추적사업을 통해 수입산과 더욱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를 실시합니다.

돼지는 축사 현대화와 질병 발생 억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닭과 오리는 포장유통 의무화 등 유통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신선도와 위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ی겠습니다. 낙농분야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총체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넓히겠습니다.

과실류는 당도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생산과 재배시설의 현대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감귤은 12브릭스 이상의 감귤생산을 위해 다공질 필름, 비가림시설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사과는 키 낮은 사과원, 배와 복숭아는 밀식과원, 포도는 비가림시설의 재배면적을 넓히겠습니다.

식용콩과 감자는 생산 우수단지를 중심으로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들이 농사규모를 늘려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아 농사 짓기가 힘든 분들께서 농사를 그만두시고자 하실 경우,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복지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넷째, 농촌의 활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불편없이 사실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들도 언제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농촌으로 만

들어나갈 것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협상에서 얻은 보호장치를 충분히 활용해 우리 농업·농촌이 피해를 덜 입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6월까지 피해 예측 결과를 토대로 피해 보전장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오는 12월까지 한·미FTA 이행에 대응한 FTA이행지원기금의 규모를 수정하는 등 FTA지원특별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전국의 이장님 여러분

우리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10위권에 이르렀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우리 농업계에 몰아닥친 큰 파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야만 하는 파도입니다. 우리 농업인, 정부가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한·칠레 FTA 등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다. 하지만 우리는 품질고급화, 규모화, 경영혁신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품질과 안전성에서 믿을만 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 들은 수입산보다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번 한·미 FTA도 우리 모두 합심해서 잘 이겨낸다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한국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으로 떠나는 맛있는 휴가

농산어촌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 서신 | 2007. 6. 26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올해는 장마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2005년부터 농·산·어촌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자연으로 떠나는 맛있는 휴가』를 테마로 농·산·어촌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범 정부차원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휴가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이 드는 해외나 수많은 인파가 북적대는 혼잡한 유명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혹시 번거롭고 혼잡하여 여유 보다는 짜증이 앞서는 휴가를 보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번 휴가는 정겨운 산과 바다와 강이 있는 우리 농산어촌에서 보내시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농산어촌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쾌적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생활의 활력을 재충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농산어촌 방문은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미 FTA 등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이 농산어촌을 지키고 계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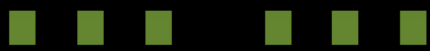
여러분 중에서는 우리 농촌을 불편함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는 분도 계신 줄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농촌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만 찾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농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의 첫 걸음은 바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어촌을 누구나 편안히 머무르고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노후생활을 편리하고 안락한 전원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여름휴가에 농·산·어촌으로 가보시면 그 어떤 휴양지에서도 느끼지 못한 활력과 감동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여름휴가, 우리의 농·산·어촌에서 다 함께 만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터뷰

□ 쌀비준동의안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서울경제신문 | 2005. 9. 11

□ 쌀 협상 비준 동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이) 10년 관세화 유예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로 관세화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 만약 내년에 쌀 협상 비준 동의가 처리된다고 했을 때 과연 상대방 국가가 인정해 주겠느냐□ 고 말한 뒤 □ 비준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전개될 DDA 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며 이번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관세화로 가게 되면 국가간 계약 위반 못지않게 국내 쌀 산업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 정부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쌀 협상 시작 전부터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며 □ 최근에는 농민 단체들이 추가 보완대책을 요구, 이들과 간담회를 갖고 20개의 핵심 건의 사항을 선정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 임기 중에 희망이 있는 농촌 건설에 주력하겠다□ 며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지원 못지않게 □ 국민의 관심□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힘주어 말했다.

이용용 경제부장 : 한·칠레 FTA 협상 비준 동의 때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쌀 협상 비준 동의도 순탄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박홍수 장관 : 한·칠레 FTA 때는 처음이었고 상대 국가가 칠레 단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쌀 협상은 다릅니다. 한개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와 맺은 국제적 약속입

니다. 이번 9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대외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렵게 따낸 10년 관세화 유예도 지키기 힘들게 됩니다. 쌀 협상 비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용용 경제부장 : 일부에서는 올 연말 DDA 협상 결과를 본 뒤 비준 동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홍수 장관 : DDA 협상 결과를 보고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선 DDA 협상은 언제 종료가 될지 불확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DDA 협상 이후로 비준 동의안 처리를 미루지는 못합니다.

또 DDA 협상 때 쌀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이 불리해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DDA 협상에서 농산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준안 미 처리를 이유로 상대방 국가가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용용 경제부장 : 쌀 협상 비준 동의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 하셨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대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은 있으신지요.

박홍수 장관 : 정부도 농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 선 대책 후 비준□ 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향후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 2013년까지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업인들이 추가 보완대책을 요구,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20개의 핵심 건의사항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웅 경제부장 : 농민들의 건의 사항 중 추가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박홍수 장관 :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호금융 대출금은 현재 5조9,000억원 입니다. 이를 2006~7년에 일시에 상환해야 됩니다. 농민의 총 수입이 22조원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정해진 기간에 다 갚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부처간 의견 조율이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웅 경제부장 : 쌀 협상 비준 문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농촌의 현실로 화제를 돌려 보겠습니다. 농촌 역시 도시 못지않게 소득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박홍수 장관 : 그렇습니다. 양극화는 도시 보다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통계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상·하위 소득 격차가 무려 10배에 이릅니다. 아울러 농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6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웅 경제부장 : 고령화·양극화 못지않게 식량주권 역시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 체제 하에서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박홍수 장관 : 평상시 1년에 2,000만톤의 곡물이 소비됩니다. 이 중 600만톤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1,400만톤은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인 쌀은 자급(자급률 98%)되고 있으나 곡물의 자

급물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식량 문제는 예산이 아무리 들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의 책임인 데요. 이의 일환으로 적정 수준의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용용 경제부장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홍수 장관 : 올 연말까지 우선 주요 곡물에 대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국민들에게 제시할 계획입니다. 농업계·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후 자급률 목표치를 내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식량자급률위원회에서 관련 쟁점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달성해야 될 과제는 아닙니다.

이용용 경제부장 :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자급률 목표치 설정 외에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박홍수 장관 :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골프장 등을 유사시에 눈·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유사시 농지 활용은 관계부처가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입법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용 경제부장 : 정부가 해결해야 될 사안 중 하나가 농정의 불신이라고 봅니다. 불신의 골이 깊은 원인은 무엇인지요.



박홍수 장관 : 농업·농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정부가 지원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불신의 원인은 농업현장과 맞지 않은 정책 추진과 일관성·지속성 결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업인들과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입니다.

이용웅 경제부장 : 그렇다면 농정의 책임자로 불신의 골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입니까.

박홍수 장관 : 저는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농업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과 규제를 원점에서 재 검토,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이 된 후 농정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들에게 직접 편지도 쓰고, 주 2~3회 정도 직접 현장으로 가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도 듣는 등 장관인 제 자신부터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과 신뢰를 쌓아가고 농업·농촌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용웅 경제부장 : 올 가을부터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는 데요. 올 수확기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박홍수 장관 : 40만톤의 국내산 쌀 북측 제공으로 올해 말 재고는 적정 재고를 약간 웃도는 670만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준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경우 평년작이 된다면 약 3,300만섬 수준이 생산되어 수확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우려가 있어서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 물량을 당초

계획 보다 100만섬 많은 400만섬으로 늘려 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 예견되는 상황을 모두 가정해 놓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웅 경제부장 : 새로 도입될 제도 중 농지은행제도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데요. 이 제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박홍수 장관 : 농지은행 제도는 시장의 안정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농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지 정보관리 및 제공, 수탁관리,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농가부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6년도 예산확보 및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용웅 경제부장 : 끝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묘안이 있다면.

박홍수 장관 : 잘사는 농촌. 저는 이를 □ 희망 찾기□ 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선 돈 보다 국민적 관심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올 여름 전 개했던 농촌 여름 휴가 보내기 운동 결과 농촌 관광객이 30% 증가했습니다.

밥 한 공기만 더 먹으면 100만섬의 쌀 소비가 늘어납니다. 부족한 농가 수요를 기계로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 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쌀 협상비준동의안의 타결과 대책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 2005. 11. 23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쌀협상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이미 결사저지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 대표들도 오늘 오후에 국회 본청에 있는, 어제 오후죠. 국회 본청에 있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점거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다음 달 13일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각료 회의에서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오늘 아침에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농산물 관세 상한선 설정 등에 합의를 볼 것으로 알려졌던 세계무역기구 홍콩 각료회의, 이게 좀 난항을 겪을 거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로포드 팔코너 세계무역기구 농업위원회 의장이 중재안 마련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확인해보셨지요?

박홍수 장관 : 어제께 저녁 한 8시 경 전문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수준이 미치지 못한 여태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그냥 마련해 놓은 식으로 그렇게 의장 초안이 나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손석희 앵커 : 그 얘기는 협상이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박홍수장관 : 맞습니다.

손석희 앵커 : 이게 우리 농민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왜냐 하면 농민들은 그동안에 홍콩각료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비준안 처리는 연기하자, 그때에 우리가 좀더 유리한 입장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비준안 처리는 유보하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박홍수 장관 : 예, 맞습니다.

손석희 앵커 : 그렇다면 농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고 판단하시나요?

박홍수 장관 : 네, 그렇습니다. 홍콩 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국회비준을 하자 하는 주장들은 농민단체나 야당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그것이 어려울 것이다, 논의돼 가는 과정이나 그동안에 각 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12월 18일 날 DDA 협상이 세부적인 사안까지는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께 저녁 8시 경 초안이, 이걸 초안이라기보다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 형태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12월 18일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우리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힘든 그러한 불확실성이 계속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런데 장관께서 보시기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불확실이란 단어를 쓰셨습시다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입지가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는가,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좀 거꾸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세계 각 국의 이해관계가 계속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박홍수장관 : 국제협상장은 아주 냉정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서로가 뜻을 같이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서로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갈 길

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회비준안 문제는 사실상 지난해 연말에 끝난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WTO 협정이 끝난 것이고 그것을 금년 안에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1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혹 홍콩 각료회의 끝나고 그 결과가, DDA 협상 결과가 지난 번 쌀 협상 결과보다도 만약에 좋다 라면 우리가 관세화로 갈 수 있는 권리도 우리가 이미 지난해 쌀 협상 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을 만에 하나 DDA 협상 결과가 지난 번 쌀 협상보다도 못하게 나오면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없죠.

손석희 앵커 : 그런데 한 가지만 여기서 확인 차 여쭙보겠는데요. 이번에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바로 관세화로 가는 겁니까?

박홍수 장관 : 그렇습니다.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 라고 많은 국제 관계법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손석희 앵커 :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학자들은 꼭 그렇게 관세화로 의무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던데요?

박홍수 장관 : 같은 사안을 두고 분명히 글로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보는 시각 차가 참 크다 하는데 대해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국회 국정조사 두 달 동안 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시나 많은 전문가들 토론에서 이미 검증된 사안입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러니까 자동관세화로 간다는 것이 검증된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홍수 장관 : 예.

손석희 앵커 :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문이 남는 것ですよ. 자동관세화 간다는 것이 명문화 돼 있다면 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그걸 꼭 검증까지 해야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자동관세화에 대해서 100%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박홍수 장관 :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 안에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관세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국제법을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이 결론적으로 유권해석 같은 걸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손석희 앵커 :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박홍수 장관 : 다른 나라에서는 1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하고 또다시 10년 더 유예하고 두 번까지 이렇게 유예한 예가 없죠.

손석희 앵커 : 예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동관세화로 갔던 일도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박홍수 장관 : 아니, 그게 아니고 1994년도 WTO 체제가 출범하고 10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난해 연말에 끝이 났습니다.

손석희 앵커 : 그 말씀은 아까 하신 말씀이고요.

박홍수 장관 : 금년도에 우리가 자동관세화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쌀 산업이 아직 취약하니까 관세화 유예를 10년 동안 더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005년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항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 연말 협상할 때 아직까지 우리는 자동관세로 가기 힘들겠

다, 앞으로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얻어서 그 10년 동안 우리 쌀 산업을 체제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손석희 앵커 : 장관님 여기에서 쟁점은 말이죠. 또 한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쌀 의무 수입률, 이것을 점차적으로 높여 가는 것이 유리하느냐, 아니면 차라리 관세화 해버리는 것이 유리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따로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수 장관 : 예, 맞습니다.

손석희 앵커 :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지금 각 국의 쌀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홍콩각료회의에서 여전히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논쟁 중이라는 사안이라면 우리의 입장도 그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꼭 국제관계가 냉정하다 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좀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농민들 사이에 분명히 있다는 것은 아실 테고요.

박홍수 장관 :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다면 연내처리를 강행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 셈이거든요.

손석희 앵커 : 우리가 연내 처리해야 할 문제는 이것이 지난해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금년 2005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농업정책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이미 우리가 1월 1일부터 금년도에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DA 협상은 DDA 협상대로 가고 지난해 연말에 협상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이행해야 됩니다.

박홍수 장관 :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 : DDA 협상과는 별개로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손석희 앵커 : 제가 이 자리에서 농민들의 입장을 100% 대변하는 입장은 아닙니까 다만 문제제기 차원에서 계속 질문을 드린 셈인데요. 정부의 입장은 늘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드려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렇다면 이 질문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추곡수매제의 어떤 한시적 시행 여지, 이걸 생긴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홍콩각료회의에서 어차피 결론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추곡수매제를 한시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박홍수 장관 : 추곡수매제가 갖는 기능이 크게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1948년도에 처음 시행됐죠. 시행됐는데 추곡수매제가 갖는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확기에 물량을 일시적으로 많이 홍수 출하될 때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또 곡물, 쌀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정해주는 그런 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쌀 산업 수준이 알지 않습니까. 국제 곡물가격에 네 배, 다섯 배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시장에서 전혀 시장 경쟁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농가소득은 정부가 소득보존제로 확실하게 보존해주고 우리 쌀 시장에서는 외국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의무수입 물량이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2~3년 안에 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해서 개방을 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우리 시장에서 바로 외국쌀과 싸움을 해야되는데 그런 경쟁력을 갖지 못하죠.

손석희 앵커 : 소득보존에 대표적인 예로 소득직불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헥타르당 60만 원인데 농민들 요구는 최소한 130만 원은 돼야 된다는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애긴지요?

박홍수 장관 : 현재 우리 농민들이 받는 직불금 자체가 외국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에 헥타르 당 70만 원으로 주기로 이렇게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결정을 봤습니다. 현재 또 국회에서 80만 원까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인 예산 틀 속에서 다뤄질 것이고 기본적으로 농가들의 소득 보존해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쌀소득 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가 있는데 직불제가 올라가면 자연히 변동직불제는 적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높인다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직불금은 반드시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직불금이 높아가니까 땅 주인들이 이것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 장치로서 막아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죠.

손석희 앵커 :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득보존의 방법은 소득직불이든 아니면 변동직불이든 바로바로 대책을 미흡하나마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관세화로 갔을 경우에 결국은 우리 농촌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애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대책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박홍수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 개방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2003년도에 이미 앞으로 10년 간 우리 농업이 가야 될 장기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119조 투융자 계획이죠. 그리고 정부는 선대책 후협상입니다. 어차피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농업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그런 체제 강화의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119조 투융자 계획을 앞으로 10년 동안 세워 가지고 현재 아주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119조를 투입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박홍수 장관 : 농촌에 119조 투융자 계획을 세워서 지난 1994년 이후에 42조나 그러한 부분들은 농촌 경지 정리나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데 대부분 다 쓰였습니다. 앞으로 119조 투융자는 기존 지난번에 투입했던 42조의 인프라 외에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농촌, 농민들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집중 투입하게 됩니다.

손석희 앵커 : 42조 원 들어갔던 것이 과연 농업 인프라 구축에 제대로 쓰였는가 하는 데 대해선 역시 논란이 많던데요?

박홍수 장관 : 일부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투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농촌의 모습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아무리 가물어도 가뭄 때문에 농사 짓지 못하는 경우가 없고 아무리 큰 홍수가 쳐도 홍수 때문에 농사를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것이 당장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아닌데 그런 측면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석희 앵커 :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119조 원은 어떻게 유효하게 잘 투자해 가지고 농촌을 살려낼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여전히 논쟁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수 장관 :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119조 문제는 현재 우리 농업문제나 농촌

문제나 농민문제나 농림부 혼자 만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 부처가 종합적으로 각 분야에서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희 앵커 :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의 부서 명칭에 식품을 넣어서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신 바가 있죠. 박 장관님께서.

박홍수 장관 : 그것이 지난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제가 농업인들에게 격려인사를 할 때 나온 말입니다. 농림부가 DDA 협상이나 WTO 이런 체제 속에서 진화된 환경 속에서 적응하려면 이름까지 포함한 모든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많은 기자 분들이 마치 식품 자체도 농림부가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와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러면 명칭을 식품을 어차피 넣으면 뭐랄까요. 업무분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텐데 예를 들어서 식품문제는 식약청을 일원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걸로 알고 있던 말이죠.

박홍수 장관 :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요. 어쨌든 식품문제는 우리가 식품 불안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발생했는가 하는 근본부터 우리가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앵커 :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식품문제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한다 라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박홍수 장관 :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러면 이 부분은 농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박홍수 장관 : 부딪히기보다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정부측끼리 협의를 해서 부처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우리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러니까 박 장관님 생각은 여전히 농림부에서 식품까지 가져와서 식품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홍수 장관 : 그렇죠. 우리가 농사에서부터 식탁까지, 일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이 부분도 역시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업 국제경쟁력 키운다

코리아 플러스 | 2005. 12

지난 11월26일 오전,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 2005 서울 쌀 박람회 및 발효식품전□ 을 관람했다. 이날 노 대통령과 박 장관은 우리 농촌에서 생산한 고품질 쌀인 □ 탐 라이스□ 를 시식했다.

박 장관이 쌀 박람회를 관람하던 시각 농민들은 쌀 협상안 국회 비준에 항의하며 거센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농림부 장관이 쌀 박람회에 참석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박 장관은 □ 농림부 장관으로서 쌀 박람회 참석은 당연한 일□ 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과거 농림부 장관 같으면 농민단체들을 달래느라 눈치를 보면서 노심초사했을 법한데 박 장관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다.

박 장관의 이런 소신과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는 그가 농민 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해설이 따라붙는다. 사실이 그렇다. 박 장관은 경상대 농대를 졸업한 후 ROTC 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다. 그 후 그는 줄곧 고향인 경남 남해를 지키며 농민운동에 뛰어들었다. 1992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남해군연합회장을 맡은 이래 경남도연합회장과 중앙회장을 지낸 경력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그 이전에 그는 마을 이장도 하고 새마을지도자도 맡았다. 그래서 그는 정부 각료 중에서 농촌과 농민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첫손 꼽힌다.

한농연 회장 시절이던 2000년, 그는 □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전국농민대회□ 를 열어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 또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역설해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때문에 그가 2005년 1월5일 농림부 장관에 취임했을 때 농민단체들은 □ 농민단체 출신의 첫 각료□ 라면서 대부분 환영 논평을 낸 바 있다.

이런 이력 때문인지 박 장관은 쌀 협상 이후 한국농촌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지난 11월28일 정부과천청사 농림부 장관실에서 만난 박 장관은 □ 한국농업을 국제시장에서 뒤지지 않도록 경쟁력 있게 발전 시키겠다□ 며 자신감을 보였다.

최영재 기자 :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후 이행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박홍수 장관 : 2005년도에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 물량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제 구매입찰 절차부터 국내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 쌀은 올해 안에 들어와야 하나 실무 절차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연내 통관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제무역기구(WTO)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개정 이후 12월 초·중순께 쌀 입찰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해외 가공과 해상운송을 거치면 내년 3월부터 수입쌀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최영재 기자 :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비준 이후 후속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홍수 장관 : □ 선 대책 후 협상□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농림부의 쌀 협상 대책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쌀 협상 비준 이후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미 마련한 대책을 다시 검토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농림부 안에 쌀산업 대책 보완을 위한 □ 태스크포스□ 를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부 장관 주재로 농민단체 대표 워크숍을 열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농업 종합대책 및 119조 원 투·융자계획은 2006년중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보완조정할 것입니다. 농업대책이라는 것이 부동산 대책처럼 바로 다음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3~4년 정도 지나야 빛을 받습니다.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최영재 기자 : 내년 3월부터 수입쌀이 시판된다고 하는데, 연도별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박홍수 장관 : 협상안에 따르면 10년간 관세화를 유예받습니다. 대신 수입쌀을 올해에는 22만5,000톤에서 점차 양을 늘려 2014년에는 40만8,000톤을 수입해야 합니다. 올해 의무 수입량은 내년 수입물량과 함께 한꺼번에 들여올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수입쌀은 전량 가공용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직접 시판합니다. 시판하는 수입쌀은 올해 들여올 쌀 중 10%인 2만3,000톤(전체 수입쌀의 10%)에서 2014년 12만2,000톤(30%)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시판 물량 2만3,000톤은 올해 국내 식량 소비량 393만 톤에 견주면 0.6% 수준입니다.

최영재 기자 : 수입쌀의 시중 판매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박홍수 장관 : 토론회와 전문가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 백미로 수입할 계획입니다. 수입쌀은 공매 형식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수입쌀이 처음 시판되는 만큼 쌀의 국내 유통 관리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업자 자격은 매출액이나 자본금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입니다.

최영재 기자 : 국내 쌀 시장에 수입쌀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박홍수 장관 : 소비자에게 시판되는 수입쌀 물량은 그 자체만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국내 소비량의 0.6%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향은 미미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심리적 우려가 큼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 실천하겠습니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은 수입이익금(mark-up)을 부과함으로써 비슷한 품질의 국내산 쌀값 수준에서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입이익금은 쌀소득 보전 변동직불기금에 납입할 계획입니다. 수입이익금이란 공매 낙찰가격에서 수입 및 공매비용을 뺀 것으로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WTO에서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최영재 기자 : 쌀 협상 비준에 대해 농업인들의 반발이 매우 거셉니다.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박홍수 장관 : 농정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시위가 거세지면서 서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쌀 협상 비준에 대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쌀 협상 비준은 우리 쌀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막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준이 더 늦춰져 협상 상대국들이 WTO에 제소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렵게 얻어낸 1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는 무효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 경우 쌀시장의 전면개방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영재 기자 :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농촌에서 벼농사만큼은 이제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박홍수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쇠고기·돼지고기도 품질만 좋으면 훨씬 비싼 가

격에 팔립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80kg짜리 한 가마를 35만 원에 내놓더라도 안전하고 품질만 좋으면 얼마든지 소비됩니다.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이런 쌀을 생산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이런 쌀을 생산할 전업농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직후인 1994년부터 육성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6ha 정도의 넓은 농지를 경작하는 쌀 전업농 7만 가구를 키워 쌀 농사를 전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최영재 기자 : 아무리 쌀 전업농을 키운다고 해도 미국산 쌀과 중국산 쌀에 대적할 수 있을까요?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박홍수 장관 : 우리 쌀산업은 아직 국내외 가격차가 크지만 외국의 최고급 쌀에 견주어 품질을 높일 여지가 많습니다. 이제는 쌀도 안전성과 맛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화학비료·농약 사용을 2014년까지 40% 줄이고 품종 선택부터 최종 유통과정까지 고품질 쌀을 생산·유통하기 위한 단계적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쌀이 관세화되더라도 쌀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쌀을 안정적으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산 쌀값이 적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도입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면서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최영재 기자 : 말씀하신 쌀 전업농은 최근의 농민 시위에도 별로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이런 대열에 끼지 못하는 경쟁력 없고 가난한 농업인들이 아닙니까? 이는 농촌의 양극화 문제와도 연결되는데요.

박홍수 장관 : 사실입니다. 한국 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민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조율해도 농업인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

이 없습니다. 도시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돈이 되는 농사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대규모 농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네덜란드를 보십시오. 25만 명의 농민이 한 해에 500억 달러어치 농산물을 수출합니다. 네덜란드의 농업환경은 한국보다 더 열악한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에서 □ 힐 브링크라 □ 는 농업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초빙해 네덜란드 농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영재 기자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수 장관 : 거듭 말씀드리건대 벼농사는 주곡 개념으로 계속 유지하겠지만 우리 농촌도 이제 돈이 되는 농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바뀌면 농촌도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경남지역의 일부 앞서가는 농업인들은 일본으로 한우 고기를 수출해 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경남 함양의 농업인들은 버섯을 중국으로 수출해 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버섯은 재배 기술과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이 훨씬 높은데도 말입니다. 네덜란드 등 유럽은 이미 20~30년 전부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영재 기자 : 그렇지만 현재 농업인 대다수는 이런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할 수 없는 고령자입니다. 또 극빈자가 많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적용될까요?

박홍수 장관 : 그래서 정부는 이런 농촌 고령자와 극빈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촌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는 농민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농촌은 전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교육·의료·환경·문화 등 전반에 걸쳐 정부의 15개 부처가 한꺼번에 이 사업에 뛰어듭니다.

최영재 기자 : 국회에서 통과된 쌀 비준안은 농민단체들의 주장대로 쌀시장 개방

을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로 유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농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추곡수매제 폐지가 겹치면서 쌀값이 많이 떨어진 탓으로 보입니다. 하락한 쌀값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박홍수 장관 : 최근 산지 쌀값은 지난 11월25일 현재 13만9,112원(80kg)입니다. 지난 수확기 16만1,630원(80kg)에 견주면 13.9% 낮은 수준이고 금액으로는 2만 2,5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쌀값이 그동안 내린 이유는 지난해 쌀이 많이 생산돼 묵은쌀이 많이 유통되고,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불안감으로 시장이 늦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확기 벼 총매입도 1,000만 석 이상입니다. 지난 11월5일 이후 조곡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시장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수확기 산지 쌀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비축 물량을 애초 300만 석에서 400만 석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올해 말 쌀 재고량을 애초 1,060만 석 수준에서 대북 지원에 따라 672만 석으로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정부 일반공매를 축소(100만→40만 석)하고, 2006년에는 정부 일반공매를 지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농협 재고 63만 석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했습니다.

최영재 기자 : 최근 정부의 쌀 협상이 실패작이라는 말이 다른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쌀 협상을 벌여 7년 관세화 유예를 받으면서 5.8%를 의무수입하기로 한 필리핀에 견주면 한국이 수입물량 3만5,000톤을 더 많이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협상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홍수 장관 : 우리의 경우 10년 동안 추가적인 관세화 유예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의무수입 물량은 최종연도까지 국내소비량의 7.96%까지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7년의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확보했습니다. 필리핀의 의무 수입량은 처음부터 최종연도까지 국내소비량의 5.8%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무수입 물량을 소비량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7년간 총수입

량이 200.5만 톤이며 필리핀은 7년간 총 245만 톤입니다. 전체 소비량과 견주면 한국은 39%며 필리핀은 41%입니다. 우리나라가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영재 기자 : 그런데 농민들은 관세화나 유예조치보다 농업이 근본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 10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수 장관 : 이 10대 요구사항 대부분은 이미 지난 6월 농민단체들이 제기한 64개 정책건의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농민단체와 네 차례 합동간담회를 통해 이 가운데 20개 핵심 건의를 선정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8월17일, 10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20개 핵심 건의 중 18건을 수용한 추가 지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2001년 지원한 상호금융 저리지원자금 5조 9,000억 원의 상환을 연기했습니다. 또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인상했습니다(60만 원/ha→70만 원). 뿐만 아니라 농업인 정책자금 금리도 인하했습니다(4→3%). 농지구입자금 금리도 내렸습니다(3→2%). 또한 농민단체들의 주장 중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설정하는 문제는 「농업농촌기본법」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농업통상협상에 농민단체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대북 관계, 식량수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대북 쌀 지원 법제화는 곤란합니다. 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도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어렵습니다.

최영재 기자 : 농민단체들은 각종 농업통상협상에 농민대표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박홍수 장관 : 이번 쌀 협상은 협상 전 준비단계, 협상 진행 단계, 협상 종료 후 단계에서 각각 전문가·농업인·국회·정부 등이 참여해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



다.

그래서 관세화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고, 국제 협상을 통해 그 결과를 따낸 것입니다. 협상에도 농민단체 대표가 동행해 협상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협상 과정에 농업인 대표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현지 협상에도 농민대표들을 동행해 주요국 대사들과 면담을 통해 농업인들의 입장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추진과 대책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 2006. 2. 23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바가 있는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협상이 아마 타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요구사항이 정부로 전달이 되고 있고 이것이 압박으로 작용하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된다. 또 뼈 없는 쇠고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대해서 다시 열어주긴 했습니다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한도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관세, 비관세 장벽도 철폐해야 된다, 심지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 도입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담배시장의 완전 개방도 물론 거론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피해는 농업에서 발생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그런 노력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달부터는 주식용 쌀, 밥상에 오르는 쌀이 당장 수입이 되는데요. 처음으로 수입되는 거죠. 벌써부터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석희 앵커 : 우선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농산물의 경우에 최대한 예외 품목으로 인정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가능할지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보자면 한국하고 FTA 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신경 쓰고 있고 또 이익을 낼 수 있는 주된 분야가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농산물이 아니겠습니까?

박홍수 장관 : 예, 맞습니다.

손석희 앵커 :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특히 지난번엔 쌀은 좀 제외하도록 하겠다 라는 의견을 내신 바가 있기 때문에.

박홍수 장관 : 맞습니다. 미국과 FTA 협상에 있어서 미국도 미국 정부의 원칙이 있었지만 우리도 우리 정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쌀 시장은 개방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그러한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든 쌀 시장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나는 말이죠.

손석희 앵커 : 그런데 이미 쌀은 협상을 통해 가지고 10년 간 관세화 유예 조치는 인정받은 바가 있는데요.

박홍수 장관 : 예, 맞습니다.

손석희 앵커 : 이걸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관세화 유예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홍수 장관 : 미국과 지난 2004년도에 쌀 관세화 유예를 맺은 것은 그대로 지속되죠.

손석희 앵커 : 그러면서 다시 FTA 협상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게 둘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유무역협정에서 쌀 시장 개방을 일정부분 물러서게 된다면 관세화 유예 조치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없는 걸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홍수 장관 : 새롭게 FTA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다시 협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번 쌀 협상을 맺은 바대로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런데 과연 FTA 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쌀 시장의 완전개방인 것 같은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어떤 묘책이 있는 건가요?

박홍수 장관 : 그렇습니다. 쌀 시장을 미국 측이 이슈화시킬 경우에는 아마 미국의 협상 전략은 이미 알려진 대로 예외 없는 관세철폐 아닙니까? 우리 협상전략 또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민감품목은 반드시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지난 날 많은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맺을 때 미국의 민감한 품목들을 제외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우리가 들고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 한 20여 개 국가와 협상을 맺었는데 그 협상 맺은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우리의 민감한 품목은 반드시 제외시킨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그걸 제외시키려면 다른 걸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요?

박홍수 장관 : 어차피 우리 농업 부분이 피해가 클 것이다 하는 것은 많은 학자분들이나 미국도 입증하고 우리 또한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예외 없는 무관세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정부 부처나 다 같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런데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좌우지간 쌀 개방은 막아보겠다 라는 말씀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말씀해주신 바가 없

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확실한 답을 주실 순 없습니까, 지금?

박홍수 장관 : 쌀 시장을 확실히 막는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죠.

손석희 앵커 : 물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쌀 시장 개방은 막은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럼 그쪽의 예는 어떻게 해서 쌀 시장을 막았습니까?

박홍수 장관 : 어느 쪽 말입니까?

손석희 앵커 : 유럽이요.

박홍수 장관 : 유럽은 또 우리하고 경우가 틀리죠. 유럽은 유럽시장에서 쌀이 차지하는 그러한 비중과 우리 농업 시장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틀리기 때문에 유럽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석희 앵커 :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홍수 장관 : 유럽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하고 우리는 쌀이 우리농업 소득의 약 50%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쌀을 보는 시각 자체가 유럽이 보는 것과 우리가 틀리다, 이런 뜻이죠.

손석희 앵커 : 제가 드린 말씀은 유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개방을 막았다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막았는데 우리는 더욱더 막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박홍수 장관 : 아니죠. 유럽은 쌀 시장을 어떻게 막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정부의 기본원칙이 모든 협상에서 쌀 시장만큼은 막는다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손석희 앵커 : 외교통상 쪽의 생각은 다르지 않을까요?

박홍수 장관 : 외교통상부 쪽에서도 우리 농업 시장에서 쌀의 민감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쌀 시장 개방을 막는다는 것은 어느 수준에서 막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홍수 장관 : 수준은 이미 우리가 TRQ 물량이라든지 MMA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난번 2004년도에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에서 막는다는 것이죠.

손석희 앵커 : 물론 이게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다 말씀하시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막겠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박홍수 장관 : 예.

손석희 앵커 : 주식용 쌀이 새달부터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박홍수 장관 : 맞습니다.

손석희 앵커 : 벌써부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쌀이 주식용으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포장 같은 걸 바꿔 가지고 국산용 쌀로 둔갑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업자 분들을 미리부터 의심하는 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그런 예를 하도 많이 봐와 가지고 그런 우려가 벌써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는지요?

박홍수 장관 :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가져와야 할 물량은 지난해 가져오지 못한 물량하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2만 2천 5백톤 정도가 우리 시장에서 소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수입 형태가 공공... 형태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통회사를 통해서 취급됩니다. 그리고 시판의 형태는 미국 현지에서 포장이 된 그런 형태로 와서 우리 시장에 직접 판매하게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 포장지를 바꾼다든지 다른 쌀과 섞어서 다시 판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없도록 조치를 이미 취해놓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어떤 조치를 취해놓으셨는지요?

박홍수 장관 :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강하게 규정을 합니다. 도정공장을 가진 업자들에게는 입찰할 자격을 주지 않고,

손석희 앵커 : 거기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박홍수 장관 :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해서 이미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그런 업자들만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손석희 앵커 : 그 선정과정이 끝났습니까?

박홍수 장관 : 선정과정이 지금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달 중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석희 앵커 : 이 달 중으로 끝나야만 되겠죠. 왜냐 하면 다음 달부터 수입이 되니까요.

박홍수 장관 : 그렇죠. 맞습니다.

손석희 앵커 : 쇠고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미국의회 쪽에선 계속해서 쇠고기의 완전시장 개방을 물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광우병 때문에 그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부분, 주로 등뼈 계통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포함된 고기는 안 된다, 일본에서는 이게 섞여서 들어온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다시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만일에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에 쇠고기 수입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러한 최소한의 제한보호 조차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홍수 장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문제는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한미쇠고기수입 위생조건 협상을 지난번에 했죠. 거기서 우리는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허용을 했고 이미 이걸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재 협상결과를 마치고 보니까 뼈 있는 갈비를 한국에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미국 생각이 아닐까. 그러나 그건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 쪽에서 이 얘기를 들고 나와도 상대를 안 하겠다는 얘긴데요.

박홍수 장관 : 맞습니다.

손석희 앵커 : 가능하겠습니까?

박홍수 장관 : 이미 협상이 끝난 것입니다. 이진.

손석희 앵커 : 그런데 FTA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압력에 들어온다면, 즉 우리의 공산품이 손해를 보는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당연히 통상외교 쪽에서는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좀더 유연한 입장을 취해달라고 농림부 측에 요구하지 않을까요?

박홍수 장관 :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농림부 또한 농민들의 소득을 지켜주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끝난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나간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손석희 앵커 : 굉장히 장담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한 자세가 협상에서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좀 다른 질문인데요. 지방선거 출마설이 있으시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지금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경남지사 출마설이 들리던데요.

박홍수 장관 : 예, 밝힐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계에 관한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 푸는 게 우선이고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도 없고 또 그러한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희 앵커 : 특히 이제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꼭 좀 나가야 된다 라는 압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박홍수 장관 : 아직까지 그러한, 언론 상에서만 제가 봤지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들은 적도 없고 상황도 우리 농업계 상황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손석희 앵커 : 나가실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박홍수 장관 : 예.

손석희 앵커 : 알겠습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내우외환 한국 농업□ 의 희망

매경 이코노미 | 2006. 4. 5

한국 농업이 위기라는 데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장 쌀 협상안 비준 에 따라 □ 밥쌀용□ 쌀 시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쌀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농민들에게는 치명타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51)은 이런 내우외환(內憂外患) 속에서 한국 농업의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

2005년 1월 4일 취임 이후 1년 2개월째를 맞고 있는 박 장관은 □ 올해가 한국 농정(農政)의 큰 틀이 바뀌는 원년이 될 것□ 이라며 □ 맞춤형 농가 지원을 통해 국내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바꿔 가겠다□ 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 집무실 화분에는 주무부처답게 이미 철쭉이 피어 있었고 구석의 실내용 화단에는 갖가지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인터뷰가 있던 3월 22일은 밥쌀용으로 시판되는 미국산 수입쌀이 부산항 감만 부두를 통해 국내에 처음 들어온 날이었다.

노성호 부장 :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홍수 장관 : 농업 특수성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쌀과 같은 민감 품목은 반드시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돼야죠. 미국은 멕시코나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일부 낙농제품에 대해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활용해 협상의 묘를 살려야죠. 농민들도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어느 정도 개

방하지 않고는 협상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개방이 들어오는 문만 열린 게 아니라 나가는 문도 열렸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기회로 판단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성호 부장 :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 농촌사회 안정화기금□ 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박홍수 장관 : 시장 개방으로 농업 부문 특히 농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시장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쪽이 피해를 보는 쪽을 지원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 농촌사회 안정화기금□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아직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나 FTA 확대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죠. 재원 확보 방안과 기금 용도, 지원 대상과 운영 방안은 협상 동향을 살펴가며 구체화할 생각입니다.

노성호 부장 : 한국 농업이 체질개선 노력은 없이 정부 지원에만 너무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 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지난 10년 동안을 □ 한국 농업의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홍수 장관 :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농업은 정말 많이 변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농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었어요. 도약을 위해서는 몸을 움츠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장 농촌에 가 보세요. 지금 농촌은 기계화, 자동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요. 용수(用水)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가물어서 농사 못 짓는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축산 시설도 몰라볼 정도로 과학화, 현대화됐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 한국 농업의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표현에 목소리를 높였다. 부지런히 체질개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라이트급 선수를 헤비급 선수로 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노성호 부장 : 그러나 그만큼 체질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업이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홍수 장관 : 그 말에는 공감합니다. 무역환경 변화에 대처가 늦습니다. 과일 농사로 제대로 결실을 보려 해도 2~3년씩이나 걸리는 등 자본회전율도 느립니다. 농민들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쌀 전업농 평균 나이는 50대 중반이에요. 신규 진입은 아시다시피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시장에서 부대끼며 경쟁하는 훈련도 덜 돼 있습니다.

노성호 부장 : 그래서 □ 맞춤형 농정□ 을 들고 나오셨군요.

박홍수 장관 : 지금까지 정책은 주로 전체 농가의 평균에 맞춰져 왔습니다. 이런 정책은 시장 개방이나 농업 내부의 양극화 등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죠. 당장 농업소득 상위 25% 와 하위 25%의 연 소득 격차는 10배에 달합니다. 도시지역 양극화보다도 훨씬 심한 상황이죠. 맞춤형 농정은 농가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정책 목표를 각 농가에 맞게 설정하고, 여기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각각 제시한 방법입니다. 병이 다르면 처방전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경영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전업농은 자연 재해나 가격 하락에 대비한 경영 안정화에 관심이 큽니다. 반면 젊은 중소농에게는 농업 교육을 확대하고, 고령 중소농에게는 일정액의 소득 보조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다양화한다는 뜻입니다. 올해가 맞춤형 농정을 통해 농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원년이라고 할 수 있죠.

노성호 부장 : 맞춤형 농정을 잘하려면 공무원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아

야 할텐데요.

박홍수 장관 : 그건 어느 때보다 잘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농민 출신이라 예전부터 농림부를 자주 출입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할 때 와보니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모두 아는 사람들이더군요. 농림부 직원들은 요즘 2박 3일씩 지방출장을 갑니다. 우리의 고객이 □ 농민□ 이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지요. 따라서 어느 때보다 □ 농민들의 생각□ 에 관해서는 자신합니다.

노성호 부장 : 농업 문제를 얘기할 때 빼놓기 어려운 게 바로 농가부채 문제입니다.

박홍수 장관 : 2004년 말 현재 가구당 농가부채는 2,689만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농가 부채는 지금 얼마를 지고 있느냐보다 과연 앞으로 갚아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농가의 단기부채 상환능력이나 장기부채 상환능력이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정부는 2004년 □ 농가부채 경감 특별법□ 에 따라 지난해까지 8조2000억원의 자금을 대해 대출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해 농가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왔습니다. 농가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경우 대출이자를 깎아 주는 방식도 적용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농가 소득을 늘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성호 부장 : 부채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텐데요. 우리 농민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요.

박홍수 장관 :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그제도 안성지역 농가를 둘러보고 경영일지를 봤는데 놀랐습니다. 일별로 돼지 숫자에서 자금 출납까지 완벽하더군요. 저도 예전에 일지를 쓸 때 월 단위로 밖에 쓴 적이 없습니다. 개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때 23만 평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시다만 땅 넓고 규모만 크면 돈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요즘 농가는 □ 돈이 되는 농업 □ 이 뭔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브랜드를 붙이는 것도 그렇고 더욱 뜻있는 농민은 최근 중국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중국 양난시장이 상당한데 수출로 모자라니까 아예 중국 현지에서 생산설비를 들여 놓을 정도입니다.

노성호 부장 : 수출도 많이 하는 편이지요?

박홍수 장관 : 파프리카는 일본 시장의 70%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딸기도 그렇고. 그런데 수출과 관련해 국민들이 오해하는게 바로 우리 농산물에 관한 인식입니다. 파프리카는 외래종입니다. 딸기도 일본 종자입니다. 이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로열티 물어도 좋으니 경쟁력 있는 품종을 개발해 수출에 나설 때입니다. 요즘은 먹거리뿐 아니라 관상용 작물도 수출이 느는 편입니다.

노성호 부장 : 흔히들 우리 농업이 벤치마킹을 삼아야 할 대상으로 네덜란드를 꼽습니다.

박홍수 장관 :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더 척박하지만 미국 농산물 시장의 70%가 네덜란드 종자를 갖다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10억이 훨씬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는 네덜란드에 버금가지요. 게다가 요즘 농업은 땅이 넓다고 경쟁력이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반도체처럼 농업도 기술이 경쟁력입니다. 인터뷰는 농림부 현안으로 이어졌다. 최근 대법원의 사업 재개 최종 판결을 받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농협의 신용, 경제사업 분리 요구에 대한 주무 장관 의견을 물었다.

노성호 부장 : 농민단체와 학계에서 농협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홍수 장관 : 농협이 금융업무를 중심으로 신용 사업에만 치중하고 농가 농산물 판로 확대와 같은 경제 사업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에서 분리 요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농협이 매머드급으로 성장하면서 농협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농업인 대표와 학계,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신경 분리위원회□ 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요. 열쇠는 과연 신용, 경제 분리가 농민들과 조합원들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현 시스템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현재로서는 장관인 저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성호 부장 : 대법원이 새만금 공사 재개를 최종 판결하면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농림부 간에 토지활용 측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홍수 장관 : 결국은 간척사업으로 생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지요. 간척지 대부분은 당초 매립 용도였던 농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농림부 생각이예요. 친환경 우량 농지로 개발한다는 기본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산업단지, 레저시설 등이 들어선 복합용도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런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땅 용도 문제는 후일의 얘기일 뿐입니다.

노성호 부장 : 일각에서는 농지가 남아도는데 무슨 또 농지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홍수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100년에 한 번 식량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환경문제도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봐요. 한강 물이 맑아진게 환경 관련 법 때문인가요? 서울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새만금 환경도 지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 나 후손 기준으로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미 FTA, 농업계 입장 최대 반영

전업농신문 창간 10주년 특별대담 | 2006. 6.

올해는 DDA 농업협상과 한미FTA 등 농업계의 사활이 걸린 국제협상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쌀 관세화유예협상 이후 의무수입 물량이 들어와 첫 소매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본지 류종열 사장이 특별대담을 가졌다. 이번 대담은 본지의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류종열 사장 : 수입쌀이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입쌀이 시장에서 우리쌀에 비해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장관님께서 는 현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수 장관 : 우선, 전업농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계의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판용 수입쌀 7,000여톤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공매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정서를 의식한 대형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수입쌀의 밥맛이 국산쌀에 크게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함께 형성되면서 공매가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쌀의 우수성이 수입쌀의 시장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공매부진이 계속될 경우 수입쌀의 낙찰가가 떨어져 소매시장에서 부정유통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또한 시장에서 소진이 늦어지

면 우리쌀의 수확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류종열 사장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쌀이 시장에서 소진되지 않고 부정유통된다면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홍수 장관 : 정부입장에서 무리하게 수입쌀의 시판을 장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은 시판 수입쌀을 조속히 소진하기 위해 공매 참가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공매 횟수를 주2회로 늘리며, 도정기간이 오래되어 품위가 떨어진 경우 예정가격을 조정 하는 등의 수입쌀 공매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는 시장상황을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입쌀 첫 시판에 따른 농업인의 정서를 의식한 대형유통업체의 참여 부진이 공매 부진으로 이어진 것 같다. 어느 정도 완충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쌀 협상 결과 시판용 수입쌀은 수입년도 내에 공매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쌀 물량도 매년 증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년도에 소진하는 것이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열 사장 : 지난해 정부의 예측치보다 쌀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올 수확기에도 지난해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쌀가격 폭락을 막기위한 정부의 수확기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수 장관 : 금년에는 수확기 물량흡수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보유 쌀을 공매하지 않습니다. 수확기 직전 민간 재고가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06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을 7월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고, 쌀 관측체계를 구축해 농업인과 RPC에 대해 종합적인 쌀 시장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입쌀 시판이 수확기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기 이전에 수입쌀의 공매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열 사장 : 너무 쌀문제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요즘 농업계는 한미 FTA와 DDA 협상 등으로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농업계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농업계의 입장은 시작부터 잘못된 FTA 협상의 반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계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박홍수 장관 :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농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지난번 공청회가 중단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한미 FTA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렴된 의견은 최대한 협상에 반영키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림부도 여러 가지 협의채널을 통해 소관 업계와 단체들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협상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상단계마다 진행상황 등 신속한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계의 입장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류종열 사장 : 최근 우리 농업계를 다른분야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119조원 대책으로 불리는 □ 농업·농촌종합대책□ 에 관해서입니다. 얼마전 농민들은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들은 119조원이 농촌에 투융자돼 농촌지원은 할 만큼 했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박홍수 장관 : 2004년부터 추진해온 농업·농촌종합대책은 과거와 달리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조비중을 넓히고, 직불제를 확대하는 등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농민들이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비판은 농정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수치를 따져볼 때 과거 투융자에 비해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는 과거 63%보조에서 75%보조로 많은 비율이 높아졌고, 또한 직불제 예산 역시 2002년 4,289억원이던 것이 2004년 8,675억원을 거쳐 2006년에는 1조9,235억까지 늘어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은 정부, 농업계,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융자평가협의회에서 객관적으로 농림사업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책을 세워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19조원 투융자계획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공개해 추진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열 사장 : 최근 우리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장려에 치중해 정작 중요한 판로확보와 가격 안정대책에는 관심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일반 농산물과 가격차가 줄어들 텐데, 판로 및 가격문제를 해결할 복안은 무엇입니까?

박홍수 장관 : 농식품의 안전성과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량이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2010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10%로 확대시키고,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소비촉진




노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해 약 8억 원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친환경농산물 홍보 TV-CF도 제작 방영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및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대량 소비처를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소비자 판매장 설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류종열 사장 : 최근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간척사업에서 환경친화적 개발방안과 간척용지 이용방안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농림부의 입장이 개발과 원칙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수 장관 : 우선, 새만금 사업의 전반적인 성패는 수질문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정부방침 결정이후 수질대책을 중점 추진하면서 전문가에 의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얼마전에는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공사 후 한달간의 환경 영향 평가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축산분뇨처리 등 수질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등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부간척지에도 친환경적인 농지조성과 함께 생태숲, 습지, 철새도래지, 자연형수로 및 저류지 등 다양한 생태공간을 함께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부간척지 이용계획은 6월로 예정돼 있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수질과 생태보전 등 친환경 개발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으로 구체화 하겠습니다.

류종열 사장 : 최근의 분위기를 볼 때 농림부가 식품업무까지 담당하는 부처로 확대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박홍수 장관 : 식품산업은 원료의 생산에서부터 가공에 이르기 까지 농업과 전후방으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여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농업행정조직의 기능을 개편하면서 식품관련 기능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은 우리 농정방향을 정하는데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료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농업·농촌기본법에도 식품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논의 중인 식품산업에 대한 부처간 역할조정 작업에 따라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강화 등 관련 정책을 면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종열 사장 : 바쁜 농정업무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수 장관 : 창간 1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FTA , 우리의 접근전략

KBS-1라디오 안녕하세요 백운기입니다 (KBS-1 라디오) | 2006. 9. 6

백운기 앵커 : 안녕하세요? 박 장관님.

박홍수 장관 : 네, 반갑습니다.

백운기 앵커 : 오늘서부터 FTA 본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은 쌀을 포함해서 모든 농산물 몽땅 개방하라, 이런 입장이고요. 우리 측은 최소한도 쌀을 포함해서 284개 품목, 약 한20% 정도를 개방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측의 접근 전략 어떤 겁니까?

박홍수 장관 :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큰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협상에서 우리 농업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와 폭으로 시장 개방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상당한 입장차이가 있지요. 양국의 입장차이가 큰 만큼 아마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마 양국 간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접점에서 협상이 되어야 되겠죠. 8월 15일 미국과 교환한 1차 양허안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입장을 만들었고 또한 미국은 자기들 입장에서 또 보수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5가지 단계로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즉시 철폐하는 부분이 있고, 또 5년, 또 10년, 또 15년, 그리고 협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그 5가지인데, 미국은 우리보다 낮은 최장 10년 이상은 안 되겠다는 입장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쟁점이 될 것이고 이번 3차 협상은 구체적 그런

것 보다는 서로의 속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운기 앵커 : 네, 우리가 개방하지 못하겠다는 284개 품목 가운데 미국이 실제적으로 몇 개정도 들어줄 것 같습니까?

박홍수 장관 : 그것은 협상해봐야 알겠죠.

백운기 앵커 : 그런데 미국은 완전 개방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박홍수 장관 : 네, 네.

백운기 앵커 : 그리고 미국이 현재 농산물 수입이 폭증해서 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 미칠 때 수입 제한조치 내릴 수 있는 세이프가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국이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홍수 장관 : 농업분야 어려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 긴급관세 도입 부분도 미국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입니다. 우리는 농업부분에서 세이프가드, 특별 긴급관세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고 미국은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미국은 섬유부분에서는 자기들이 특별 긴급관세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고 우리는 또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상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농산물 경쟁력이 약한 우리로서는 한미 FTA 따른 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이 부분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백운기 앵커 : 미국이 이럴 경우는 없겠습니까? 쌀 개방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좋다, 양보하겠다, 그렇지만 쌀 양보하는 대신 많은 것을 내

나라. 이래서 실익을 챙기려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수 장관 : 아마 미국 측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우리가 입장이 바꼈다면 또 그렇게 활용을 하겠죠. 그러나 미국 측은 우리나라가 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WTO 관세 유예를 10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유예를 다시 10년을 시켜주었고요. WTO 국제 협정문 속에 근거한 쌀의 특수한 지위와 또한 다른 FTA 협정문에서 규정된 것을 검토해서 미국 측을 설득하면 충분히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운기 앵커 : 말씀하셨듯이 쌀 관세화 유예 협상, WTO, 쌀에다 관세를 매기는 협상은 늦춰야한다는 그런 비준 동의안이 WTO에서 통과가 됐으면 이번 협상에서 쌀은 아예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쌀을 빼놓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박홍수 장관 : 전략적으로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WTO와 FTA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WTO는 다자간의 협상이고, FTA는 양자 간의 협상인데 법리적으로 쌀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WTO규정을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또 FTA, 양자 간의 협상에서 또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또 이용을 하고 이게 지금 두 가지 다 창과 방패역할이죠.

백운기 앵커 : 네, 미국이 결국은 쌀을 양보하는 대신에 축산물, 특히 쇠고기 수입 문제, 여러 가지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 농림부 미국 현지 실사단이 돌아왔죠?

박홍수 장관 : 네, 돌아왔습니다.

백운기 앵커 : 실사 결과 어떻습니까?

박홍수 장관 : 현재 미국 실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일 9월 7일, 내일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한 조건들이 전부 다 충족이 됐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이고, 또한 한 50가지 정도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라도 전문가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부족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것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 농림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번 현장 실사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개최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앵커 : 네. 내일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서 쇠고기 수입을 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농림부가 가봤더니 현지 실사를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겠다는 방침을 곧 밝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수 장관 : 그런 예상들은 예상일뿐이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겠죠. 이 소고기 문제만큼은 세계보건기구 WHO하고 또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이행할 것이고 다만 현재 30개월 미만의 소 가지고만 말들이 있는데 30개월 미만의 소라고 해서 우리가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과 지난번 소고기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제시한 위생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생조건에 빼도 마찬가지로. 소고기가 수입 하는 과정에서 뱀조각이 발견되는 즉시 우리는 자동으로 수입을 금지시키는 그러한 권리까지 이미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들은 안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백운기 앵커 : 그런데 장관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됐던 사례들이 이미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영국에서 19건, 유럽연합에서 20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미국이 전체 도축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장관님 말씀만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 먹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수 장관 : 장관 이야기를 듣고 소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철저한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먹자고 해서 먹을 우리 국민들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 식품안전에 관한 그러한 전문가들이 뛰어난 국제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 정부는 정책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운기 앵커 : 네. 살코기에도 광우병 원인 물질인 프리온이 들어있다는 연구보고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수 장관 : 부분은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일부의 학자들이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학자들의 주장이 또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관성이 있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앵커 : 네.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전문가 그룹의 지적을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광우병 전문가 그룹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영국, 캐나다 등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육골분을 수입해서 소에게 먹인 적도 있고, 그래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4년부터 미국 쇠고기 작업장에서 총 400여건의 광우병 위험 물질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보고서 보신 적 있습니까?

박홍수 장관 :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백운기 앵커 :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박홍수 장관 : 정확하게 200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쇠고기 작업장에서 총 457건의 광우병 위험 물질 제거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가 바로 우리 위생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 위험 물질들은 일체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한발 더 앞서서 어떠한 경우에도 뺏조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위생조건을 강화해서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일본과 우리, 어느 나라가 협상을 잘했는지를 가지고 또한 일부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소뼈까지 수입을 하게 됩니다만 저희들은 일체 뺏조각, 부산물 일체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육골분 문제인데 97년 8월부터 육골분을 사용한 사료 규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98년 4월 이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때는 자동으로 수입이 중단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가들이 충분히 다 검토한 사항들이고 새로운 사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백운기 앵커 : 만일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된다면 현재 국내에서 제대로 소

비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의무소비 물량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박홍수 장관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운기 앵커 :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박홍수 장관 : 그럼요. 수입업자들이 수입해 와서 안 팔리면 다 업자들의 몫이죠. 또 수입 소고기를 사먹고 안 사먹고 그것도 소비자들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책임을 진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백운기 앵커 : 조만간 얼마 전에 미국 상원 소속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항의 편지를 보내왔고, 쇠고기 수입 빨리 하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사단도 갔고, 조만간 공식 수입재개 선언 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박홍수 장관 : 그렇습니다. 미국 측의 의원들이 편지를 보내는 것을 압박이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들은 미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겠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현재 대미활동을 강화해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들이 편지 보내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직접 정부가 손을 들었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드리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우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관점에서 일을 처리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국제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쌀 이외 품목도 개방 영향 최소화 힘쓰겠다

무등일보 | 2006. 10. 10

□ 농도(農道) 전남□ 이 위기를 맞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DA)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최근 개방화 추세와 맞물려 외국산 농산물의 시장 잠식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다 매년 늘어가는 농가 부채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등 농업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무등일보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특별 인터뷰를 갖고, 한·미 FTA 협상 등 농산물 시장 개방과 전남도의 농정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 등을 들었다.

김영태 정치부장 : 한국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타결 전망은?

박홍수 장관 : 한·미 FTA 협상은 농업 부문만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이 협소한 국가는 FTA를 통해 시장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농업이 개방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농업 분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농업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방한다는 원칙에 따라, 식량 안보와 농가 경제에서 중요한 쌀은 개방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

또 쌀 이외 다른 품목들도 민감성에 따라 관세감축 기간의 장기간 설정, 수입쿼터 설정 등의 다양한 전략을 검토해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영태 정치부장 : 전남도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DDA와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농업 부문에 투자하도록 가칭 '농가소득안정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는데?

박홍수 장관 : 농가소득 안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곡인 쌀과 논 농업 중심의 직불제를 쌀 농업·축산 등을 포괄하는 직불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근거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

구체 일정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맞춤형 농정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119조원은 투·융자 계획의 조정과 수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 예산확보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

물론 일부 사회공헌을 통해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수혜 산업 분야로부터 직접 지원(사회 공헌)은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영태 정치부장 : 밥쌀용 쌀이 수입되면서 외국산 쌀로 지은 밥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쌀값 하락과 농가 부채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쌀 산업'의 희생 방안은 있는지?

박홍수 장관 : 앞으로 수입쌀과 국산 쌀의 경쟁은 불가피한 만큼, 관세화 유예 기간동안 수입쌀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에는 수확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물량 400만석 외에 100만석을 추가 매입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1조5천억원 가량을 쌀소득보전 직불금으로 지급했다.

올해에도 수확기의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조기 확정 발표는 물론 지난해 분 수입쌀 조기 판매, 북한 수해복구용 대북지원(10만톤) 등을 추진했다.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을 보완하면서, 산물벼에 대해 우선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등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작황 및 수확기 쌀값 동향 등을 감안, 추가 대책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김영태 정치부장 : 전남도가 농·어촌 마을을 1천명 단위의 면 소재지 중심으로 통합·재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견해는?

박홍수 장관 :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달려있다. 전남도가 낙후된 농·어촌을 면소재지 중심으로 통합·재편하려는 노력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해 집약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를 부활시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전남도가 설정한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빈집이 늘어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째로 어떻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사는 것은 정책을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면단위 주거 개념, 군 단위 교육·의료 중심 등은 정부의 큰 정책 방향과 같다. 전남도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추진하고 마을 주민들도 스스로 하고자 한다면, 농림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김영태 정치부장 : 지난 68년 전남 인구는 414만여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198만여명으로 줄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제적 문제와 교육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있는지?

박홍수 장관 :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의 복지·교육·생활 인프라 수준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향토산업과 농촌체험·관광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4월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지역 개발촉진 5개년(2005~2009)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농림부 등 15개 부처 공동으로 133개 과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2009년까지 총 20조3천억원을 투·융자 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제들 가운데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 여건 개선 등이 특히 중요하다.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우수 고교(총 88개교)를 집중 육성하고, 대학 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2006학년부터 4%로 확대할 계획이다.

쇠고기 검역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터입니다」 | 2007. 3.

박에스터 앵커 :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 협상이 막바지입니다. 타결되지 않는 핵심쟁점을 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고위급 협상이 나뉘어서 진행 중이죠. 서울에서는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고요. 농산품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견이 첨예해서 차관 보급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농림부 업무 보고에서 농업도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결국 농산품도 상품으로 경쟁력이 없다면 농사를 더 못 짓는다, 이런 말을 해서 경쟁력 없는 분야는 포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한미 FTA 협상 막판에 나온 이 발언의 진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박홍수 장관 : 네, 반갑습니다.

박에스터 앵커 : 어제 올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 하실 건가요?

박홍수 장관 : 예, 어저께 아시다시피 대통령 모시고 우리 현장의 농업인과 또 일반 시민들, 또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지난 참여정부 4년 간 농정을 한 번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들이 금년도에 한 28개 정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가지 주요 정책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농업 정책을 개방화 시대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정책 변화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식품이 소비자들의 요구가 안정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에 대한 그런 정책들, 또 다음은 우리 농산물도 브랜드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는 그런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정책도 발표를 했었고요. 아시다시피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과 또 가축 질병이 요즘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 하고 요즘 또 아시다시피 농촌 가면 사람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죠. 그래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정책들 크게 다섯 가지로 금년도 농업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에스터 앵커 :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방에 맞설 수 있도록 농가를 규모화하고 전문화하고 전문성을 높여서 품질을 향상하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화 하는, 또 산업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농업에도 일정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박홍수 장관 : 그렇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농촌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요.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나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규모 자체가 작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는 그런 농가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강제로 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시키는 것 보다는 정책을 가지고 유도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춤형 농정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실질적 농업인하고 또 취미나 여가선용을 주로 하는 그런 분들하고 또 정말로 영농 규모가 적어서 1년에 소득이 한 4~500만원에 머무는 그런 분들은 농업 정책보다는 또 다른 복지 차원의 정책을 투입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앵커 :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농업도 시장에 놓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결국 농산물도 상품이고 상품으로써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를 더 못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경쟁력이 없으면 농업을 그만 두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 한미 FTA를 통해서 어차피 개방으로 가니까 이런 개방 속에서 농업도 버티는 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농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개방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 데 그렇습니까?

박홍수 장관 : 우리 한국 농업의 경쟁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는 가격 면에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느냐는 것 하고, 두 번째는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느냐하는 측면인데 아무래도 외국산 농산물같이 시장에서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정책이 품질로써 경쟁을 갖추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농업을 이렇게 포기하는 형태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도 시장에서 품질로써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니까 농업인들이 노력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자, 이런 방향이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일본 시장에서 일본에 수입하는 농산물 중에서 일본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18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국내 시장에서 얼마든지 수입산 농산물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하게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앵커 : 자, 한미 FTA 농업분야 고위급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역시 쇠고기 시장, 수입개방 문제인데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가요?

박홍수 장관 : 대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미국은 원칙적으로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또 민감한 품목들은 힘들다하는 그런 원

책을 서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저희 농림부 회의실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의견 접근이 아직까지도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품목들은 관세에 관련된 그러한 협상이기 때문에 의견접근이 또 많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지금 서로가 힘든 부분이 역시 쇠고기 문제입니다. 이 쇠고기 문제는 우리는 미국이 5월 달에 OIE 위원회에서 광우병이 통제된 국가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우리 측에 다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위험평가 8단계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미 쇠고기를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현재 3월 달에 OIE에서 예비관정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당장 위험평가 절차에 들어가자, 이런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는 우리가 5월 달에 미국이 완전하게 몇 등급을 받을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미리 위험평가를 할 수 없다, 그 차이에 지금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박에스터 앵커 :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예비로 국제수역사무국 OIE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승인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뼈까지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우리는 그것은 불가하다, 그런 입장이네요.

박홍수 장관 : 그렇죠. 5월 달에 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로 최종평가된 후에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하고 다시 수입 위험 분석을 해서 수입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염두 해 두고 미리부터 하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에스터 앵커 : 그러면 만약에 5월 달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잘 통제되는 국가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면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홍수 장관 : 그것은 지금으로써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단지 한국만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18개국 정도가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5월 달에 미국이 통제된 국가로 분류되면 우리는 OIE 기준은 하나의 고려사항입니다. 고려사항이지 그것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도 미국이 위생조건을 변경할 만한 그러한 중대 사항이 5월 달에 결정이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협상을 하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뼈를 수입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무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박에스터 앵커 : 그런데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그 기준은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펴 왔거든요.

박홍수 장관 : 여태까지는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박에스터 앵커 : 예,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을 따른다면 국제수역사무국, OIE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 분류를 한다면 그에 따라서 뼈도 수입할 수 있는 게 국제적인 기준이 되는 것 아닌가요?

박홍수 장관 :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미국 소 OIE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는 괜찮다고 하지만 일본은 지금 현재 20개월 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 자체가 광우병을 체크하기 위해서 전 두수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가축통제 할 수 있는 수위하고 국가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도 OIE 기준을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기준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 할 사항이죠.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에스더 앵커 : 네, 민동석 차관보가 쇠고기의 현행 40% 관세철폐문제를 쇠고기 검역문제로 연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관세 철폐를 안 하는 대신에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이런 형태의 달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박홍수 장관 : 그런데 아무래도 위생 문제하고 또 관세 문제하고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협상장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위생은 위생, 관세는 관세, 이렇게 분리시켜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앵커 : 우리가 끝까지 뼈 있는 쇠고기 부분에 대한 미국의 수입개방 요구를 거부할 한다면 한미 FTA 협상 자체가 결렬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박홍수 장관 : 그런 예단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에스더 앵커 : 품목별 협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국이 강한 요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 230여개 품목을 기타품목으로,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 철폐를 안 하는 품목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박홍수 장관 : 맞습니다.

박에스더 앵커 : 그런데 미국에서는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어쨌든 언제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것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품목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235개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끝까지 기타품목으로 지켜야 되겠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박홍수 장관 : 지금 막바지의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몇 가지를 남기겠다 하는 말씀은 하기 힘들겠죠.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기간이라든지 또 관세감축 폭,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계절 관세 그런 것들을 총 동원 해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몇 개 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힘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에스터 앵커 : 김종훈 수석대표께서는 7차 협상이 끝난 뒤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230여개의 절반 정도까지는 줄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여개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박홍수 장관 : 7차, 8차 협상하고 이번에 오늘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미국 측의 이해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측도 또 미국 측이 이해하는 폭만큼 우리도 또 협상의 여지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민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합의점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박에스터 앵커 : 네, 만약에 특별 세이프가드라든지 저울 할당관세라든지 또는 계절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족스러우면 민감 품목을 하나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박홍수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품목마다 축산하고 과일이나 채소부분하고 곡물도 크게 나누는데 축산 같은 부분은 이제 저울관세 할당 같은 것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리는 과일 같은 부분은 계절관세는 필수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 계절 관세와 관세 감축 폭, 그리고 축산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현재 우리가 관세가 20%에서 40% 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로 관세감축 기간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에스터 앵커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기로 가져가고 다른 계절관세나 이런 게 만족스럽게 되면 아예 제외하는 민감 품목은 거의 없을 수도 있느냐는 말씀이죠.

박홍수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박에스터 앵커 : 그러면 쌀 외의 다른 품목들은 다른 것으로 협상이 가능합니까?

박홍수 장관 : 현재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쌀, 감귤 같은 품목들, 또 소고기 같은 품목들, 우리가 또 축산 낙농부분에서는 분유가 또 아주 예민합니다. 분유 같은 부분이 현재 170% 관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아마 마지막까지 민감한 품목들이 몇 개가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에스터 앵커 : 수십여 개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겠군요. 다른 부분들로 협상을 하면서.

박홍수 장관 : 그렇죠. 자꾸 줄여가야 협상이 되는 것이죠.

박에스터 앵커 : 예, 양측의 의견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거든요. 조금은 좁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는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다음 주 26일 경에 예정되어 있는 통상교섭본부장 급의 최종 고위급 협상까지는 가야지 농업은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던데요.

박홍수 장관 :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관급 고위급의 협상에서도 미측 태도가 조금 바뀌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박에스터 앵커 : 그런데 농업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도 굉장히 강한 수준이어서 통상교섭본부장 급의 최종 고위급 협상에 가더라도 농림부 장관이 참여를 해야지만 우리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장관님께서도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최종 고위급 협상에 참여를 하십니까?

박홍수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가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야 농업 부분이 지켜지고 산업자원부 파트가 지켜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의견은 지금 고위급 회담에서 정리된 부분을 최고위급으로 넘기니까 농림부 장관이 간다고 해서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박에스터 앵커 : 하지만 결국 최종 고위급 협상으로 간다는 것은 큰 틀에서 주고 받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 분과에서는 양보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것은 우리가 양보를 하고 이것은 너희가 양보를 해라, 그렇게 해서 빅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최종 고위급 협상으로 가면 농업과 섬유 부분에서의 양측이 양보를 한다든가 이런 빅딜이 불가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박홍수 장관 : 저희들이 몇 번 수차 확인해주고 또 확인해 주고 하는 데 현재 정부의 협상 방식이 철저하게 상업별로 독자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부문 내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산, 또 곡류면 곡류, 그런 조그만 분야 속에서 그렇게 주고받고 식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산업끼리 주고받기 식은 그것은 서로가 이해하기 힘들죠. 아마 현재까지가 아니고 이번 협상의 기본 틀이 산업 간의 빅딜은 생각할 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앵커 : 그러면 농업은 결국 대통령간의 전화통화를 통한 담판, 이 정도까지 가야지 어떤 최종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홍수 장관 : 대통령께까지 올라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측도 농업부분에서는 쌀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FTA 시작하기 전부터 또 미국도 쌀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산업 측면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글썽요. 아직까지는 대통령 차원에서 문제를 풀 사항이 생길 지 그것은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박에스더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수 장관 : 네, 감사합니다.

박에스더 앵커 :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은...

KBS-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 2007. 3. 28

박인규 앵커 : 안녕하세요? 박인규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마지막 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덟 차례에 걸친 협상과 고위급 회담을 거쳐 최종 담판에 들어간 셈인데요. 특히 이번 협상에선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협상 등이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농업개방 등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농림부 박홍수 장관과 함께 이번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개방화 시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박홍수 농림부 장관입니다! 박홍수 장관은 1955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78년 경상대 농과대를 졸업한 이후 줄곧 농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1988년 농민후계자에 선정되면서 농민운동 지도자로 활동해 왔으며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남도 연합회 회장, 중앙연합회 회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공동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 제17대 열린 우리당 의원으로 2005년 1월부터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온 나라가 어수선하기도 한데요, 농림부장관으로서도 굉장히 바쁘시겠습니까.

박홍수 장관 : 바쁘다는 표현보다도 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박인규 앵커 : 지금 서울에서 FTA 체결을 위한 마지막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

는데요, 지난번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 결과를 비롯해서 지금까지의 협상 진행, 특히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홍수 장관 : 이미 언론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만, 지난 과천 청사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는 여태껏 한국과 미국이 서로 주장했던 것들이 되풀이됐고, 구체적으로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왜냐 하면 미국의 기대치가 너무 높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농업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생각 차이가 크다는 걸 서로 확인했고, 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장관급 회담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

박인규 앵커 : 농업 문제가 우리에게도 참 민감한 문제다. 아마 그 중에서도 쌀 문제가 제일 민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사실 이번 FTA협상에서 쌀 문제는 거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정말 그야말로 느닷없이 미국 쪽에서 쌀도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얘기를 꺼냈어요. 왜 갑자기 미국이 협상 시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쌀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 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박홍수 장관 : 궁금하신 것은 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쌀 문제를 거론한 건 미국의 입장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미국과 FTA를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쌀은 협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정부의 큰 방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입장변화가 조금도 없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구요. 어쨌든 미국이 쌀 문제를 거론한 이상 협상장에서는 아마 좀 논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쌀 문제는 정말 국민적 관심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만에 하나 미국이 쌀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면 상당한 협상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걸 예견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기대치를 낮춰야만 협상의 진전이 있지, 현재와 같은 그러한 높은 기대를 갖고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은 저

회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나. 특히 농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박인규 앵커 : 협상 막바지에 느닷없이 쌀 문제를 꺼낸 건, 쌀이 목표가 아니다. 말하자면 성동격서랄까요? 쌀 문제를 꺼내면서 뭔가 다른 데서 양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있습니다.

박홍수 장관 : 언론이나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 속 내를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협상기법상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쌀 문제와 여타 우리가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기대 수준을 낮춰야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화가 가능하지, 일방적으로 내 욕심만 채운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상호간 대화가 있을 수 없죠. 진전이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역시 장관급 회담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측이 그런 기대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쌀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민감한 품목에서도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인규 앵커 :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종훈 대표도 미국이 쌀 양허와 같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협상이 결렬되는 한이 있어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홍수 장관 입장도 쌀 개방을 하느니 FTA협상이 차라리 타결 안 되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홍수 장관 :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쌀 문제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협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죠.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박인규 앵커 :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이 협상 막바지에 쌀 문제를 들고 나온 건 쌀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데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쇠고기를 많이 얘기해요. 어떤 분 추산에 따르면 쌀 시장을 개방해 봐야 200억 시장이고 쇠고기

는 8천억이다. 말하자면 쌀을 고집하다가 쌀을 철회하면서 쇠고기 개방을 받아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쇠고기 개방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홍수 장관 : 쇠고기는 개방돼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뼈 문제를 포함한 위생 검증 문제, 그리고 현재 40% 관세가 돼 있는 관세 문제입니다. 한미 간의 FTA협상장에서 논의될 사항은 현행 관세 40%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국한돼 있어야지 위생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박인규 앵커 : 그렇다면 장관님 말씀은 관세 40%를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박홍수 장관 : 쇠고기도 쌀 문제 못지않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장에서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양국간에 협상이 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쌀과 쇠고기 문제를 연계시킬 수 없고, 또 쇠고기 위생과 관세 문제를 연계시킬 수 없다는 건 기본 원칙입니다.

박인규 앵커 : 쇠고기도 검역은 검역이고 관세는 관세다. 검역 문제 같은 경우 뼈 없는 쇠고기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뼈만 발랐으면 됐지 뼈조각까지 문제 삼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일부 국내 몇 분들도 뼈조각 작은 것도 통과를 안 시키는 건 우리가 너무 심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확고한 겁니까? 뼈조각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수입할 수 없다는 것.

박홍수 장관 : 현재 미국과 맺은 위생조건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양국간에 그렇게 합의한 위생조건이 체결돼 있구요 문제는 뼈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상업적 기준으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광우병이라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뼈조각이나 일반 뼈에도 광우병 문

제가... 완벽하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미국이 2003년도 광우병 발생 후에 우리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또 지난해 수입재개를 하기 위한 협상을 할 때 양국간에 합의한 사항이,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뼈조각 문제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농림부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 농림부 장관의 판단에 의해서도 아니고, 일단 그런 이물질이 검출되면 저희들이 전문가 위원회에다가 안전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 문제는 위생조건에 반하기 때문에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를 취하는 거지, 뼈조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우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단순하게 상업적으로 큰 뼈는 안 되고 적은 뼈조각은 되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앵커 : 일부에서는, 미국에서의 광우병 통제 정도에 대한 등급이 5월에 새로 나오니까, 이른바 빌트인 방식이라고 하나요? 그 문제를 약간 제쳐 두고 협상을 타결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해보자.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박홍수 장관 : 그렇습니다. 관세 문제는 현재 협상장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검역에 관련된 문제는 5월에 미국이 OIE 로부터 광우병이 통제된 국가로 분류될 것이라고 자기들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미국은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분석 8단계 조치를 미리부터 밟자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또한 이 기준 자체도 이것이 국제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 강제 구속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검역의 기준을 가지고 미국 쇠고기를 판단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어쨌든 위생과 검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양국 간의 위생협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 협정에 따라 이행되고, 미국측이 위생조건을 변경할 만한 큰 변화가 있으면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위생조건을 다시 수정한 큰 변화가 있으니 한국측에 위생조건을 변경하자고 협상을 제안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 제안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미국과 다시 위생조건을 개정하는 협상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해 버리고 자기들 나라는 5월 말에 될 거니까 미리 하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박인규 앵커 : 정리해 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쌀은 개방할 수 없고, 쇠고기 검역에 관한 현재 수준을 낮출 수도 없고. 관세 부분도 40%는 협상에 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박홍수 장관 : 관세가 낮아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관세감축폭과 관세감축기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TRQ물량을 가지고 조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협상을 해야지요.

박인규 앵커 : 많은 분들은 혹시 쌀개방 문제를 가지고 기다리게 하다가 막판에 다른 쪽의 양보를 하면서 타결되는 게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박홍수 장관 : 협상이라는 건 서로 관심있는 것을 주고 우리가 관심있는 것은 받고 하는 것이지만, 이 쌀 문제와 다른 것을 연계시키는 건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또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가지고 관세에 연계시키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런 기초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규 앵커 : 지금 농산물협상 부문에서는 쌀과 쇠고기가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오렌지라든가 문제 있는 항목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렌지 같은 경우 개방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

니까?

박홍수 장관 : 쌀, 쇠고기뿐만 아니고 현재 돼지고기, 콩을 비롯한 대두 종류, 낙농제품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관세가 100% 이상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주도 농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감귤 문제도 대단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감귤 자체의 품종 가지고는 현재 크게 미국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오렌지 관세를 지금 50%인데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게 주요 관심사죠. 그래서 쌀과 같은 입장인데 제주도 감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앵커 : 올해 최근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올해 농정의 가장 역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박홍수 장관 : 아시다시피 한미FTA, 이런 국면 속에서 본격적인 개방에 대비한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산업들은 지금 선진국형으로 다 탈바꿈 돼 있죠. 그러나 농업 부분은 특성이 아주 보수적이라서 선진국형 농업구조를 갖추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에 우리의 농업 구조나 농촌 구조나 여러 정책들의 구조도 선진국형으로 바뀌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진국형으로 가는 정책 중 가장 큰 변화가 농촌복지정책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농촌 사회가 아시다시피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사회에 대한 정책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현재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60%,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35%,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진흥에 대책들을 반드시 세워야 되구요.

박인규 앵커 : 지금 농업의 선진국화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 복지나 고령화 사회 대비를 말씀하셨지만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경쟁력 없는 농업은 도태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홍수 장관 : 대통령께서 경쟁력 없는 농업은 퇴출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기본 취지는, 우리 농업도 이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농업으로 변화하자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면 우리 농업이 소비자들, 국민들께서도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 조금 놀랄 것입니다. 일본 농산물 시장에서 일본이 수입하는 농산물 중 우리 농산물이 수입품 중에서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약 8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농업 수준도 세계 수준에 바짝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규 앵커 : 선진국화라는 것의 요체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본다면, 최근에 농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119조원인가를 앞으로 10년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수 장관 : 농업정책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출범 후에 향후 10년간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에 필요한 투융자 계획을 아주 체계적으로 세워 놓은 로드맵입니다. 119조원 자체가 10년 동안 모아 놓으면 아주 커 보이나 그 119조 속에는 농업 부분의 장래에 투입될 예산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민들께서는 또 119조원이라는 큰 돈을 농업인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죠.

박인규 앵커 : 사실 많은 분들이,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은 심하게 얘기하면 헛돈 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쭙보고 싶은 것은 10년간 119조를 투자, 융자를 해서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면, 농업경쟁력 향상의 구체적인 역점사업이랄까요? 어떤 사업을 통해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지 열개를 좀 말씀해 주시죠.

박홍수 장관 : 과거에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농촌의 SOC,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많은,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기반시설보다는 농업체질을 강화시키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하나 농촌복지 문제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사회는 지금 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인규 앵커 : 경쟁력이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본에 들어가는 최대 수출품이 8개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해외시장에 대해서 속된 말로 팔아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요체 아닙니까?

박홍수 장관 : 맞습니다. 우리의 농업수준 자체가 최근 10년 동안 아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생산했다고 해서 다 시장에서 팔리는 건 아니고, 또 해외시장에 나간다고 하면 그 선진국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안전성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 높은, 품질 좋은 농산물은 하루아침에 똑딱 제품 만들듯이 되지 않습니다. 땅도 살리고 물도 살려야 되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23만불치 농산물을 수출했는데 우리 농업도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국내 시장만 겨냥해서 하는 농업이 아니고, 상층부에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들은 해외로 눈을 빠르게 돌리고 있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통공사가 해외시장을 많이, 빠르게 지점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앵커 : 뭔가 기술집약적이고 해외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농산품목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나라 농촌에 60세 이상 인구가 60%, 65세 이상이 35%.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도 있겠지만 요즘 국제시장의 추세를 읽으려면 역시 젊은 분들이 농촌에 가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싶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유인책은 갖고 계신지...


박홍수 장관 : 다른 산업과 달리 농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이죠. 결국 우리 농촌과 농업에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수준 높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늘 우리나라 농업의 수준도 결국 농민의 수준만큼 발전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인력을 농업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교육제도 자체를 많이 고쳤습니다. 참여정부 전까지 솔직히 말해서 농업 쪽에서 1년에 쓰는 교육비가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농민교육에 투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130까지 올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점차적으로 더 늘려 나가야 되구요. 농민들에 대한 교육투자,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5개 정도의 과제에서만 교육을 시켰는데 더 세분화 시켜서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160개 과제까지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촌의 농어민에 대한 과감한 교육, 투자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전문대학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되고 기술 높은 농업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형태로 농업이 지속되겠죠.

박인규 앵커 : 많은 분들이 농업을 산업의 하나로 봅니다만 실제로는 산업 이상이다. 삶의 근원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사실 우리나라 국민 중 40대 이상의 한 80%는 다 농민들의 자식입니다. 농업이 갖는 중요성은 단순히 GDP 몇%... 이게 아니다. 농업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박홍수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면 일생을 농인으로 보내셨고 지금 농림부 장관까지 하고 계신데, 그런 농업과 농촌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박홍수 장관 : 우리가 농업뿐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도와 달라, 지원해 달라, 이걸 옛날 말이구요,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건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입니다. 물론 돈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정말로 농촌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단순히 GDP 몇%기 때문에 예산도 그 비율에 맞게 배정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미국, 일본, 유럽은 말할 것도 없구요. 세계 어떤 나라도 GDP에 대비해서 예산을 농업 분야에 할애하는 곳은 없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 가지고 농업을 쳐다볼 것이 아니고 농업이 갖는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FTA 때문에 많은 농민들의 얼굴이 펴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혹 고향에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도 좀 해주시고, 정부도 우리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고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반드시 수립하겠습니다.

박인규 앵커 : 우선 농민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까, 농민들이 독창적인 노력을 하시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도와줄 때 한국 농업에 살 길이 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홍수 장관 : 감사합니다.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책 과연 충분한가?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터입니다」 | 2007. 7. 6

박에스터 앵커 : 한미FTA가 한미정부간의 최종서명이 됐습니다. 이제 정부간의 협상은 완전히 끝났고 국회비준만 남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적지 않죠? 국회비준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논란도 상당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농업부문 대책이 다각도로 마련이 됐습니다. 한미FTA관련 농업 대책,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등에 대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농림부 박홍수 장관, 전화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수 장관 : 네. 반갑습니다.

박에스터 앵커 : 이 한미FTA가 한미 정부간에 최종 서명이 됐구요. 또 그 즈음에서 정부가 FTA피해에 대한 추가 보전 대책을 내놨는데 농업부문에서의 주요대책은 어떤 건가요?

박홍수 장관 :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가 소득을 높이는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개방이 이루어져도 우리 한국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곳에 또 초점이 맞추어져 있구요. 또 마지막으로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FTA로 인해서 우리 농업의 생산감소 발생시에 이것을 직접 보전해주는 그런 보전대책, 이렇게 크게 3가지 틀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에스더 앵커 : 피해보전 대책이 되겠군요? 어떤 건가요?

박홍수 장관 : 품목별 특성에 따라서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경쟁력 대책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농업을 주로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경영 기물을 확대하는 그런 체질 강화하는 정책하고 또 하나는 수입급증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그런 피해 장치를 보완하는 것 또 더 이상 농업을 하기 힘든 그러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폐업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발표한 정책의 기본 골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에스더 앵커 : 체질 강화는 주로 규모화, 그러니까 좀 대규모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질을 높이고 또 특성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대책도 있습니까?

박홍수 장관 :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가수가 125만 농가 정도 됩니다. 여태까지 125만 농가 전체를 상대로 농업정책을 펴왔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가 자체를 이제는 농업을 정말로 주업으로 하는 그런 주업농가가 한 5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령농가에 속하신 분들이 한 50만정도 되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부업이나 취미개념으로 하는 농민들이 한 25만 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한 50만호 정도 주업농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집중하고 한25만호 정도 되는 부업농과 취미농은 이제는 정부 정책 대상에서, 농업정책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앵커 : 네. 그렇군요. 역시 그러면 주업농에 대해서 농업 자체에 대한 지원은 더 늘어날 수 있겠군요. 사실 이제 피해보전도 그렇고 또 경영이양 직불제나 주업농 소득안정 직불제 모두 이제 현금을 통해서 보전을 하는 건데, 사실

아직 그 대상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지금 2013년까지 되어 있는 119조원으로 충분히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던데요?

박홍수 장관 : 2004년부터 13년까지 향후 10년간 농업투입량 계획을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119조 투입량 계획인데, 한 칠레 대책이 2010년대 끝나니까 현재 한미FTA대책을 세울 때는 119조 투입량 계획 속에 있는 한 칠레 대책을 법을 개정해서 확대 개편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박에스더 앵커 : 네. 2010년까지 한 칠레FTA 계획이 끝나고 다시 이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미FTA가 된다면 어쨌든 2013년까지 잡혀있는대로 재원은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홍수 장관 : 그러니까 대폭 확충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원은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고 국회와 예산처하고 지금 계속해서 아마 이것이 7월 말 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예상규모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에스더 앵커 : 대폭이라면 한 50조, 이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박홍수 장관 : 그런 규모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박에스더 앵커 :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따로 마련이 됐죠?

박홍수 장관 : 축산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소, 돼지, 양돈이죠? 두 가지가 주가 되는데 사실상 우리 소 산업은 앞으로 15년 동안 이 관세 자체가 매년 2.25%

씩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하고 한우협회가 15년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게 됐죠. 되면은 미국소와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도축세 같은 부분들도 법과 제도로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에스더 앵커 : 그래서 도축세를 폐지 하기로 했죠?

박홍수 장관 : 그렇죠.

박에스더 앵커 : 언제 폐지가 되나요?

박홍수 장관 : 이제 입법과정을 거쳐서 정부 방침이 확정 되었으니까 머지않아 금년 내에 이것들이 될 것 같고..

박에스더 앵커 : 자, 축산 쇠고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홍수 장관 : 언론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농업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농림부 직원하고 금융원 전문가하고 또 우리 대학 교수님들하고 또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전문가하고 이렇게 8명이 현재 미국에 지난 달 30일날 현지조사를 갔습니다. 이행평가 8단계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4단계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4단계의 현장조사를 마치고 와서 미국과 이제 수입이행 조건을 협의하는 6단계에 접어들게 되죠. 어쨌든 이행에 관련된 문제는 지난번 한미FTA도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FTA와 상관없는 문제고 별도의 채널에서 위생조건 계정에 대한 협상을 결정해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앵커 : 8단계 조사가 지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박홍수 장관 : 현재까지는 이제 사실상 핵심은 6단계가 가장 큰 난관입니다.

박에스더 앵커 : 미국과 협의를, 위생조건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

박홍수 장관 : 위생개정을 협상할 협상이 이 6단계인데, 그 6단계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게 되죠? 거기까지가 이제 4단계가 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받게 되면 언제까지 개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 정상적인 절차가 어떤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핵심은 미국 측의 요구 수준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위생조건을 점검한 것 하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협상이 순조롭게 되겠죠? 되기 때문에 위생조건에 관련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연계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럴 수는 없다, 그런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박에스더 앵커 : 그 6단계, 미국과 위생조건을 협의하는 그 6단계 협의는 언제쯤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박홍수 장관 : 그렇죠. 4단계 현장 조사팀이 다녀와서 미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다시 가축방역협의회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협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미국하고 다시 6단계 협의를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이 들어와서 미국사정을 가지고 전문가들도 앉아서 다시 검토를 해야만이 다음 협상시

기가 정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에스터 앵커 : 이달 안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까?

박홍수 장관 : 네. 이달 안에 협의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또 다음달로 연기될지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도 일단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단할 수가 없죠. 그 분들의 결정에 따라야 저희들이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예단할 수 없는 것이 현 시점의 상황입니다.

박에스터 앵커 : 그 지난 5월에 국제수역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이 통제가 되는 나라로 그렇게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국제적으로 이 판정을 받으면 뼈까지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4단계로 실사를 가신 그 분들은 뼈까지 수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박홍수 장관 : 뼈 문제는 이 OIE기준 자체에서 하나의 기준이고 그것이 대단히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광우병에 대한 그러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미국의 소뼈는 수입하지 못하겠다, 미국도 지난번 협상 때 인정해서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이러한 수입이행 조건을 변화시킬 만한 중대한 요인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비록 OIE 기준은 있지만은 그 OIE 기준은, 물론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될 그런 기본적 의무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이런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관례이기 때문에 비록 OIE 기준은 있지만은 그 OIE 기준은 우리가 다시 우리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박에스터 앵커 :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바로 그 평가를 지금 하고 계

시나는 거죠. 뼈까지 수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평가를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계시는 중이나, 만약에 그 평가에서 뼈까지 수입해도 되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은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평가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신가요?

박홍수 장관 : 그렇죠. 우리가 현재 미국에 가서 조사 하는 내용들은 쇠고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돌아오면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차피 협상이 이루어지면 미국측의 최대 관심사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또 논리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상이 벌어지면 쇠고기 뼈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협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박에스더 앵커 : 그렇다면 30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는 이 조건도 역시 뼈와 마찬가지로 지금 풀 것인가, 라는 부분도 검토 단계에 있습니까?

박홍수 장관 : 우리가 30개월을 더 강화시킬지 우리가 30개월을 인정할 것인지, 그 개월수도 이것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안 달라지겠습니까?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어쨌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과 관련된 협상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협상을 해봅시다만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에스더 앵커 : 그 미국에서는 완전한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뼈도 포함하고 30개월 미만의 이런 조건도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해민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장이 만약에 쇠고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 한미FTA 가 원만히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수 장관 : 그런 말씀을 하고 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하시는, 미국정치인들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또 자기 지역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치적 입장이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장관인 저로서도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고, 우리 수의과학검역원과 우리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들이 내리는 판단은 우리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FTA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미국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또 몇 차례 확인도 했고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쇠고기와 FTA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것은 지난번 협상 때도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박에스더 앵커 : 그런데 이제 사실 미국 정부에서 서명하는 것은 다 끝났고 미국도 의회비준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회에서 쇠고기가 수입이 재개가 안 되면 우리는 서명 못하겠다 한다면 또 다시 쇠고기 문제가 한미FTA 국회비준 또 미 의회비준 발목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또 외교통상부에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박홍수 장관 : 쇠고기는 이미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되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쇠고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지 지금도 미국 쇠고기가 검증을 기다리고 있고 쇠고기가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쇠고기 문제는 한미간에 걸려있는 통상회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에스더 앵커 :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수 장관 : 네. 감사합니다.

□ 2년8개월□ 최선 다했지만...

한국농어민신문 | 2007. 9. 3

농민단체장 출신 첫 농정수장인 박홍수 장관이 지난달 31일 이임식을 갖고 농림부를 떠났다. 2년 8개월 가량의 재임기간 동안 현장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는 농정기조를 정착시키고, 농지중심인 농업정책의 골격을 농민중심으로 전환하는 맞춤형 농정의 밑그림을 완성한 박홍수 전 장관. 그러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타결 등 농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상존한다. 그가 지난달 29일 윤주이 본지 상무이사와의 대담을 통해 털어놓은 소회를 전한다.

윤주이 상무이사 : 참여정부와 임기를 함께할 것이란 소문과 달리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쉬운 것은 없는지.

박홍수 장관 : "2년 8개월을 딱 채웠으니 한참 일했다. 나름대로 세운 목표만큼은 일했다. 과거 40~50년 동안 내려온 농지중심의 농정방향을 농민중심으로 틀고 새로운 농정의 틀을 잡는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섭섭한 것은 전혀 없다. 다만 취임했을 때의 현장 농민들의 기대치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한 것은 아쉽다."

윤주이 상무이사 : 평소 강조해온 현장농정 기조는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지.

박홍수 장관 : "처음에는 장관이 □ 민원 해결사□ 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다. 농정은 현장과 늘 부딪히고, 현장과 거리가 먼 정책은 의미가 없다. 또 축산분뇨처리 담당자가 축산분뇨탱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서 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

다. 그래서 농민과 농정당국, 농정현장과 농림부 간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회복 하겠다는 생각으로 직무를 해왔다. 이런 시각에서 농정리모델링과 정책공모 등을 추진했다. 농림부 직원들도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런 생각을 이해해줬고 이제는 농민들에게도 거리감 없이 쉽게 접근한다. 우리부의 직원들이 농업, 농촌의 현장을 찾아가는 □ 과의 날□ 과 같은 행사는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한다. 또 신입사무관들을 처음 6개월간 현장체험을 시킨 것도 현장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라는 취지에서다."

윤주이 상무이사 : 땅 중심의 농정에서 사람중심의 농정으로 바꾼다는 것의 의미는 뭔지.

박홍수 장관 : "땅이 넓다고 농업경쟁력이 있던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아직까지 땅으로 한다. 땅이 1만평 있다면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만큼 평가해주고,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경우에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땅만큼 준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농민들을 보면 유산을 많이 물려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땅이 없어도 열정을 갖고 일에 매달린 프로농민들이 성공을 했다. 사람중심으로 정책이 가줘야 하고 농업금융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농정의 중심은 사람이라야 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울토마토의 경우 5~6단까지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있고 10~15단까지 따먹는 사람이 있는 것은 기술의 차이다. 농민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이다. 그래서 취임당시 30억원 수준이던 농민 교육예산을 올해 13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00억원까지 확대하라고 했다. 특히 농민교육의 경우 행정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의미 없다. 한우에 대한 교육은 한우를 키우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마케팅이 필요하진 사양관리가 필요한지는 한우농가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육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윤주이 상무이사 : 맞춤형 농정에 대해서는 농업계에서도 찬반 시각이 있는데.

박홍수 장관 : "맞춤형 농정은 실질적 혜택이 농민들에게 가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3mm볼트를 풀기 위해서는 3mm스패너가 필요한 것이다. 5mm짜리가 100개 있어도 소용없다. 사람중심의 농정을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농정이 필요하다. 70~80대 노인과 대학을 막 졸업하고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정책수단이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연금생활을 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과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같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장농민들은 맞춤형농정을 반대하지 않는다.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을 내놓더라도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맞춤형 농정이 실효성 있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정부의 소득보전 정책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수지가 맞지 않아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지, 땅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달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인들이 정책 혜택을 더 보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대상을 일컫는 용어도 □ 주업농□ 이라고 사용하라고 한 것이다. 맞춤형 농정은 고집 세계 밀어붙여 한다."

윤주이 상무이사 : 참여정부가 농업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말하면서도 통상협상에서 보듯이 농업을 소홀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박홍수 장관 : "참여정부가 절대 농업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현 대통령께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어느 산업현장보다 농업현장을 더 많이 찾았다. 한우농가, 감귤농가, 수출단지 등 직접 모시고 외부로 간 것 만해도 10번이 넘으며 다른 장관들이 질투할 정도로 농업 쪽에 많이 다녔다. 개방은 개방이고 농업 정책을 만드는 것은 또 만드는 것이다. 119조원 투·융자계획의 근본취지는 정권이 나 장관에 상관없이 향후 10년의 로드맵, 농정의 방향과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투·융자계획은 농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통상협상 과정에는 개방에 취약한 농림부장관으로 고민이 많았다. 한·미FTA도 아쉬움이 크지만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우리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과거에는 우리끼리 생산해서 먹다가 모자라면 자의적 판단

으로 수입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뜻과 상관없이 수입해야 하는 것이다. 개방은 우리나라가 금세기에 지구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핵심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농업과 농민이 살아갈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문을 아예 닫자는 것은 오히려 농민을 죽이는 길이고, 살 길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예전에는 □ 하다가 안 되면 농사나 짓지□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다□ 로 바뀌었다. 이미 나만의 방식,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농민들도 많다. 불과 10~20년 전만해도 우리농산물이 일본에서 번듯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민은 많지 않았다.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 농산물이 외국시장에서 품격을 갖춘 농산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윤주이 상무이사 : 한·미FTA와 같은 통상협상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은 어떻게 풀었는지.

박홍수 장관 : "정부 내에서도 부처간 충돌이 많다. 이견이 있을 경우 과거처럼 무조건 □ 아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키자고 생각했다. 내가 농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다른 부처 사람들의 입에서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해결방안을 찾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FTA를 추진할 사람도 외통부에서 발탁했다. 통상은 그쪽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또 축산이 통상에서 문제가 되면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축산국장을 보내 보고토록 했다. 쇠고기 문제가 한창 심각할 때는 우리 쇠고기를 집으로 보냈다. 우리 쇠고기가 맛이 있으니까 협상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왔다."

윤주이 상무이사 : 농정 추진기관들이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들 열심히 하지만 기본에 더 충실하라는 소리를 자주했다. 농진청, 산림청, 농촌공사, 유통공사 등은 각자 고유 업무가 있다. 농협도 마찬가지다. 농촌공사를 예로 들면 땅과 물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것에 90%를 두고 나머지 10%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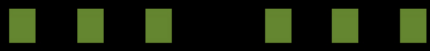
새로운 것을 추진해야 한다. 산림청도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병충해 방제와 산관리를 잘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품이 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한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다. 협동조합 문제는 많은 사람이 뭐했느냐고 말하는데, 협동조합은 행정조직처럼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외부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더 이상 과거의 행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스스로 바뀌는 게 진짜 바뀌는 것이다. 장관 말 한마디에 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구성원 스스로 제대로 자리를 잡겠다며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외부의 자극은 필요하지만 시대에 맞는 협동조합으로 변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해야 한다."

윤주이 상무이사 :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부처가 이견도 있는데.

박홍수 장관 : "9월 정기국회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오늘(8월 29일) 아침에 국무총리 주제로 회의가 있었는데 식품업무에 대한 농림부 입장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부처간 이견조율의 가닥을 잡기로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농림부가 □ 농식품 세계 일류□ 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가 돼야 한다. 또 농민들이 이런 비전을 달성토록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다. 우리 수준은 3에 불과하면서 수입최고기는 10수준에 맞추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농산물의 수준을 높여놓아야 한다. 쌀 관세화를 택한 일본과 대만을 비교하면 일본 소비자는 자국쌀이 고급쌀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만은 수입 쌀이 고급쌀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관세화를 이겨냈고 대만은 그렇지 못했다. 미국쌀이 시판됐을 때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소비자가 우리 쌀이 훨씬 좋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고생한 농민들에게 감사한다."

윤주이 상무이사 :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박홍수 장관 : "빨리 현장으로 내려가고 싶다. 몇 차례 얘기했지만 농업경영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이 땅의 농업과 농촌을 책임지라는 역사적 책임이 지워져 있다.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은 잡혔다. 농업경영인들이 진취적 사고와 행동으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동참하면서 정책입안의 중심에 서도록 다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줄 것을 당부한다."



농정일지

2005년 농정일지

날 짜	내 용
1. 5	박홍수 제55대 농림부 장관 취임
1. 6	농업인 신년인사회(AT센터)
1. 15	한살림 물류센터 준공식
1. 19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
1. 21	원예산업 정책토론회
1. 24	새만금 관련 관계부처회의
1. 25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
1. 26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발표회
1. 27	농과대학장 협의회장단 간담회
1. 29	정부혁신토론회
2. 3	2005부패방지평가보고 대회
2. 5	우리농산물 판매 우수업체 감사패 전달
2. 7	농민 대동제 참석(청량리역)
2. 23	'05 농산업 포럼특강
3. 2	농식품 수출확대대책회의
3. 3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100만가입 출정식
3. 4	전통식품 명인지정서 수여
3. 5	벤처농업간담회
3. 7	동식물방역 실태점검(인천공항)

날 짜	내 용
3. 10	농민단체간담회(국회 운영위원장실)
3. 11	눈 피해지역 현장 방문
3. 14	농안법개정추진위원회
3. 17	유통업체간담회
3. 22	쌀빵코너 개점 행사(창동유통센터)
3. 24	서남해안개발사업 관계기관회의 지역재단 창립1주년 기념 심포지움
3. 28	유엔 아태환경과 개발장관회의
3. 29	농촌주부 문학회
3.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가치 선포식
4. 1	소비자정책 심의회
4. 4	녹색의 숲 국제심포지움 통일 농수산물사업단 출범식
4. 6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
4. 8	특별재난지역선포관련 긴급대책회의
4. 9	지역농업발전 세미나
4. 11	농수산물유통공사, New비전 선포식
4. 12	브랜드쌀 한마당
4. 14	한국농업과학심포지움 간담회
4. 16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4. 18	국회 농림해양위 전체회의
4. 19	농민단체간담회
4. 26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
4. 27	축산물소비촉진 결의대회 제1회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날 짜	내 용
	북한농업의 실상과 남북간 농업협력세미나
4. 28	순회 농정 토론회(창원)
4. 29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
5. 2	민생경제침해사범대책 관계장관회의
5. 3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5. 4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5. 6	함평나비축제
5. 9	중앙농정심의회
5. 12	명예감시원 발대식(경동시장)
5. 16	혁신유공 및 사이버교육 우수자 시상
5. 17	김치요리 시연·시식회(aT센터)
5. 18	기업도시위원회
5. 20	멕시코 농업부장관 면담
5. 23	산지유통 국제심포지엄 ARC 개막식 및 환영연
5. 24	칠레 농업부장관 면담
5. 25	브라질 농업협력 MOU 체결
5. 26	전국 축협조합장 회의
5. 31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이전 개소식
6. 29	농촌체험·관광 관계기관회의
6. 30	쌀품질관련 간담회
7. 2	지역리더대회(창녕)
7. 5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토론회
7. 7	가평 클린농업 1592
7. 8	이탈리아 농업부장관 예방

날 짜	내 용
7. 11	여름휴가 농촌에서 보내기 캠페인(명동)
7. 12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계획설명회 중점관리정책 이행점검회의
7. 13	농업희망찾기정책 공모 시상식
7. 14	농민단체 합동 워크숍
7. 18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현장방문
7. 20	쌀시장개방대응전략 심포지엄
7. 22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시찰(안동)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울진)
7. 26	공공기관 이전 협약체결
7. 28	충북도 농업경영인대회
8. 2	농촌체험 및 정책활동의원 초청간담회
8. 10	우리술 육성지원법 제정 공청회
8. 11	통일우유보내기 성금 전달
8. 15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식
8. 16	농해수위·통외통위 연석당정협의
8. 18	축산단체장 방역간담회 RPC관련 조합장 간담회
8. 19	지식관리토론회
8. 23	국회 결산심사(예결위)
8. 24	소비자단체장 초청간담회 순회농정토론회(충주)
8. 29	명예장관 위촉
8. 30	백두대간 보호위원회
9. 1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날 짜	내 용
	한여농 전국대회(강원 횡성군)
9. 2	화훼산업 관계자 간담회
9. 6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9. 7	브랜드쌀 평가 발표회
9. 9	추석 농산물 수급동향점검 농촌사랑 한가위 대축제
9. 14	국회 본회의 결산의결
9. 16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9. 25	농림부장관배 경마대회
9. 27	생명농업엑스포 개회식
9. 28	주한 일본대사 예방 주한 이스라엘 대사 예방
9. 30	부산 경마장 개장식
10. 5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10. 6	우수농축산물 대전
10. 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착공식
10. 12	남북농업협력 협의회
10. 13	도농상생 한마당 축제
10. 14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10. 20	건강식품박람회 재선충 방제현장 시찰
10. 25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단장 간담회
10. 26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식
11. 5	정책고객관리 토론회
11. 6	「LOVE米농촌사랑」 마라톤대회

날 짜	내 용
11. 7	우리쌀 홍보·전시판매 행사
11. 9	흙의날 기념식 및 심포지움
11. 11	농업인의 날(농협 대강당) 고품질 쌀생산 우수전업농 시상
11. 15	OIE 아·태지역 회의
11. 18	APEC정상회의 만찬
11. 21	닭고기 요리 시식회
11. 22	김치 자선바자회
11. 24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토론회
11. 28	물류혁신위원회
11. 30	먹거리사랑 창립10주년 심포지움
12. 1	가금축산물 시식회 및 소비캠페인
12. 8	도·농교류관련 시상식 산림과학기술단체 심포지움
12. 9	국토정책위원회
12. 12	홍콩각료회의
12. 20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
12. 26	우수브랜드쌀 전시회 및 불우이웃돕기
12. 29	전통외식산업발전 유공자 시상식 고품질쌀 생산유통 시상식

2006년 농정일지

날 짜	내 용
1. 4	신년인사회
1. 5	농촌공사 창립기념식
1. 6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 설명회
1. 9	농업경영체 CEO와의 간담회
1. 10	산불대책회의(울산)
1. 11	설선물관련 대기업 CEO방문
1. 12	행정도시건설 개청 기념행사
1. 16	공동 마케팅 조직 선정패 수여식
1. 18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
1. 19	평화적 집회·시위문화정착 위원회
1. 20	쌀전업농주관 우리쌀 나눠주기 홍보
1. 21	농촌희망재단 지원장비 전달식
1. 25	농업전망 2006 대회
1. 27	쌀소비촉진 홍보(서울역)
1. 31	FTA 관련 회의
2. 1	신임 호주대사 예방
2. 2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정점검회의
2. 3	신지식인회 간담회
2. 7	교육대책 발표회의 및 컨설팅업체인증서 수여

날 짜	내 용
2. 15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6
2. 20	축산업계 조찬간담회 혁신선도 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2. 21	전통식품 명인지정서 수여
2. 22	농업전문학교 제7회 학위수여식 농촌사랑 지도자 연수원 개원식
2. 23	'06 농산업 포럼
3. 2	탐라이스 관련 회의
3. 3	신지식농업인 인증서 수여식
3. 6	농가소득안전심의회
3. 7	정보화추진위원회
3. 15	쌀자조금제 국회토론회
3. 16	새만금판결 정부입장발표
3. 20	쌀 우수품종 시식회
3. 23	농정기관 대토론회
3. 27	농정홍보혁신토론회
3. 29	도시락농정포럼 1사1촌운동 발전방안 토론회
3. 30	우리꽃 박람회 개막식 농업정책 및 농산업 창·취업 박람회
3. 31	쌀 갤러리 개장행사
4. 3	농업 인단체장 간담회
4. 6	농정혁신자문단 회의
4. 7	농산물 수출전진대회
4. 11	전업농중앙회 간담회

날 짜	내 용
4. 13	Agrix 추진상황 보고
4. 17	최고품질 벼품종 관련 회의
4. 19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 발표회
4. 21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행사시찰
4. 25	중자산업 발전대책 간담회
4. 26	주부교실 전국지도자 대회
4. 28	고양세계꽃박람회 국제카톨릭농민운동연맹총회 및 국제세미나
5. 4	지역언론간담회
5. 16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고품질 우리쌀생산 세미나
5. 17	세계농업인연맹(IFAP) 서울총회
5. 23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회의
5. 26	외국인정책회의
5. 29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정책추진방안
6. 2	NAFTA 관련 토론회
6. 7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토론회
6. 8	우수 우리농산물판매장 방문
6. 12	전국 농학계 대학장 협의회장단 간담회
6. 13	균형발전정책 성과 점검 보고회의
6. 15	한국식품과학회 국제심포지움
6. 16	양돈지도자 연수회
6. 23	학교급식 및 식중독 관련 관계장관회의
6. 26	태풍·호우대비 김포 신곡 양·배수장 현장점검
6. 28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날 짜	내 용
6. 29	미래 바이오 혁신 전략 보고회
7. 3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7. 4	여성정책조정회의
7. 6	한·미 FTA 2차협상 대표단 간담회
7. 7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7. 11	농업박물관 관련 토론회 농림지식검색시스템 추진상황 보고회
7. 15	수해피해지역 현장확인
7. 20	농민단체장 간담회
7. 28	정보공개우수기관 표창 전수
7. 31	농민단체, 전문지 사무실 순방 종자산업 관계자 면담
8. 2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임원간담회 농산물 유통시장 현장점검(하나로마트, E마트)
8. 3	마늘산업 관계자 면담
8. 7	한국해비타트 업무협력서 체결
8. 8	한농연 전국대회
8. 13	국제원예학대회
8. 16	수해농업인 임시주택 건축 자원봉사
8. 17	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명예감시원 관련 회의
8. 22	농·축·수산물 식자재 관련 토론회
8. 29	농어촌지역개발 업무조정 관계 장관회의
8. 30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식 농업과학 심포지엄 특강
8. 31	영농설계 발표대회 및 장학증서 수여

날 짜	내 용
9. 5	한우협회 시·도회장단 면담
9. 6	종자산업발전토론회
9. 7	축산물브랜드전시회
9. 8	신사료개발축산농가 방문(경기 이천)
9. 9	농학교육 100년 기념식
9. 11	국제키위협회총회
9. 12	쌀전업농 임원 간담회
9. 13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
9. 14	소 브루셀라병 방역현장 방문(강원 평창)
9. 20	좋은 일자리 창출 다짐대회
9. 22	신활력사업 현장점검 보고회
9. 25	추석대비 농산물수급동향 점검
9. 28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당정회의
9. 29	한미 FTA 특위
10. 2	제주농민단체 간담회
10. 4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방문
10. 12	전원마을 컨테스트 개막식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
10. 14	세계누에 산물전
10. 18	우수농축산물대전
10. 19	서울국제건강식품 박람회
10. 25	쌀작황 실태조사 및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10. 27	전북농촌현장 방문(인삼재배농가 등)
10. 30	전국으뜸 농산물 전시회
11. 2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날 짜	내 용
11. 3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준공식
11. 8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
11. 10	농업인의날 기념식
11. 14	축산물 HACCP 기준원 개원식
11. 16	자생식물 산업화 기술발표회
11. 17	전국지역리더대회
11. 22	서울국제농업기계박람회 개막식
11. 28	식품외식업계 간담회
11. 30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익산)
12. 4	난재배 관계자 오찬간담회
12. 12	파프리카 재배농가 간담회
12. 13	전국농업기술자대회 한우지도자대회
12. 14	미국 원예산업 현지조사결과 보고회의
12. 18	베트남 농민단체 예방 벤처농업 창업경영대회 시상식
12. 21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발표회 농정기관 연찬회
12. 22	CEO 아카데미 축하연
12. 26	농과대학 학생간부 간담회
12. 27	농촌사랑 지도자대회
12. 28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 유공자 시상

2007년 농정일지

날 짜	내 용
1. 2	농관원 시험소 방문
1. 4	농민단체 방문
1. 5	농업인 신년인사회
1. 9	한농연 임원단 간담회
1. 10	성공여성농업인과의 간담회
1. 11	농민단체 간담회
1. 13	우리농촌살리기 및 108산사기도회 발대식
1. 15	수과원·식검 검역현장점검 및 업무보고
1. 16	축협경영인조합장 협의회 임원간담회
1. 18	우리농촌살리기 관련 불교계와 간담회
1. 22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관계자 협의회
1. 24	2007 농업전망대회 농식품안전자문단회의 화전한우 시식회 및 조인식
2. 14	원예자조금 발전간담회 중·단기 "최고기수급전망" 간담회
2. 20	축산물검역 관계관 회의
2. 22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위수여식
3. 2	산불방지대책회의

날 짜	내 용
3. 15	고품질쌀 상황실 현판식
3. 16	아시아-태평양 난 전시회
3. 26	정책리모델링 제2차 회의
4. 3	FTA 국무위원 워크숍
4. 6	창업농 도 대표 간담회
4. 12	한우산업화기술 발표회 한우농가 브랜드경영체 간담회
4. 13	제1회 토마토 축제
4. 18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4. 19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실무위원회
4. 25	아파트 꽃 가꾸기 시범사업
4. 26	외교부-농림부 업무협력 MOU 체결
5. 3	도농교류 페스티벌
5. 21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간담회
5. 22	전국 양돈지도자 연수회
5. 23	감귤농업인 간담회
5. 23	총채보리 섬유질 사료공장 준공식
5. 28	성주참외 자전거 홍보단
6. 2	몽골방문
6. 13	FTA 국내보완대책 관계장관회의
6. 14	수출전략토론
6. 23	농산물장터(양양 낙산사)
6. 26	농산어촌 휴가보내기 캠페인 발대식
6. 27	몽골 식목행사 참여 대학생 간담회 면세유 부정유통 대책검토회의



날 짜	내 용
6. 28	FTA 특위 - 국내보완대책
7. 3	한·EU FTA 양허안 검토회의
7. 4	해남군 농업비전 선포식
7. 9	남아공 농업부장관 면담
7. 11	우박피해지역 농민단체장 간담회
7. 12	한·EU FTA 상황점검회의
7. 18	2012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위원회
7. 20	지리적표시제(고사리)선포식
7. 23	세계농정토론회(마사회)
7. 30	농산물원산지 단속강화 간담회
7. 31	쌀수출간담회
8. 1	(재) 해피하우스 설립 발기인대회
8. 2	제12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광주 실촌읍)
8. 8	쌀 전업농중앙회 창립10주년(마사회)
8. 10	하동군 농어업인 축제
8. 16	대학생 농촌자원봉사자 발대식(충북대)
8. 21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강원 횡성)
8. 30	영양고추축제(서울광장)
	축산물 브랜드전(COEX 태평양홀)

박홍수 농림부장관 연설문집
피할 수 없으면 당당히 맞서라

2007년 10월 발행
발행처 : 농 립 부
인쇄처 : (주)경성
(비매품)